연구보고 11-R14

창업, 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책임연구원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김태령(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최근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안정성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위험감수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창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전정신과 창의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로운 자질이지만 국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직업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가치있게 여기고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창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인지를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나 창업활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고용 확대를 위해 대안으로서 창업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함께 수행한 핀란드청소년 연구네트워크(Finnish Youth Research Network) 연구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두 기관 간의 연구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양질의 창업 활동은 사회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창업을 괜찮은 진로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는 창업가를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고 어려서부터 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이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두 국가 간 비교를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양국 청소년의 이해 정도 및 방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중요시하는 가치,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 영역,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나 행동 등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 청소년들의 창업실태와 창업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고, 창업을 한 경우, 사업자로서 자신의 역할, 현재까지의 사업성과, 향후 사업 성공 가능성,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의 운영에 있어 경제적책임, 법적책임, 윤리적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조사함으로써 양국 청소년들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핀란드청소년연구네트워크 연구진에 의해 구축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영어로 구축된 설문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핀란드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핀란드어로 작성된 원 설문문항 내용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번역의 정확성을 높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양국 모두 만15세부터 2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웹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1,016명, 핀란드는 1,058명의 청소년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업가정신, 기업의 사회적책임. 한국청소년, 핀란드청소년, 국제비교연구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 기업가정신,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한국청소년과 핀란드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고, 두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만 15세에서 2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은 1,016명, 핀란드는 1,058명의 청소년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핀란드청소년연구네트워크 연구진에 의해 구축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영어 버전의 설문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핀란드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핀란드어로 작성된 원 설문문항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의 일치도로 검토함으로써 번역의 정확성을 높였다.

3. 주요결과

1) 가치관과 불안정성,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인식

○ 행복, 가족의 안전,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서 두 국가 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두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청소년들이 핀란드청소년들에 비해 즐거움과 책임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의와 정직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 정도는 한국청소년들이 핀란드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들은 취업, 외모중시풍조, 기후변화에 대해, 핀란드청소년들은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기후변화, 마약밀매에 대해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취업, 개인소득, 자신의 인생에 대해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양국에 공통적이었다.

○ 한국청소년은 마약복용, 도박, 대출의 위험도를 가장 높게 보는데 비해 핀란드청소년들은 마약,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대출의 위험도를 가장 높게 보았다. 창업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 핀란드청소년들이 한국청소년들보다 위험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창업과 기업가정신

○ 창업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핀란드청소년이 한국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양국의 청소년 모두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해 창업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보였으며,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창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을 하면 잠재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핀란드청소년들이 한국청소년들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불안정성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창업은 할 만하다거나, 가족이 본인에게 창업하기를 원한다는 항목에서는 한국청소년들의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창업을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정도는 한국청소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한국청소년은 핀란드청소년에 비해 창업을 하는데 인맥이 중요하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고, 창업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인식도 더 높게 나타났다.

3) 기업의 사회적책임

○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한국청소년들이 핀란드청소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이 단기적 이익보다는 환경보호와 사람들의 행복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양국 청소년 모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기업 운영에서 도덕성과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은 한국청소년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사회적책임 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인식은 핀란드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4. 정책제언

1) 창업 여건의 개선

○ 창업에 대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핀란드청소년에 비해 높고, 창업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청소년이 사업성과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훨씬 낮고, 외부 장애요인으로 인한 사업상의 어려움은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창업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1인창조기업의 내실있는 육성

○ 한국청소년은 핀란드청소년에 비해 괜찮은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창업을 하게 된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서도 창업을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창업지원 정책은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회형 창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창업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1인창조기업의 육성이 생계형 창업을 양산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의 수보다 창업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3)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 한국청소년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걸맞게 기업의 운영자들과 구성원들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기업운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와 규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경제적, 법적 책임에 한정되지 않고 윤리적 책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기업가를 포함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 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4
3. 연구방법 ····· 5
   1) 선행연구 검토 ····· 5
   2) 온라인 설문조사 ····· 6

제2장 이론적 배경 ····· 11

1. 창업 및 기업가정신 ····· 13
2. 기업가정신 교육 ····· 17
3. 기업의 사회적책임 ····· 19

제3장 설문조사 결과 ····· 2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23
2. 가치관, 위험, 불확실성 ····· 26
   1) 가치관 ····· 26
   2) 불확실성이나 불안전성을 느끼는 정도 ····· 34
   3) 위험에 대한 인식 ····· 39
3.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인식 ····· 44
   1) 사업체 소유 및 성과 ····· 44
   2) 창업에 대한 인식 ····· 48
4.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 66
   1) 기업의 사회적책임 인지 여부 ····· 66
   2)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 68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77
1. 요약 및 결론 ····79
1) 가치관, 위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79
2)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인식 ····81
3)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83
2. 정책제언 ····84
1) 창업 여건의 개선 ····84
2) 1인창조기업의 내실있는 육성 ····85
3)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87

참 고 문 헌 ····89

부 록 ····93
1. 청년 설문지 ····95
2. 부록표 ····109

표목차

〈표 Ⅰ-1〉 표본 세분할당 ·····7
〈표 Ⅰ-2〉 조사 진행 절차 ·····9

〈표 Ⅱ-1〉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13
〈표 Ⅱ-2〉 창업태도: 용어와 해설 ·····15
〈표 Ⅱ-3〉 한국청소년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특징 ·····17

〈표 Ⅲ-1〉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조사대상자의 응답자 특성 ·····24
〈표 Ⅲ-2〉 가치관(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평균값 비교) ·····28
〈표 Ⅲ-3〉 가치관 비교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30
〈표 Ⅲ-4〉 가치관 비교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32
〈표 Ⅲ-5〉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른 가치관 차이 ·····34
〈표 Ⅲ-6〉 불확실성·불안정성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 순위 비교) ·····36
〈표 Ⅲ-7〉 불확실성·불안정성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37
〈표 Ⅲ-8〉 불확실성·불안정성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38
〈표 Ⅲ-9〉 위험도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41
〈표 Ⅲ-10〉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위험도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42
〈표 Ⅲ-11〉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른 위험도 인식 차이 ·····43
〈표 Ⅲ-12〉 독립적 사업체 소유 및 본인 설립 여부(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44
〈표 Ⅲ-13〉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45
〈표 Ⅲ-14〉 사업체의 업종(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45
〈표 Ⅲ-15〉 지난해 연간 매출액(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46
〈표 Ⅲ-16〉 독립적 사업자로서의 역할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46

〈표 Ⅲ-17〉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46
〈표 Ⅲ-18〉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47
〈표 Ⅲ-19〉 향후 5년내 사업의 성공가능성(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47
〈표 Ⅲ-20〉 향후 5년내 창업 · 사업확장 가능성(한국과 핀란드청소년 전체값, 배경변인별 비교) ·····48
〈표 Ⅲ-21〉 창업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전체값 및 성별 비교) ·····49
〈표 Ⅲ-22〉 창업에 대한 생각(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51
〈표 Ⅲ-23〉 개인의 성격과 창업(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전체값 및 성별비교) ··52
〈표 Ⅲ-24〉 개인의 성격이 창업에 끼치는 영향(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53
〈표 Ⅲ-25〉 창업을 하게 하는 동기(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전체값 및 성별 비교) ·····54
〈표 Ⅲ-26〉 창업의 조건 및 창업에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동의 정도(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55
〈표 Ⅲ-27〉 창업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57
〈표 Ⅲ-28〉 창업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58
〈표 Ⅲ-29〉 창업의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전체값 및 성별 비교) ·····61
〈표 Ⅲ-30〉 성취하고 싶은 것 (중복응답/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63
〈표 Ⅲ-31〉 성취하고 싶은 것 (중복응답/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성별 비교) ·····64
〈표 Ⅲ-32〉 성취하고 싶은 것 (중복응답/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연령별 비교) ·65
〈표 Ⅲ-33〉 기업의 사회적책임 인지 여부%(빈도) ·····67
〈표 Ⅲ-34〉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의미 인지 여부%(빈도) ·····68
〈표 Ⅲ-35〉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전체 비교(평균값 기준) ·····70

〈표 Ⅲ-36〉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성별 비교) ··72
〈표 Ⅲ-37〉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경제수준별 비교) ·····74

〈표 Ⅳ-1〉 1인 창조기업의 어려움 ·····87

〈부록표-1〉 가치관의 중요도 비교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109
〈부록표-2〉 가치관의 중요도 비교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111
〈부록표-3〉 불확실성 ·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114
〈부록표-4〉 불확실성 ·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116
〈부록표-5〉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위험도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118
〈부록표-6〉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위험도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119
〈부록표-7〉 창업을 하게 하는 동기(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121
〈부록표-8〉 창업의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 비교) ·····122
〈부록표-9〉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123
〈부록표-10〉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경제수준별 비교) ·····125

그림목차

【그림 Ⅱ-1】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6

【그림 Ⅲ-1】 한국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개 가치관 항목 ·····27
【그림 Ⅲ-2】 핀란드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개 가치관 항목 ·····27
【그림 Ⅲ-3】 한국청소년이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하게 느끼는 10개 항목 ·····34
【그림 Ⅲ-4】 핀란드청소년이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하게 느끼는 10개 항목 ·····35
【그림 Ⅲ-5】 한국청소년의 위험에 대한 인식정도 ·····39
【그림 Ⅲ-6】 핀란드청소년의 위험에 대한 인식정도 ·····40
【그림 Ⅲ-7】 한국청소년의 창업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 ·····56
【그림 Ⅲ-8】 한국청소년이 인식하는 창업의 위험요소 ·····59
【그림 Ⅲ-9】 핀란드청소년이 인식하는 창업의 위험요소 ·····60
【그림 Ⅲ-10】 한국: 성취하고 싶은 것 ·····62
【그림 Ⅲ-11】 핀란드: 성취하고 싶은 것 ·····63
【그림 Ⅲ-12】 기업의 사회적책임 인지 여부 ·····66
【그림 Ⅲ-13】 기업의 사회적책임 의미 인지 여부 ·····67
【그림 Ⅲ-14】 한국: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68
【그림 Ⅲ-15】 핀란드 :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6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나는 안정보다 기회를 택한다. 나는 계산된 위험을 단행할 것이고 꿈꾸는 것을 실천하고 건설하며 또 실패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보장된 삶보다 도전을 선택한다. 나는 유토피아의 생기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성취의 전율을 원한다."
> (미국 기업가협회 기업가신조, 송영수, 2010에서 재인용).

2011년 10월 7일 애플사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의 업적과 삶에 대한 찬사는,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내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 보편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이 뿐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혁신을 가져오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은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사회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러한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키우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창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힘쓰고 있다.

한국 정부도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주요 동기는 노동시장, 특히 청년 노동시장의 약화이다.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업을 통한 고용기회의 창출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노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창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에 한정하여 생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창업을 취업 기회의 부족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창업 활동의 질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 32개국을 대상으로 2009년에 조사한 기업가정신 글로벌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6위를 차지했다.[1] 이는 2000년의 11위, 2005년의 14위보다 더 떨어진 순위이다. 창업의 질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는 정규고용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회형 창업 활동' 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창업 활동이 더 많고, 위험 부담이 있지만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형 혁신 창업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생계형 창업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높은 경제적 수준에 비해 현재 이루어지는 창업의 성격은 그에 걸맞지 않는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반성식 외, 2010).

기업가정신을 높이고 창업, 특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루어내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환경을 창업을 시도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청소년들에게 도전정신과 창의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고찰한다.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창업을 할 경우 기업의 운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이기도 하지만 창업을 진로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시민으로서 기업들이 사회 전체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견제하고 독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그들의 이해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핀란드청소년연구네트워크(Finnish Youth Research Network)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핀란드청소년연구네트워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멤버 기관 중 하나다. 본 연구는 핀란드 측의 제안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핀란드청소년연구네트워크가 구축한 설문도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1) 핀란드는 2009년 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다.

생산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양국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하기 위해 그들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을 느끼는 영역과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어떤 일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청소년들의 창업실태를 고찰하고, 창업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 향후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인식, 사업체 규모를 고찰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찰한다. 창업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넷째, 청소년들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방식을 비교한다.

3.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검토

창업, 기업가정신,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기업가정신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 온라인 설문조사

(1) 조사설계

구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5세~29세 청소년
표본 크기	• 유효표본 1,016명
표집 방법	• 16개 시. 도 주민등록인구수 기준 비례할당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방법	• 이메일을 통한 웹조사

* 조사 결과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에 인구수 비례 가중값을 부여

(2) 표본 설계

① 시도별 표본수 배정 (16개 광역시도별 모집단수에 따라 비례배분)

연도	모집단			비례할당에 따른 조사 표본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5~19세	1,892,718	1,671,713	3,564,431	185	164	349
20~24세	1,647,291	1,488,607	3,135,898	161	145	306
25~29세	1,918,339	1,812,718	3,731,057	185	176	361
계	5,458,348	4,973,038	10,431,386	531	485	1,016

* 2010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② 표본구성

구성방법	•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연령/지역별 비율로 세부할당 실시
표본 수	• 1,016명

③ 세부할당

표본의 세부할당은 〈표Ⅰ-1〉과 같다.

표Ⅰ-1 표본 세분할당

행정구역명	남녀 구분	합계	15~19세	20~24세	25~29세
전국	남	531	185	161	185
	여	485	164	145	176
	계	1,016	349	306	361
서울특별시	남	112	35	33	44
	여	108	31	32	45
	계	220	66	65	89
부산광역시	남	38	13	12	13
	여	35	11	11	13
	계	73	24	23	26
대구광역시	남	28	10	9	9
	여	24	8	7	9
	계	52	18	16	18
인천광역시	남	30	11	9	10
	여	28	10	8	10
	계	58	21	17	20
광주광역시	남	16	6	5	5
	여	15	6	4	5
	계	31	12	9	10
대전광역시	남	17	6	5	6
	여	15	5	5	5
	계	32	11	10	11
울산광역시	남	13	5	4	4
	여	11	4	3	4
	계	24	9	7	8
경기도	남	122	44	36	42
	여	114	40	34	40
	계	236	84	70	82

행정구역명	남녀 구분	합계	15~19세	20~24세	25~29세
강원도	남	15	5	5	5
	여	13	5	4	4
	계	28	10	9	9
충청북도	남	16	6	5	5
	여	14	5	4	5
	계	30	11	9	10
충청남도	남	21	7	6	8
	여	18	6	6	6
	계	39	13	12	14
전라북도	남	19	7	6	6
	여	16	6	5	5
	계	35	13	11	11
전라남도	남	18	7	5	6
	여	16	6	5	5
	계	34	13	10	11
경상북도	남	27	9	9	9
	여	23	8	7	8
	계	50	17	16	17
경상남도	남	33	12	10	11
	여	30	11	9	10
	계	63	23	19	21
제주특별자치도	남	6	2	2	2
	여	5	2	1	2
	계	11	4	3	4

(3) 조사 진행 및 분석절차

① 조사 진행 절차

설문조사를 진행한 주요 절차는 아래의 〈표 Ⅰ-2〉와 같다.

표 Ⅰ-2 조사 진행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실사준비	• Web 설문지 제작(조사기관 자체 개발 Web-Survey 프로그램) – 척도형, 복수형, 순위형, 오픈형 등 설문 유형에 따라 탑재 – Pilot Test 실시, Pilot Test 후 최종 검토 후 설문 확정 • 할당표에 의한 응답 대상자 5배수 추출
실사진행	• Web 설문지 1차 발송 – 응답 대상 패널에게 웹 설문지 1차 발송 • 설문조사 공지 이메일 발송 – 응답률 제고를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 설문조사에 대한 공지 및 이메일 확인독려 • Web 설문지 재발송 – 응답을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3일 간격으로 2차 재발송하고 2차에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 3차 재발송 • 모니터링 – 실사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 주요 할당 변수 및 배경 변수 – 쿼터 미확보 셀에 대해 응답독려 e-mail 발송
면접원 관리	• 담당 연구진과 실사 연구원이 면접원과 수시로 연락하며 조사대상자의 질문이나 면접원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면접 시 조사원칙 및 진행원칙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함
결과처리 및 분석	• 응답된 데이터는 WEB서버 상에서 자동으로 입력 · 저장됨 • 입력된 데이터를 SPSS Win program 파일로 자료 변환 • Closed question은 숫자변수로, Open-end question은 문자변수로 처리 • 연구진의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최종 데이터 구축 • 조사 결과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에 인구수 비례 가중값을 부여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청년 창업과 기업가정신
2. 기업가정신 교육
3. 기업의 사회적책임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창업 및 기업가정신

한 사회의 경제 발전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고용흡수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국사회도 이를 경험하고 있다(박동 외, 2010). "고용없는 성장"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경제상황 속에서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창업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그 사회의 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전통적인 경제학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자동적으로 생산에 응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이윤재, 2005, 반성식 외, 2009에서 재인용)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생산방식이나 기술을 도입할 때 따르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수용하는 기업가정신이 없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반성식 외, 2009). 이런 점에서 자라는 세대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국제경쟁력 준비에 중요하다.

먼저 기업가정신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기업가정신이라는 개념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을 어떤 측면에서 조명하는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박철 · 강유리, 2010). 배종태(2009)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Ⅱ-1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연구자	정의	중심내용
Knight (1921)	불확실성과 위험의 부담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위험감수, 이윤추구
Schumpeter (1934)	생산적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고 촉진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	새로운 결합촉진

연구자	정의	중심내용
McClelland (1961)	개인의 적절한 위험 도전 성향	위험감수
Leibenstein (1970)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조직의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는 과정/활동	비효율성 제거 가치창출
Casson (1982)	희소자원을 조정하는 의사결정 활동과 과정	자원의 조정
Stevenson (198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	기회추구
Burgelman (1983)	사내벤처(팀)를 창출하는 과정	조직체 창조
Ronstadt (1984)	점진적인 부 창출을 창조하는 역동적 과정	이윤추구
Gartner (1985)	신조직의 창조(과정/활동)	조직체 창조
Drucker (1985)	새로운 부창출 능력을 가진 기존 자원의 할당을 포함한 혁신의 한 행동	혁신(자원의 할당)
Hisrich (1985)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	가치창출
Schuler (1986)	사내기업가들의 혁신적, 위험감수적 활동	혁신과 위험감수
Stevenson and Jarillo-Mossi (1986)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	가치창출
McMillan and Long (1990)	새로운 성장기업을 구축하는 과정 또는 활동	성장성
Amit, Glosten and Muller (1993)	불확실하고 모호한 환경 하에서 새롭고, 독특하고, 가치있는 자원의 조합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	자원의 조합
Timmons (1994)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추론/행동방식	기회추구 사고/추론/행동방식
Kao (1995)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가치창출
Lumpkin and Dess (1996)	조직의 신규진입	조직체 창조
Sexton and Smilor (1997)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는 행위	사업기회 추구와 성장성
Duane and Hitt (1997)	파악된 기회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 자원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것	자원수집과 통합 이윤추구
배종태·차민석 (200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	기회를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

기업가정신의 개념이 다양한 만큼이나 이를 측정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기업가정신연구 영역에서 잘 알려진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는 기업가정신을 창업 태도(attitude), 활동(activity), 열망(aspiration)으로 측정한다. 이 중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가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를 표현한다. 사회에는 가치있는 사업 기회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반성식 외, 2010). GEM 연구에서는 창업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표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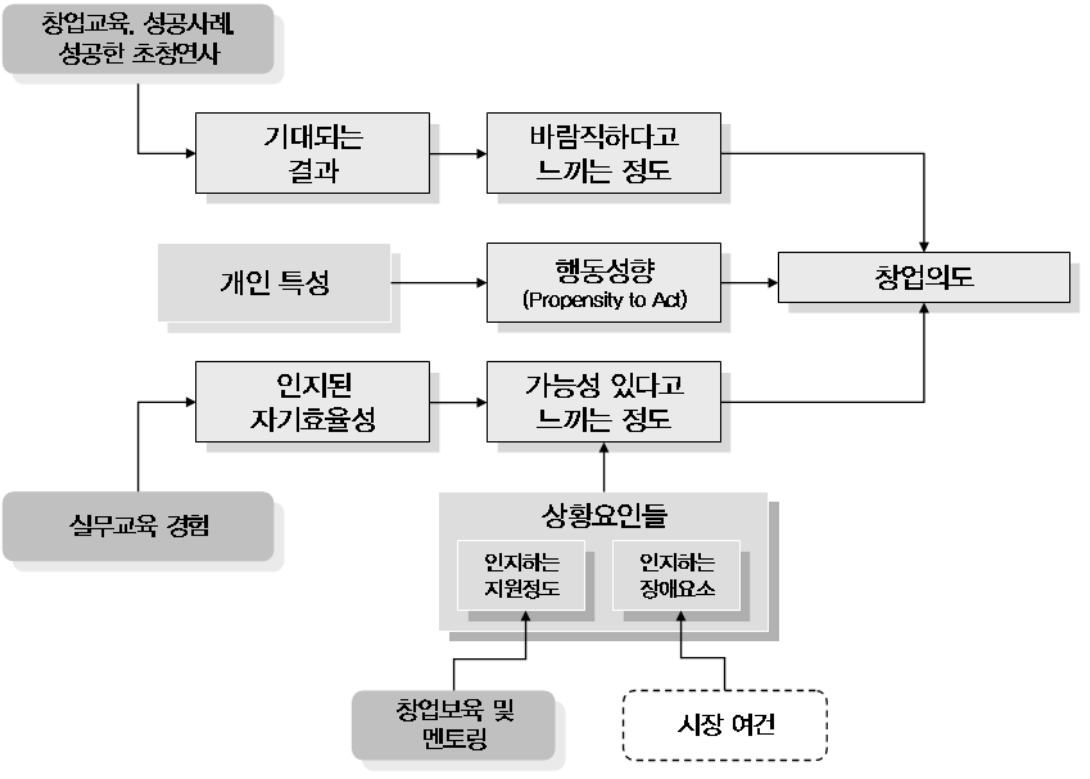
표 Ⅱ-2 창업태도: 용어와 해설

용 어	해 설
창업기회 인식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
창업능력 인식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
창업 의도	5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비율
실패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
직업 선택시 창업 선호	해당 사회(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창업을 선호하는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동의한 사람의 비율
언론의 창업 관심도	해당 국가에서 공공매체를 통해 자주 성공적인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에 동의한 사람의 비율

※ 출처: 반성식 외(2010).

한 사회의 문화는 구성원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Hofstede가 주장한 문화적 차원에서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의 비교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대체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기업가정신이 높고 창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orris et al., 1994, 박철 · 강유리, 2010에서 재인용).

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업가정신이 어떠한지는 그 사회가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는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그 사회가 창업에 얼마나 지원적인 사회 인프라를 가졌는지도 기업가정신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주위에 창업을 한 사람이 있는 지 등이 창업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가져온다. Leffel(2008)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Ⅱ-1】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Leffel, 2008, 배종태, 2009에서 재인용)

최근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김학수 · 임규진, 2010). 중소기업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2000년에 53이었다가 2007년에는 18로 추락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기업가정신 지수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2000년 61에서 2007년 24로 떨어졌다. 창업 제조업체 수는 2007년 8,696개에서 2009년 절반에 못 미치는 4,051개로 감소했다(백우진, 2010). 기업가정신의 약화는 미래 경제성장 잠재력의 약화와 다를 바 없다. 전망있는 사업 기회를 인지하고,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창업을 하고, 이를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은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는다. 창업을 전망있고 가치있는 진로로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여 어려서부터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업가정신 교육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 창업강좌지원사업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비즈쿨 사업과 같이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창업사례의 홍보를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교육은 창업 교육과 동일시되었으며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 대상 또한 성인에 제한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창업진흥원, 2009). 2009년 수행된 창업진흥원의 '청소년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특징은 〈표 Ⅱ-3〉와 같다.

표 Ⅱ-3 한국청소년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특징

특징	내용
문화적 인프라 취약	* 장기간의 군사독재와 입신양명에 가치를두는 전통적 사상으로 인해 집단주의 및 단체주의가 강조되며, 전쟁과 최근의 IMF 및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주의가 만연하여 개인이 스스로 난관을 극복하려는 기업가적인 의지를 나타내기 어려운 문화적 요건임.
교육 수요의 확산을 위한 기반 미비	* 청소년기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학생 스스로의 교육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 또는 정부의 계몽적인 차원에서 민간, 정부, 학교의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이루어짐. 즉, 개별적, 능동적 수요에 대한 대응이 아님. * 전문계고의 경우, 비즈쿨 등 창업에 대한 교육 요구는 커지는 추세이며,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학생 자체적인 니즈도 일정 수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학의 창업 동아리 또는 창업 관련 교육(기업가정신 교육 중 대단히 실무적인 과정 중심) 참여에 있어서는 일정수준의 개별적 수요가 존재함.
온라인 교육 과정 절대적 부족	* 민간차원에서 브랜디드 러닝이 일부 추구되고 있으나 참여 메리트가 떨어지므로(교과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대입 또는 특목고 입시에서 메리트가 없음)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채널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교육 체제 미비	* 기업가정신 교육 자체가 정규과정으로 개발 또는 채택되는 사례는 없으며 경제교육에 치중하고 있음. 민간차원의 과정은 일부 존재하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경제 금융 교육에 치우쳐 있음.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비즈쿨과 같은 체제가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창업 및 실무 위주의 교육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

특징	내용
민간 참여 미비	* 교육 운용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나, 일반 기업의 경우, 이벤트성 교육에 그치며(금융회사의 청소년 금융 교육 등) 기업가정신 함양이 우선시되고 있지 않음.
법제 미비	* 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교육지원법(09.02)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09.05)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역경제교육센터(6 → 9개소 확장 09.02)가 있으나 청소년 대상의 본격적 기업가정신 교육이 아닌 일부 지원을 실시하므로 경제교육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기업가정신 교육이 부재한 상황임.
교사 인증/수준 제고 부재	* 현재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또는 교육에 관련된 인증 및 표준화 방안은 없음.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사업이 존재하나 현재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교육 및 지원 사업, 특히 대학생 및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일관성이 없이 다양한 형태로 중복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증 및 표준화 방안이 필요함. 정부 차원에서 인증 및 표준화 사업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경우도 표준화 및 인증이 이루어 질 수 없음. 마에스터고 사업, 비즈쿨, 기술사관, 산학협동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창업관련 또는 전문기술인력의 기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광의의 기업가정신 교육사업이 중복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활성화 방안을 따로 연구하는 추세임. 창업의 경우 비즈쿨 사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으나, 창업과 실무 전에 필요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은 정부, 민간,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부재함. 창업지원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중복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음(창업진흥원의 신기술 창업, 실험실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 1인 지식기업의 지식기업 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소상공인(대학생 포함) 등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일원화 되어있지 않음).
교육 콘텐츠의 표준화 부재	
대학에 한정된 창업지원	* 대학교의 기술창업의 경우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실험실 창업 지원, 1인 지식 기업 창업 지원 등 중소기업청 차원에서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 기업가정신 정규 커리큘럼 부재	* 기존의 초·중·고별 수업형태는 경제학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수업시간도 부족하고 전문 교사의 전문성이 부재한 상황임. * 현재 경제교육은 중등이상의 커리큘럼에서는 선택 과목이 되어 중요도가 하락함. * 수능에서 선택과목 중 경제 교과의 채택률이 떨어지고 입시 준비에 있어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니즈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초·중·고 및 대학교 전체적으로 부재한 실정임. * 기업가정신의 함양 → 경제교육 → 창업교육 → 창업지원 → 기업가정신 발현과 같은 프로세스화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특징	내용
대학에 한정된 창업활동 관리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으로서는 정규과정 중 경제교육을 제외하면 비즈쿨이 유일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창업, 실험실 창업 및 아이디어 상업화) 체계적인 팀지원과 팀티칭이 테크노 센터와 창업진흥원, 1인 지식기업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는 실제 기업 설립에 있어서 고교(특히 전문계)의 비즈쿨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임.

※ 출처: 창업진흥원(2009), pp.92-94.

3. 기업의 사회적책임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와 문화, 역사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이상민· 최인철, 2002). CSR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데, 신고전학파경제학으로 대표되는 이 시각은 기업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헌한다고 본다. 즉 기업은 이익을 내는 일에 충실할 때 사회적책임을 다한다는 시각이다(Friedman, 1970, Steiner & Steiner,1980, Frederick et al.,1988, 신민식·김수은·김병수, 2011에서 재인용). CSR에 대해 긍적적인 시각을 보는 입장에서는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결국 사회전체의 비용이 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비용 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기업에 득이 된다고 본다(Carrol, 1999, 이상민 외,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대립된 두 입장 외에도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분리하지 않고, 기업의 목표는 이익 추구이지만 그것이 기존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와는 구별되는 장기적인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운영을 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이상민 외, 2002).

기업의 사회적책임(이하 CSR)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은 Carrol이다. 그는 CSR을 자선사업의 책임,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 경제적 책임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고, 이후 Schwartz와의 공동 연구에서는 자선적 책임을 제외한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생산성 통제나 고객불평관리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회가 기대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책임은 기업이 법의 체계 내에서 주어진

의무들에 대해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Carroll, 2003, 김성진·김종근, 2010에서 재인용).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2010년 11월 1일부터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SO 26000은 조직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경쟁, 소비자 문제, 지역사회 참여와 개발 등을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다. 기업들도 성장전략을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수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에 옮기고,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성과보고서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신민식 외, 2011).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공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이윤창출이나 사회적 규범, 사회적 투자의 의미로 이루어져 왔다기 보다 준조세납부와 같은 관행이나 사회로부터의 압력이나 기업비판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이상민 외, 2002). 이로 인해 기업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CSR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3 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 가치관, 위험, 불확실성
3.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인식
4.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제 3 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청소년조사 대상은 총 1,016명으로 성별, 지역규모별, 연령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당·표집 하였으며, 청소년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남자청소년이 52.3%(531명), 여자청소년이 47.7%(485명)로 남자청소년이 조금 더 많이 조사되었다. 핀란드조사 대상자는 총 1,058명으로 남자청소년이 40.8%(432명), 여자청소년이 59.2%(626명)으로 여자청소년이 약 20%더 많이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한국조사에서는 10대 후반이 34.4%(349명), 20대 초반이 30.1%(306명), 20대 중·후반이 35.5%(361명)로 연령별로 골고루 조사되었으나, 핀란드조사에서는 10대 후반이 약 10%(104명), 21세~25세가 29.8%(315명), 26세부터 31세까지가 60.4%(639명)으로 조사대상의 연령대가 한국청소년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청소년들의 47.3%(481명)가 대도시, 36.9%(375명)가 중소도시, 15.8%(160명)는 읍·면 거주자였다. 핀란드의 경우는 대도시의 도심과 주변교외지역(suburban area)에서 72.5%(767명)가 조사되었고, 소도시와 소도시 주변 교외지역(outskirts of a small town)에서 23.4%(247명), 전원지역(countryside)에서 4.2%(44명)가 조사되어, 대도시와 주변 교외지역의 조사대상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조사 응답자의 학력을 보면, 중졸이하는 1.1%(11명),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23.6%(239명), 전문대재학중이거나 졸업자가 16.1%(163명), 4년제 대학재학중이거나 졸업자는 51.1%(519명), 대학원 재학이상인 경우가 7.7%(79명)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 학제가 한국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중등교육졸업자(comprehensive school)가 7.7%(81명), 고등직업학교(higher vocational level)졸업자가 22.3%(236명), 직업전문대학(polytechnic)졸업자가 17.1%(181명), 그리고 학사 학위자나 대학재학중인 응답자는 52.9%(5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을 보면, 한국조사의 경우 학생이 53.4%(54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이

16.3%(165명), 전문직이 12.4%(126), 무직이 9.2%(93명)를 차지했으며, 관리직이거나 사업주는 각각 2%(20명), 1.9%(19명)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핀란드조사에서는 학생이 40.5%(42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무직(laborer/worker)이 30.7%(325명), 사무직이 9.6%(102명), 전문직 7%(7.4%), 무직 5.9%(6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주나 관리직은 각각 1.3%(14명), 0.9%(9명)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Ⅲ-1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조사대상자의 응답자 특성

구분		한국		핀란드		
		%	사례수(N)	%		사례수(N)
전체		100	1016	100		1058
성별	남	52.3	531	40.8		432
	여	47.7	485	59.2		626
연령	만15~19세	34.4	349	16~20세	9.8	104
	만20~24세	30.1	306	21~25세	29.8	315
	만25~29세	35.5	361	26~31세	60.4	639
지역규모	대도시	47.3	481	대도시(교외포함)	72.5	767
	중소도시	36.9	375	소도시(주변포함)	23.4	247
	읍면	15.8	160	전원지역	4.2	44
학력수준	중졸이하	1.1	11	comprehensive school(중등교육)	7.7	81
	고졸/재학중	23.6	239	higher vocational level (고등직업교육)	22.3	236
	전문대졸/재학중	16.1	163	polytechnic (직업전문대학)	17.1	181
	대학졸업/재학	51.1	519	대학재학/졸업	52.9	560
	대학원 이상	7.7	79	–	–	–
	모름/무응답	0.4	4	–	–	–
직업	사업주	1.9	19	1.3		14
	관리직	2.0	20	0.9		9
	전문직	12.4	126	7.0		74
	사무직	16.3	165	9.6		102
	(단순)노무	2.1	21	30.7		325
	학생	53.4	542	40.5		429
	가사	1.3	13	4.1		43
	무직(군인)	9.2(0.2)	93(2)	5.9		62
	모름/ 무응답	1.4	14	–		–

구분			한국		핀란드	
			%	사례수(N)	%	사례수(N)
가족관계 및 거주형태	미혼, 보호자와 함께 거주		72.4	736	12.0	127
	미혼/보호자와 거주하지 않음		22.2	226	37.5	397
	결혼, 배우자와 거주, 자녀 없음		2.6	27	35.0	370
	결혼, 재우자와 거주, 자녀 있음		1.8	18	12.9	137
	배우자 없고, 자녀 있음		0.5	5	1.2	13
	기타/잘 모름		0.4	4	1.3	14
부모 취업 상태	부	임금근로자	45.2	459	65.3	691
		사업주	35.9	365	21.5	227
		무직	11.3	114	6.0	63
		기타/잘 모름	7.7	78	7.3	77
	모	임금근로자	39.2	398	77.4	819
		사업주	20.1	205	9.9	105
		무직	36.2	367	5.8	61
		기타/잘모름	4.5	45	6.9	73
경제수준	상		10.3	104	9.7	103
	중		48.5	492	46.3	490
	하		41.3	419	44.0	465

가족관계와 이에 따른 거주형태를 보면, 한국청소년들의 경우 미혼이면서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72.4%(736명)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인 반면, 핀란드청소년의 경우는 12%(127명)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는 성인이 되어도 결혼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인 현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혼이면서 보호자와 거주하지 않는 한국청소년은 22.2%(226명)를 차지했고, 핀란드조사에서는 37.5%(397명)로 나타났다. 기혼이면서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한국조사에서는 2.6%(27명)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핀란드조사에서는 35%(370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핀란드의 조사대상자의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혼이면서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한국조사에서는 1.8%(18명)이었고, 핀란드조사에서는 12.9%(1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취업상태를 보면, 아버지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한국조사에서는 45.2%(459명), 핀란드에서는 65.3%(691명)으로 핀란드조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한국조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사업주라는 응답이 35.9%(365명)로, 핀란드의 21.5%(227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을 보면,

한국조사에서 어머니가 임금근로자라는 응답은 39.2%(398명)있고, 핀란드조사에서는 77.4%(819명)로 핀란드조사 대상자 어머니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사업주라는 응답은 한국은 약 20%(205명), 핀란드는 9.9%(105명)이었으며, 무직이라는 응답은 한국에서는 36.2%(367명)로, 핀란드의 5.8%(61명)보다 매우 높았는데, 이는 한국조사대상의 어머니들이 전업주부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경제수준별로 보면 한국청소년의 경우 '부유하다'와 '소득이 높은 편이다'는 응답이 10.3%(104명)이었고, '소득이 평균 정도이다'는 응답은 48.5%(492명)로 과반수에 달했다. '소득이 낮은 편이다'와 '가난하다'는 응답은 41.3%(419명)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도 유사한 비율을 보였는데, 경제적 상황이 부유하거나 소득수준이 좋다고 (wealthy, good income) 응답한 경우는 9.7%(103명)이었고 평균임금(average income)수준은 46.3%(490명), 저소득이거나 가난하다(low income, poor)는 응답은 44%(465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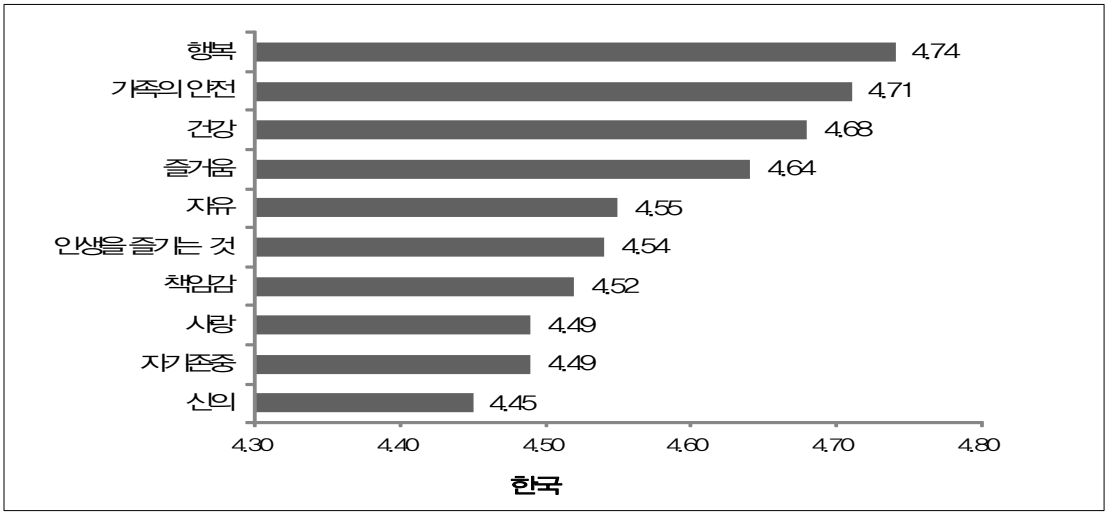
2. 가치관, 위험, 불확실성

양국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개인과 가족, 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얼마나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지, 그리고 창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위험을 얼마나 지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핀란드 청년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를 실시하였고, 성별과 경제수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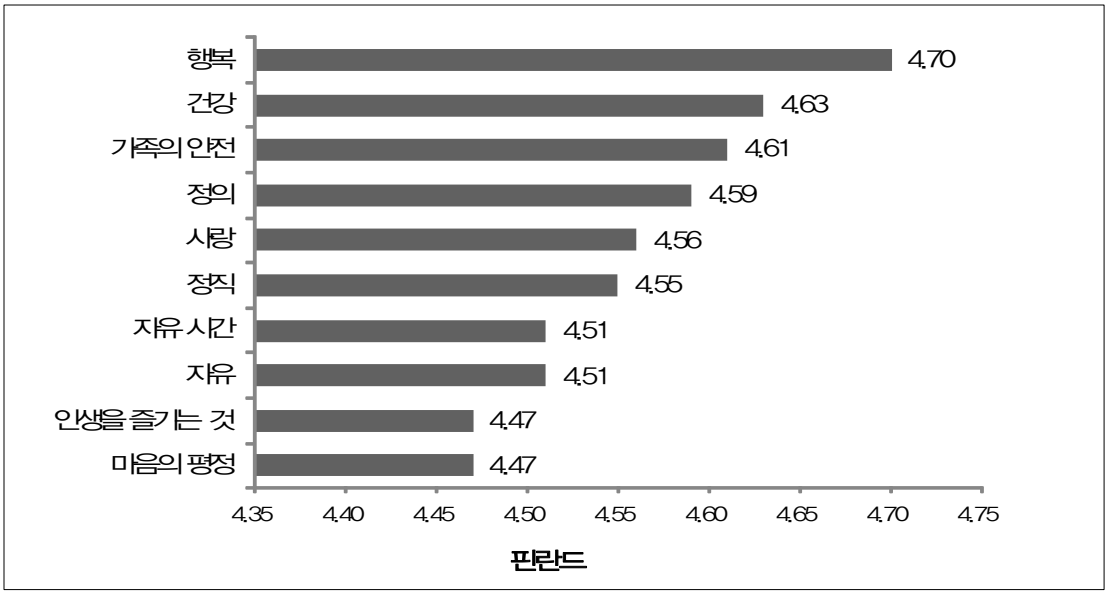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다양한 가치관 항목들의 중요도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1)부터 '매우 중요하다'(5)까지 5가지 척도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값[2]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핀란드의 청소년들은 전체 34개 항목 중 '행복'에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한국 평균값=4.74, 핀란드 평균값=4.70).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들을 국가별로 보면 [그림 Ⅲ-1], [그림 Ⅲ-2]와 같다.

2) 응답을 위한 척도 중 '잘 모르겠다'는 제외한 '평균값 기준



【그림 Ⅲ-1】 한국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개 가치관 항목(높은 평균값 기준)

한국청소년과 핀란드청소년 사이에 약간의 중요도 차이가 있었으나, '행복' ,'가족의 안전'과 '건강', '자유', '인생을 즐기는 것', '사랑' 등 6개 항목이 상위 10개 항목에 공통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 핀란드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개 가치관 항목(높은 평균값 기준)

그러나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그 중요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서, '즐거움'이 4번째(M=4.64)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지만, 핀란드의 청소년 조사에는 14번째로 (M=4.18) 나타났다. 또 한국청소년들이 7번째(M=4.52)로 높은 평균값을 보인 '책임감'은 핀란드청소년들에게서는 16번째로 (M=4.05)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핀란드청소년들이 4번째로 높은 평균값(M=4.59)을 보인 '정의'에 대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21번째의 평균값(M=4.22)을 보였다. 더불어 핀란드청소년들이 6번째로 높은 평균값(M=4.55)을 보인 '정직'에 대해서도 한국청소년들은 16번째(M=4.29)의 평균값을 보여 큰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Ⅲ-2 가치관(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평균값 비교)

가치관	한국		핀란드	
	평균값 높은 순위	M(SD)	평균값 높은 순위	M(SD)
행복	1	4.74(.539)	1	4.70(.539)
가족의 안전	2	4.71(.572)	3	4.61(.680)
건강	3	4.68(.601)	2	4.63(.595)
즐거움	4	4.64(.577)	14	4.18(.635)
자유	5	4.55(.598)	7	4.51(.599)
인생을 즐기는 것	6	4.54(.659)	9	4.47(.647)
책임감	7	4.52(.624)	16	4.05(.779)
사랑	8	4.49(.703)	5	4.56(.721)
자기존중	9	4.49(.683)	13	4.37(.678)
신의	10	4.45(.675)	12	4.45(.870)
사람간의 평등	11	4.43(.708)	11	4.46(.762)
자유 시간	12	4.40(.627)	7	4.51(.607)
인생의 의미	13	4.36(.754)	24	3.60(.992)
마음의 평정	14	4.36(.651)	9	4.47(.660)
지혜	15	4.34(.647)	17	3.94(.743)
정직	16	4.29(.729)	6	4.55(.613)
용기	17	4.27(.680)	22	3.76(.704)
돈	18	4.23(.756)	25	3.47(.863)
흥미진진한 생활	19	4.23(.746)	30	3.24(.859)
효율성	20	4.23(.655)	27	3.38(.834)
정의	21	4.22(.717)	4	4.59(.622)

가치관	한국		핀란드	
	평균값 높은 순위	M(SD)	평균값 높은 순위	M(SD)
환경보호	22	4.19(.760)	18	3.86(.927)
창의성	23	4.16(.765)	23	3.67(.922)
성공	24	4.15(.839)	26	3.42(.905)
독립심	25	4.11(.716)	20	3.78(.846)
의무감	26	4.10(.761)	19	3.84(.826)
일	27	4.08(.693)	20	3.78(.828)
관용	28	4.07(.702)	15	4.17(.834)
물질적 풍요	29	4.01(.801)	28	3.29(.866)
부자가 되는 것	30	3.88(.908)	31	3.01(.948)
사회적 명성	31	3.73(.827)	34	2.75(.940)
야망	32	3.69(.858)	29	3.25(.959)
높은 사회적 지위	33	3.54(.932)	33	2.79(.912)
권위	34	3.39(.923)	32	2.93(.865)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가치관 항목을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권위'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값(M=3.39)을 보인 반면, 핀란드조사에서는 '사회적 명성'(M=2.7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높은 사회적 지위'와 '야망', '사회적 명성', '부자가 되는 것', '물질적 풍요' 등에 대한 중요도에서 양국 청소년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관용'으로 핀란드청소년은 15번째로 높은 평균값을 보인데 비해, 한국청소년들은 28번째의 평균값을 보였다. 창업, 기업가정신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창의성'과 '성공', '독립심' 등의 항목에서 양국 청소년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들 항목의 평균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했다.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가치관에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부록표-1〉에 제시되어 있으며, 본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양국 청소년조사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별차이를 보인 항목은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복', '가족의 안전', '건강', '즐거움', '인생을 즐기는 것', '자기존중', '사람간의 평등', '환경보호'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그 중요도 있어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표 Ⅲ-3 가치관 비교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행복	M(SD)	4.67(.632)	4.82(.402)	4.61(.620)	4.77(.464)
	t	−4.375***		−4.518***	
가족의 안전	M(SD)	4.64(.657)	4.77(.455)	4.48(.766)	4.70(.599)
	t	−3.603***		−4.963***	
건강	M(SD)	4.63(.687)	4.74(.483)	4.53(.672)	4.69(.527)
	t	−3.005**		−4.151***	
즐거움	M(SD)	4.61(.644)	4.69(.491)	4.10(.681)	4.23(.596)
	t	−2.255*		−3.318**	
인생을 즐기는 것	M(SD)	4.49(.724)	4.61(.574)	4.36(.715)	4.54(.585)
	t	−2.858**		−4.241***	
책임감	M(SD)	4.50(.674)	4.54(.563)	3.89(.834)	4.16(.719)
	t	−1.111		−5.534***	
사랑	M(SD)	4.51(.730)	4.47(.673)	4.35(.826)	4.71(.596)
	t	0.823		−7.756***	
자기존중	M(SD)	4.37(.760)	4.62(.561)	4.25(.740)	4.45(.619)
	t	−5.886***		−4.714***	
신의	M(SD)	4.42(.721)	4.49(.621)	4.34(.903)	4.52(.840)
	t	−1.677		−3.305**	
사람간의 평등	M(SD)	4.38(.796)	4.48(.592)	4.17(.897)	4.66(.576)
	t	−2.261*		−9.902***	
자유시간	M(SD)	4.39(.688)	4.41(.554)	4.47(.654)	4.55(.570)
	t	−0.467		−2.039*	
인생의 의미	M(SD)	4.34(.809)	4.38(.691)	3.44(1.086)	3.71(.905)
	t	−0.718		−4.219***	
마음의 평정	M(SD)	4.34(.675)	4.38(.624)	4.30(.762)	4.59(.551)
	t	−1.139		−6.642***	
지혜	M(SD)	4.33(.700)	4.35(.584)	4.03(.763)	3.87(.723)
	t	−0.585		3.482**	
정직	M(SD)	4.28(.789)	4.30(.659)	4.44(.648)	4.62(.577)
	t	−0.420		−4.561***	

구분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용기	M(SD)	4.30(.700)	4.24(.657)	3.69(.757)	3.81(.662)
	t	1.332		−2.556*	
돈	M(SD)	4.18(.814)	4.29(.683)	3.43(.951)	3.50(.796)
	t	−2.211*		−1.287	
정의	M(SD)	4.22(.767)	4.22(.660)	4.49(.693)	4.66(.557)
	t	0.149		−4.330***	
환경보호	M(SD)	4.11(.813)	4.28(.689)	3.69(1.006)	3.98(.850)
	t	−3.458**		−4.881***	
창의성	M(SD)	4.27(.772)	4.04(.738)	3.69(.953)	3.65(.900)
	t	4.906***		0.669	
일	M(SD)	4.04(.760)	4.12(.608)	3.70(.904)	3.83(.768)
	t	−1.943		−2.404*	
관용	M(SD)	4.07(.741)	4.08(.658)	3.90(.938)	4.35(.696)
	t	−0.154		−8.574***	
물질적 풍요	M(SD)	3.96(.878)	4.06(.705)	3.33(.925)	3.27(.823)
	t	−2.040*		1.050	
야망	M(SD)	3.74(.899)	3.64(.808)	3.21(1.010)	3.27(.923)
	t	2.006*		−0.876	

* p<.05 ** p<.01 *** p<.001

한국청소년에게서만 성별차이를 보인 항목은 '돈', '창의성', '야망' 세가지 항목으로 '돈'은 여자청소년에게서, 그리고 '창의성'과 '야망'은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한국청소년과는 달리 핀란드청소년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성별차이를 크게 보였는데, '책임감', '사랑', '신의', '자유시간', '인생의 의미', '마음의 평정', '지혜', '정직', '용기', '정의', '일', '관용' 항목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고, '지혜'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청소년의 응답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한국과 핀란드 양국청소년 모두 성별차이를 보이지 않은 항목은 '자유', '흥미진진한 생활', '효율성', '성공', '독립심', '의무감' 등이었다(〈부록표-1〉).

경제수준에 따른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양국 조사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인 항목은 '높은 사회적 지위'로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

표 Ⅲ-4 가치관 비교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행복	M(SD)	4.65(.662)	4.74(.519)	4.77(.527)	4.75(.458)	4.73(.478)	4.65(.608)
	F(scheffe)	2.265(하>중>상)			3.124*(상>중>하)		
가족의 안전	M(SD)	4.72(.574)	4.72(.556)	4.68(.590)	4.66(.699)	4.69(.555)	4.51(.777)
	F(scheffe)	0.519(중>상>하)			8.361***(중>상>하)		
건강	M(SD)	4.60(.700)	4.71(.578)	4.67(.600)	4.70(.577)	4.73(.512)	4.51(.657)
	F(scheffe)	1.594(중>하>상)			16.470***(중>상>하)		
즐거움	M(SD)	4.54(.612)	4.69(.537)	4.61(.608)	4.23(.702)	4.19(.607)	4.16(.649)
	F(scheffe)	4.035*(중>하>상)			0.662(상>중>하)		
책임감	M(SD)	4.51(.608)	4.52(.612)	4.52(.643)	3.99(.854)	4.12(.734)	3.99(.803)
	F(scheffe)	0.008(하>중>상)			3.655*(중>상>하)		
사랑	M(SD)	4.56(.669)	4.46(.662)	4.51(.757)	4.60(.618)	4.61(.666)	4.50(.791)
	F(scheffe)	1.146(상>하>중)			3.370*(중>상>하)		
신의	M(SD)	4.35(.642)	4.47(.667)	4.46(.693)	4.49(.853)	4.51(.780)	4.37(.956)
	F(scheffe)	1.274(중>하>상)			3.026*(중>상>하)		
자유시간	M(SD)	4.44(.594)	4.39(.606)	4.40(.660)	4.55(.591)	4.56(.563)	4.45(.649)
	F(scheffe)	0.269(상>하>중)			4.366*(중>상>하)		
인생의 의미	M(SD)	4.16(.863)	4.39(.702)	4.38(.779)	3.59(1.018)	3.62(.950)	3.58(1.029)
	F(scheffe)	4.245*(중>하>상)			0.247(중>상>하)		
마음의 평정	M(SD)	4.23(.666)	4.33(.641)	4.42(.653)	4.54(.653)	4.46(.644)	4.47(.679)
	F(scheffe)	4.898**(하>중>상)			0.718(상>하>중)		
돈	M(SD)	4.26(.772)	4.24(.697)	4.22(.818)	3.47(.955)	3.58(.763)	3.36(.926)
	F(scheffe)	0.214(상>중>하)			7.676***(중>상>하)		
효율성	M(SD)	4.30(.622)	4.24(.630)	4.21(.690)	3.58(.835)	3.44(.809)	3.27(.846)
	F(scheffe)	0.837(상>중>하)			8.160***(상>중>하)		
환경보호	M(SD)	4.00(.828)	4.24(.703)	4.18(.800)	3.88(.953)	3.84(.895)	3.88(.956)
	F(scheffe)	4.172*(중>하>상)			0.209(상>하>중)		
성공	M(SD)	4.23(.806)	4.18(.781)	4.11(.909)	3.74(.911)	3.49(.867)	3.28(.918)
	F(scheffe)	1.203(상>중>하)			13.948***(상>중>하)		
의무감	M(SD)	4.04(.805)	4.11(.720)	4.11(.797)	3.76(.967)	3.92(.760)	3.77(.852)
	F(scheffe)	0.408(중>하>상)			4.637*(중>하>상)		
일	M(SD)	4.04(.835)	4.10(.634)	4.06(.721)	3.85(.853)	3.90(.726)	3.63(.899)
	F(scheffe)	0.557(중>하>상)			13.040***(중>상>하)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부자가 되는 것	M(SD)	4.04(.910)	3.89(.848)	3.82(.970)	3.07(1.074)	3.10(.870)	2.91(.988)
	F(scheffe)	2.557(상>중>하)			5.081**(중>상>하)		
사회적 명성	M(SD)	3.97(.808)	3.77(.770)	3.62(.879)	2.93(1.080)	2.76(.879)	2.69(.966)
	F(scheffe)	8.860***(상>중>하)			2.604(상>중>하)		
야망	M(SD)	3.82(.886)	3.67(.818)	3.69(.896)	3.44(1.086)	3.32(.897)	3.13(.981)
	F(scheffe)	1.261(상>하>중)			6.994**(상>중>하)		
높은 사회적 지위	M(SD)	3.84(.983)	3.54(.874)	3.46(.972)	2.91(1.085)	2.84(.884)	2.71(.896)
	F(scheffe)	6.882**(상>중>하)			3.216*(상>중>하)		
권위	M(SD)	3.55(.954)	3.37(.891)	3.37(.951)	3.12(1.046)	2.97(.840)	2.86(.839)
	F(scheffe)	1.721(상>하>중)			4.411*(상>중>하)		

* p<.05 ** p<.01 *** p<.001

한국청소년들의 응답 중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즐거움', '인생의 의미', '마음의 평정', '사회적 명성', '높은 사회적 지위'였다. 핀란드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항목 수가 더 많았는데, '행복', '가족의 안전', '건강', '책임감', '사랑', '신의', '자유시간', '돈', '효율성', '성공', '의무감', '일', '부자가 되는 것', '야망', '높은 사회적 지위', '야망'. '권위' 등의 항목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각 국가별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가치관 항목을 살펴보면 〈표 Ⅲ-5〉와 같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중요도를 보인 가치관 항목은 한국청소년의 경우는 '사회적 명성'과 '높은 사회적 지위'였고, 핀란드조사에서는 '행복', '효율성', '성공', '높은 사회적 지위', '권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청소년들은 '마음의 평정'을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핀란드조사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에 한국청소년들의 경우 '즐거움', '인생의 의미', '환경보호'의 항목이 중간계층에서 더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핀란드청소년들 중 중간계층은 '의무감', '가족의 안전', '건강', '책임감', '사랑', '신의', '자유시간', '돈', '일',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가정경제수준이 더 낮거나 높은 경우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었다(〈부록표-2〉).

가치관 항목 중 양국 모두에서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항목들은, '자유', '인생을 즐기는 것', '자기존중', '지혜', '정직', '용기', '흥미진진한 생활', '정의', '창의성', '독립심', '관용', '물질적 풍요'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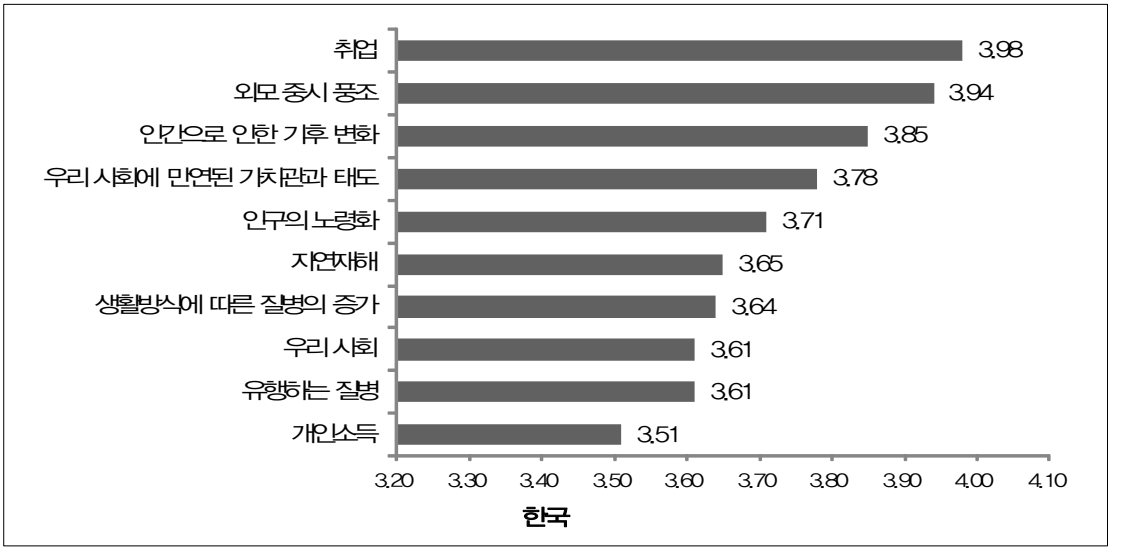
표 Ⅲ-5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른 가치관 차이

국가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 (평균값 크기 기준)			
	상 〉 중 〉 하	중 〉 하 〉 상	중 〉 상 〉 하	하 〉 중 〉 상
한국	사회적 명성 높은 사회적 지위	즐거움 인생의 의미 환경보호	–	마음의 평정
핀란드	행복, 효율성, 성공 높은 사회적 지위, 권위	의무감	가족의 안전, 건강 책임감, 사랑, 신의 자유시간, 돈, 일 부자가 되는 것	–

* 통계적(p<.05)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

2) 불확실성이나 불안전성을 느끼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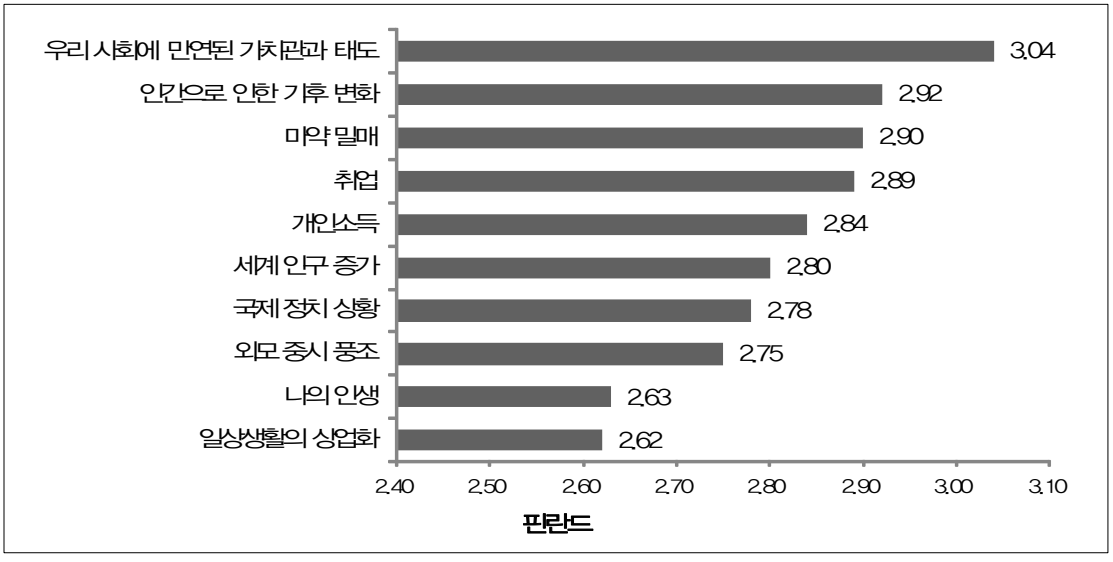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26가지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 불확실이나 불안정성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리한 결과는 〈표 Ⅲ-6〉과 같다. 각 항목의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청소년과 핀란드청소년이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지각하는 정도와 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확실성 · 불안정성 지각 정도의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한국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 한국청소년이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하게 느끼는 10개 항목(높은 평균값 기준)

먼저 한국청소년의 경우 가장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하게 느끼는 항목 10가지를 살펴보면, [그림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가 '취업'(M=3.9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외모 중시 풍조'(M=3.94),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M=3.85),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M=3.78), '인구의 노령화'(M=3.71), '자연재해'(M=3.65), '생활방식에 다른 질병의 증가'(M=3.64), '우리 사회'(M=3.61), '유행하는 질병'(M=3.61), '개인소득'(M=3.51)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핀란드청소년의 경우([그림Ⅲ-4]참조)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M=3.04)를 가장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M=2.92), '마약 밀매'(M=2.90), '취업'(M=2.89), '개인소득'(M=2.84), '세계 인구 증가'(M=2.80), '국제 정치 상황'(M=2.78), '외모 중시 풍조'(M=2.75), '나의 인생'(M=2.63), '우리나라에 이민 온 사람의 수'(M=2.62) 순으로 나타나, 한국청소년의 결과와는 그 내용과 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림 Ⅲ-4】 핀란드청소년이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하게 느끼는 10개 항목(높은 평균값 기준)

양국청소년 모두 우리사회의 가치관이나 취업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청소년들에게서는 2번째로 높은 평균값을 보인 '외모 중시 풍조'는 핀란드에서는 8번째로 나타났고, 인구의 노령화나 자연재해, 생활방식에 따른 질병의 증가 등에 대해 핀란드청소년은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불확실성 ·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 순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불확실성 · 불안 정성 정도 순위	M(SD)	불확실성 · 불안 정성 정도 순위	M(SD)
취업	1	3.98(1.118)	4	2.89(1.157)
외모 중시 풍조	2	3.94(1.024)	8	2.75(1.133)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	3	3.85(1.061)	2	2.92(1.131)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4	3.78(.972)	1	3.04(1.046)
인구의 노령화	5	3.71(1.010)	13	2.50(.978)
자연재해	6	3.65(1.101)	17	2.46(1.013)
생활방식에 따른 질병의 증가	7	3.64(1.070)	18	2.43(.962)
우리 사회	8	3.61(1.079)	19	2.42(.941)
유행하는 질병	9	3.61(1.069)	21	2.13(.857)
개인소득	10	3.51(1.072)	5	2.84(1.066)
포르노물	11	3.50(1.152)	26	1.81(.974)
나의 인생	12	3.47(1.085)	9	2.63(.962)
국제 정치 상황	13	3.43(1.108)	7	2.78(.976)
TV와 폭력물	14	3.36(1.110)	24	1.97(1.002)
일상생활의 상업화	15	3.31(1.040)	10	2.62(1.102)
국제화	16	3.29(1.057)	20	2.23(1.043)
국제 테러	17	3.23(1.110)	16	2.47(1.054)
인간관계	18	3.20(1.119)	12	2.51(1.070)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	19	3.13(1.106)	15	2.48(.903)
유전공학 기술	20	3.03(1.056)	22	2.11(1.026)
주거환경의 안전	21	3.01(1.171)	25	1.90(.817)
마약 밀매	22	2.99(1.349)	3	2.90(1.163)
원자력발전소 건설	23	2.95(1.139)	14	2.49(1.290)
세계 인구 증가	24	2.93(1.100)	6	2.80(1.128)
내가 사는 지역	25	2.85(1.124)	23	2.00(.854)
우리나라에 이민 온 사람의 수	26	2.73(1.153)	10	2.62(1.269)

핀란드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보인 항목은 '마약 밀매', '세계인구 증가', '국제 정치 상황', '이민 온 사람의 수' 등으로, 이에 대해 한국청소년의 평균점은 더 높지만 순위는 훨씬 낮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보인 항목은

앞서 언급한 '이민 온 사람의 수'와 '자신이 사는 지역', '세계인구 증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마약 밀매' 등으로 나타났고, 핀란드청소년이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가장 낮게 지각하는 항목은 '포르노물'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환경의 안전', 'TV와 폭력물', '자신이 사는 지역', '유전공학 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 항목에 대한 성별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청소년들이 모두 유의미하게 성별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표 Ⅲ-7〉과 같다.

표 Ⅲ-7 불확실성 ·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외모 중시 풍조	M(SD)	3.79(1.065)	4.10(.953)	2.40(1.126)	3.00(1.071)
	t	−4.878***		−8.590***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	M(SD)	3.72(1.109)	3.98(.989)	2.53(1.122)	3.19(1.055)
	t	−3.881***		−9.603***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M(SD)	3.71(1.010)	3.85(0.924)	2.86(1.082)	3.17(1.002)
	t	−2.385*		−4.623***	
인구의 노령화	M(SD)	3.63(1.012)	3.80(1.002)	2.42(1.019)	2.56(.945)
	t	−2.609**		−2.278*	
자연재해	M(SD)	3.50(1.121)	3.80(1.058)	2.10(.953)	2.71(.979)
	t	−4.363***		−10.015***	
생활방식에 따른 질병의 증가	M(SD)	3.51(1.084)	3.79(1.038)	2.27(1.000)	2.54(.920)
	t	−4.058***		−4.584***	
유행하는 질병	M(SD)	3.47(1.099)	3.76(1.015)	1.89(.781)	2.30(.866)
	t	−4.389***		−8.153***	
포르노물	M(SD)	3.33(1.179)	3.70(1.090)	1.45(.734)	2.07(1.041)
	t	−5.109***		−11.204***	
TV와 폭력물	M(SD)	3.17(1.139)	3.57(1.040)	1.61(.854)	2.22(1.022)
	t	−5.742***		−10.408***	
국제 테러	M(SD)	3.14(1.152)	3.33(1.055)	2.11(.980)	2.73(1.027)
	t	−2.632**		−9.966***	
마약 밀매	M(SD)	2.89(1.357)	3.11(1.331)	2.60(1.120)	3.10(1.150)
	t	−2.580*		−6.963***	
원자력발전소 건설	M(SD)	2.88(1.173)	3.04(1.095)	1.96(1.174)	2.88(1.234)
	t	−2.171*		−11.927***	

* p<.05 ** p<.01 *** p<.001

구체적으로 보면, '외모 중시 풍조',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인구의 노령화', '자연재해', '생활방식에 따른 질병의 증가', '유행하는 질병', '포르노물', 'TV와 폭력물', ' 국제 테러', '마약 미래',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의 항목에서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 항목은 '우리사회'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았다(〈부록표-3〉). 핀란드청소년의 경우 앞서 가치관중요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항목에서 남녀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 '취업', '개인소득', '국제정치상황', '국제화',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 '유전공학 기술', '주거환경의 안전', '우리나라에 이민 온 사람의 수'에 대한 염려가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항목에 대해 특히 여자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3〉). 양국의 청소년들의 응답 중 '나의 인생', '일상생활의 상업화', '인간관계', '세계 인구 증가', '내가 사는 지역' 에 대한 불확실성 · 불안정성 정도에는 남녀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청소년들이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지각하는 정도에 대해 경제수준별 차이를 살펴보았다(〈부록표-4〉참조). 그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표 Ⅲ-8〉과 같다.

표 Ⅲ-8 불확실성 ·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국가	경제수준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 (평균값 크기 기준)*	
	하 〉 중 〉 상	하 〉 상 〉 중
한국	취업, 생활방식에 따른 질병의 증가 우리 사회, 개인소득, 나의 인생, 일상생활의 상업화 국제화, 인간관계,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 주거환경의 안전, 내가 사는 지역	외모 중시 풍조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자연재해
핀란드	취업, 외모 중시 풍조,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우리 사회, 개인소득, 나의 인생 일상생활의 상업화, 인간관계 주거환경의 안전, 원자력발전소 건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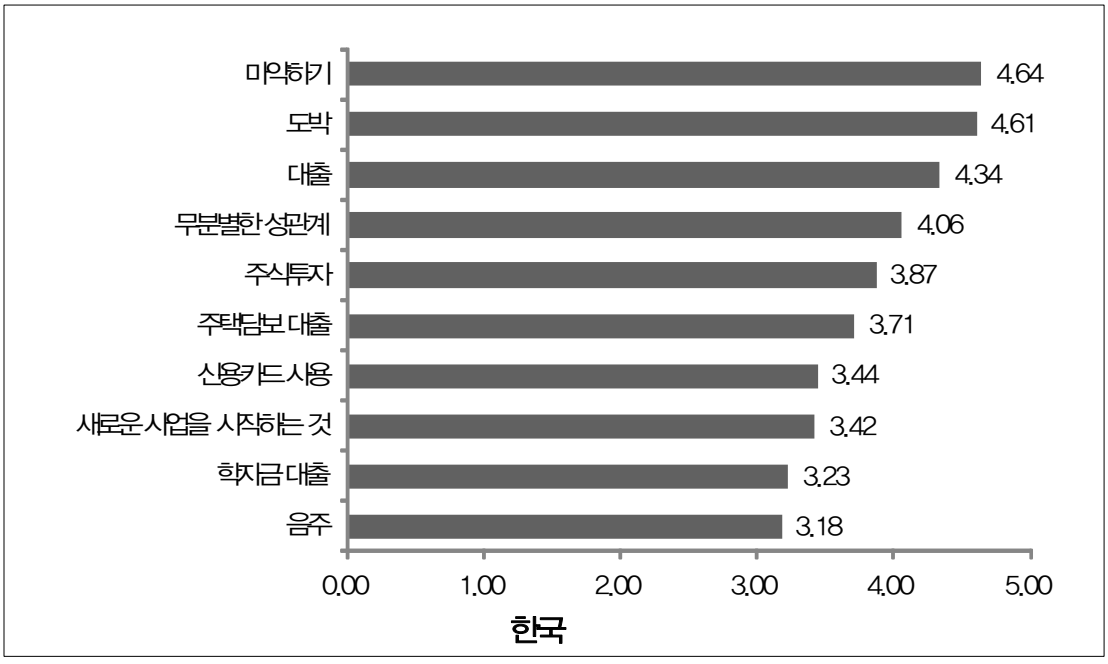
* p〈.05이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

먼저 한국조사에서는 '취업', '생활방식에 따른 질병의 증가', '우리 사회', '개인소득', '나의 인생', '일상생활의 상업화', '국제화', '인간관계',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 ' 주거환경의 안전', '내가 사는 지역' 항목에서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 중시 풍조',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조사에서는 '취업', '외모 중시 풍조',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우리 사회', '개인소득', '나의 인생', '일상생활의 상업화', '인간관계', '주거환경의 안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서 경제수준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에 대한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위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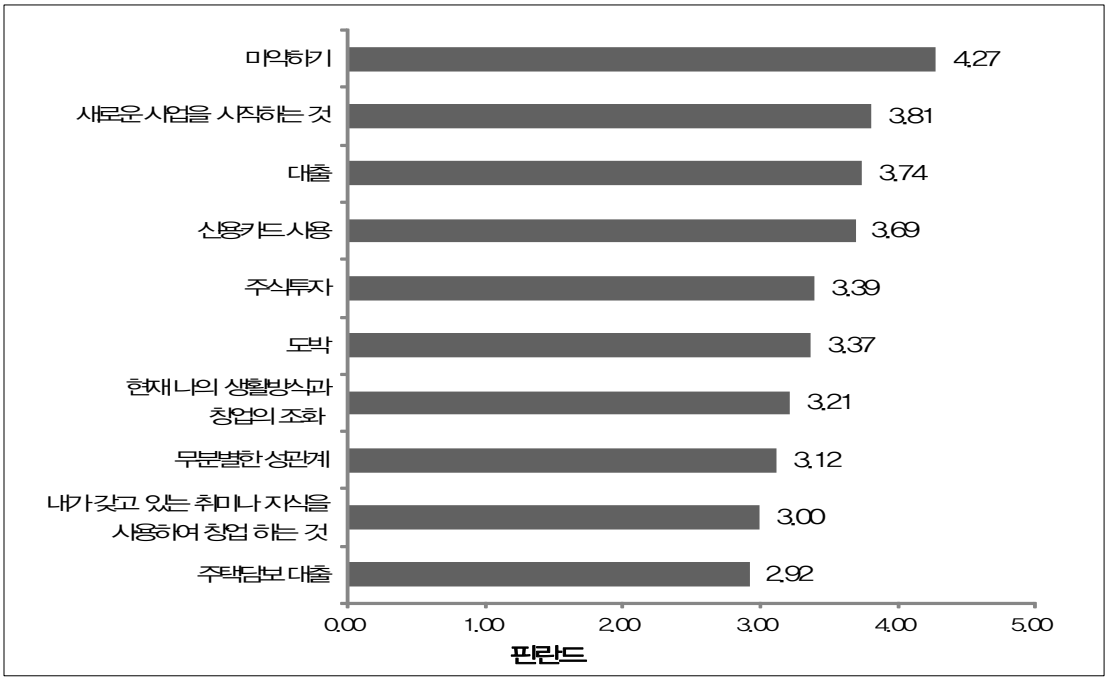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무엇이며 그 정도가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Ⅲ-5】 한국청소년의 위험에 대한 인식정도(높은 평균값 기준 10개 항목)

한국과 핀란드 양국청소년 모두 '마약하기'를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M=4.64, M=4.27). 한국청소년의 경우 '도박'(M=4.61), '대출'(M=4.34), '무분별한 성관계'(M=4.06), '주식투자'(M=3.87), '주택담보 대출'(M=3.71), '신용카드 사용'(M=3.44),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M=3.42), '학자금대출'(M=3.23), '음주'(M=3.18)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그림Ⅲ-5]).

한편 [그림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핀란드청소년의 경우 '마약'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위험하다고 인식한 항목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M=3.81)이었으며, 한국청소년과 동일하게 '대출'(M=3.74)과 '주식투자'(M=3.39)에 대한 위험도 인식도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신용카드 사용'(M=3.69), '도박'(M=3.37), '현재 나의 생활방식과 창업의 조화'(M=3.21), '무분별한 성관계'(M=3.12), '내가 갖고 있는 취미나 지식을 사용하여 창업 하는 것'(M=3.0), '주택담보 대출'(M=2,92) 등에 대해서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6】 핀란드청소년의 위험에 대한 인식정도(높은 평균값 기준 10개 항목)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의 각 항목에 대한 위험도 순위는(평균값 기준) '현재 나의 생활방식과 창업의 조화', '내가 갖고 있는 취미나 지식을 사용하여 창업하는 것'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Ⅲ-9〉). '현재 나의 생활방식과 창업의 조화'와 '내가 갖고 있는 취미나 지식을 사용하여 창업하는 것' 항목은 한국청소년조사에서 각각 11번째, 15번째의 평균값을 보인데 비해, 핀란드청소년조사에서는 더 높은 위험도 순위를 보였다(각각 7번째와 9번째).

표 Ⅲ-9 위험도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위험도 순위	M(SD)	위험도 순위	M(SD)
마약하기	1	4.64(.751)	1	4.27(.998)
도박	2	4.61(.788)	6	3.37(1.171)
대출	3	4.34(.854)	3	3.74(.995)
무분별한 성관계	4	4.06(.959)	8	3.12(1.088)
주식투자	5	3.87(.938)	5	3.39(.865)
주택담보 대출	6	3.71(.986)	10	2.92(.888)
신용카드 사용	7	3.44(1.005)	4	3.69(1.003)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8	3.42(.885)	2	3.81(.836)
학자금 대출	9	3.23(1.023)	14	2.34(.987)
음주	10	3.18(.933)	12	2.81(1.045)
현재 나의 생활방식과 창업의 조화	11	3.14(.903)	7	3.21(.912)
야간 외출	12	3.06(.056)	17	2.00(.800)
의약품 복용	13	3.04(.884)	15	2.33(.849)
자동차 운전	14	2.99(.965)	16	2.26(.751)
내가 갖고 있는 취미나 지식을 사용하여 창업 하는 것	15	2.92(1.005)	9	3.00(.943)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	16	2.92(.957)	19	1.86(.736)
혁신적인 사업 구상	17	2.84(.987)	11	2.91(.934)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는 것	18	2.36(.987)	13	2.44(.894)
비행기 타기	19	2.15(1.023)	18	1.99(.783)
은행 저축	20	1.98(.937)	20	1.70(.700)

흥미로운 결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현재 나의 생활방식과 창업의 조화', '내가 갖고 있는 취미나 지식을 사용하여 창업하는 것', '혁신적인 사업 구상' 과 같은 창업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한국청소년보다 핀란드청소년들이 더 위험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험도에 대한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항목을 보면,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 모두 몇 가지 항목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은행저축', '비행기타기',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 등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성별차이를 보인 항목들을 보면(〈표 Ⅲ-10〉), '마약하기', '무분별한 성관계', '주식투자', '주택담보 대출', '신용카드 사용', '야간 외출', '자동차 운전',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로서 모든 항목을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현재 나의 생활방식과 창업의 조화', '은행저축'에 대해서는 두 나라 청소년 모두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10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위험도(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마약하기	M(SD)	4.51(.890)	4.77(.533)	4.05(1.113)	4.43(.877)
	t	−5.579***		−5.924***	
무분별한 성관계	M(SD)	3.70(1.036)	4.46(.674)	2.72(1.034)	3.40(1.036)
	t	−13.870***		−10.405***	
주식투자	M(SD)	3.77(.996)	3.97(.858)	3.30(.874)	3.46(.853)
	t	−3.411**		−2.957**	
주택담보 대출	M(SD)	3.65(1.032)	3.78(.931)	2.85(.915)	2.97(.867)
	t	−2.106*		−2.041*	
신용카드 사용	M(SD)	3.38(1.048)	3.51(.952)	3.57(1.041)	3.78(.967)
	t	−2.028*		−3.134**	
야간 외출	M(SD)	2.66(1.030)	3.48(.909)	1.76(.744)	2.16(.799)
	t	−13.420***		−8.107***	
자동차 운전	M(SD)	2.88(.988)	3.11(.927)	2.11(.770)	2.37(.718)
	t	−3.795***		−5.625***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	M(SD)	2.64(.931)	3.23(.890)	1.66(.693)	2.00(.732)
	t	−10.248***		−7.766***	

* p<.05 ** p<.01 *** p<.001 / ※ 한국과 핀란드조사에서 모두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만 정리

한국의 청소년에게서만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별차이를 보인 항목은, '도박', '대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었는데, 특히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는 것' 항목의 경우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위험도를 보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부록표-5〉). 핀란드청소년조사에서는 역시 앞의 다른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청소년보다 성별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많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음주', '의약품 복용', '내가 갖고 있는 취미나 지식을 사용하여 창업 하는 것', '혁신적인 사업 구상', '비행기 타기' 등에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은 위험도를 느끼고 있었다(〈부록표-5〉).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이 경제적 수준별로 위험성을 느끼는 정도를 살펴보면 〈표 Ⅲ-11〉와 같다. 한국의 경우 '은행저축'은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에게서 오히려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핀란드에서는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약하기'는 양국의 조사에서 모두 경제적으로 중간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청소년들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음주'에 대한 위험도를 높게 보고 있었다. 핀란드청소년들은 여러 항목에서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였는데, '주택담보 대출', '신용카드 사용',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학자금 대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 '비행기 타기', '은행저축'에 대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위험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른 위험성 정도 차이

국가	경제수준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 (평균값 크기 기준)*			
	상 〉 하 〉 중	중 〉 하 〉 상	하 〉 중 〉 상	하 〉 상 〉 중
한국	은행저축	마약하기	음주	신용카드 사용 학자금 대출
핀란드	-	마약하기	주택담보 대출 신용카드 사용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학자금 대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 비행기 타기 은행저축	-

* p〈.05이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

3.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의 창업경험과 기업가정신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먼저 창업경험이 있는지 유무와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또 개인의 성격과 창업, 그리고 창업을 하게 하는 동기와 창업의 어려움, 창업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 사업체 소유 및 성과

먼저 사업체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9명, 핀란드는 28명으로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는데, 핀란드가 더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조사대상자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체의 본인 설립여부를 보면 한국청소년은 79.2%인 15명이 본인이 설립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핀란드청소년은 82.1%가 본인이 사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독립적 사업체 소유 및 본인 설립 여부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단위:%(빈도)

구분		독립적 사업체 소유 여부	사업체의 본인 설립 여부	
한국(N=1016)	예	1.9(19)	예	79.2(15)
			아니오	20.8(4)
	아니오	98.1(997)		
핀란드(N=1058)	예	2.6(28)	예	82.1(23)
			아니오	17.9(5)
	아니오	97.4(1030)		

※ 앞서 응답자 특성에서는 핀란드청소년들의 창업자빈도는 1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창업자이면서, 학생이거나 주부 등 복수직업을 가진 경우, 창업자가 아닌 다른 항목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를 보면(〈표 Ⅲ-12〉), 1~5명이 한국과 핀란드에서 각각 57.2%, 42.9%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한국조사에서는 26.5%, 핀란드는 53.6%로 나타나, 양국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대부분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13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단위:%(빈도)

구분	전체	0명	1~5명	6~9명	10~19명
한국	100(19)	26.5(5)	57.2(11)	0.0(0)	16.3(3)
핀란드	100(26)	53.6(15)	42.9(12)	3.6(1)	0.0(0)

사업체 종류를 보면(〈표 Ⅲ-13〉참고), 한국청소년조사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았고(6명), 그 다음으로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명) '제조업 및 전기·가스 · 건설업'(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청소년조사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명)과 교육 및 보건 · 사회복지 서비스업'(7명)이 가장 많았고, '농업, 어업, 임업'(4명), '건설업'(3명), '숙박 및 음식점업'(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사업체의 업종(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단위:빈도

업종 구분	한국	핀란드
농업, 어업, 임업	0	4
제조업, 전기 · 가스 · 증기, 건설업	3	3
도매 및 소매업	6	0
운수업	0	1
숙박 및 음식점업	0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0
금융 및 보험업	1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0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0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0
총계	19	28

또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보면, 한국의 경우 1000~5000만원 미만이 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억원 이상이 26.4%, 1000만원 미만이 2.8%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핀란드의 경우 응답자의 75%가 $100000 미만으로 나타났고, $ 100000~249000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7.9%로 한국보다는 매출액이 컸다.

표 Ⅲ-15 지난해 연간 매출액(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단위: 원/$**

구분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5000만원 미만	5000~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한국	100(19)	20.8(4)	36.1(7)	16.7(3)	26.4(5)
구분	전체	$100000 이하	$100000~249000	$250000~499000	$1~1.9 million
핀란드	100(28)	75.0(21)	17.9(5)	3.6(1)	3.6(1)

또한 사업체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표 Ⅲ-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들은 약 80%가 긍정적인 응답('긍정적인 편이다'와 '매우 긍정적이다')을 보인데 비해, 핀란드청소년들은 53.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16 독립적 사업자로서의 역할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단위:%(빈도)**

국가	전체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편이다	그저 그렇다	긍정적인 편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한국	100(19)	0.0(0)	5.2(1)	15.5(3)	63.7(12)	15.6(3)
핀란드	100(28)	3.6(1)	14.3(4)	28.6(8)	39.3(11)	14.3(4)

지난 5년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Ⅲ-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들 중 만족한다는 응답은 5%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만족하지 못한다'('전혀 만족하지 못한다'와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와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35%와 37.4%로 나타나,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5년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핀란드청소년들에게서 훨씬 높았는데,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8%로 나타나 한국조사결과의 10배 이상의 비율을 보였고, '그저 그렇다'는 19.2%, 부정적인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표 Ⅲ-17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단위:%(빈도)**

국가	전체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한국	100(19)	5.2(1)	29.8(6)	37.4(7)	27.6(5)	0.0(0)
핀란드	100(26)	15.4(4)	7.7(2)	19.2(5)	38.5(10)	19.2(5)

지난 5년간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Ⅲ-18〉과 같다. 한국청소년들의 경우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나 자신'이라는 응답의 평균값(M=3.94)이 가장 높았는데, 핀란드청소년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M=4.04).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한국청소년조사에서는 '주변 환경'(M=3.79)이었으나, 핀란드의 경우는 '경제적 상황'(M=3.44)으로 나타났다. 양국 청소년 모두 '우연적 요소'에 대해서는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인식한 정도가 가장 낮았다.

표 Ⅲ-18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요인	나 자신		경제적 상황		우연적 요소		주변환경	
	한국	핀란드	한국	핀란드	한국	핀란드	한국	핀란드
M	3.94	4.04	3.64	3.44	3.58	3.12	3.79	3.37
SD	.847	1.160	1.055	.974	.911	.833	.945	.884

〈표 Ⅲ-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5년 내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청소년의 47.9%가 긍정적('긍정적인 편이다'와 '매우 긍정적이다')으로 응답했고, 핀란드청소년의 68%가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답변해, 핀란드청소년들이 향후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19 향후 5년내 사업의 성공가능성(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단위:%(빈도)

구분	전체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편이다	그저 그렇다	긍정적인 편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한국	100(19)	0.0(0)	10.3(2)	41.8(8)	37.0(7)	10.9(2)
핀란드	100(25)	0.0(0)	12.0(3)	20.0(5)	44.0(11)	24.0(6)

2) 창업에 대한 인식

창업과 관련한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향후 창업가능성, 창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개인의 성격과 창업과의 관련성, 창업을 하는 동기와 창업에서의 어려움, 창업의 위험요소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향후 창업 및 사업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1)부터 '매우 가능성이 높다'(5)까지로 응답하게 하였고, 창업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각 사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부터 '매우 동의한다'(5)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1) 향후 5년 내 새로운 사업 시작 및 확장 가능성

한국과 핀란드의 청소년들에게 향후 5년 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지(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면 확장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Ⅲ-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그저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인 반면, 핀란드의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핀란드청소년이 한국청소년보다 창업이나 사업확장 가능성을 더 낮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한국청소년들의 경우 여자청소년(M=2.82)보다 남자청소년(M=3.02)들이,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M=3.27)이 낮은 청소년보다(중간층평균값=2.95, 낮은계층 평균값=2.81) 창업 또는 사업 확장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핀란드의 경우 이러한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20 향후 5년내 창업·사업확장 가능성(한국과 핀란드청소년 전체값,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전체	성별		경제수준			전체	성별		경제수준		
		남	여	상	중	하		남	여	상	중	하
M (SD)	2.92 (1.167)	3.02 (1.164)	2.82 (1.162)	3.27 (1.165)	2.95 (1.144)	2.81 (1.177)	1.83 (1.117)	1.87 (1.095)	1.80 (1.132)	1.86 (1.192)	1.80 (1.080)	1.86 (1.140)
t/F (scheffe)		2.627**		6.519** (상>중>하)				0.964		0.361 (상>하>중)		

* p<.05 ** p<.01 *** p<.001

(2) 창업에 대한 태도

한국청소년과 핀란드청소년의 창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Ⅲ-21〉과 같다. 먼저 한국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항목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매체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다'(M=3.70)였으며, 이에 대해 여자청소년(M=3.81)들이 남자청소년(M=3.61)보다 더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표 Ⅲ-21 창업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전체값 및 성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	M (SD)	2.94 (1.071)	3.04 (1.078)	2.83 (1.052)	2.48 (1.298)	2.61 (1.270)	2.39 (1.311)
	t		3.318**			2.587*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나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	M (SD)	3.20 (1.180)	3.10 (1.201)	3.30 (1.148)	3.43 (1.231)	3.29 (1.221)	3.52 (1.229)
	t		-2.736**			-3.013**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리길 바란다	M (SD)	3.36 (1.132)	3.23 (1.178)	3.50 (1.062)	2.84 (1.151)	2.79 (1.213)	2.87 (1.105)
	t		-3.786***			-1.006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업을 괜찮은 직업선택이라고 생각한다	M (SD)	2.90 (1.020)	2.95 (1.075)	2.85 (.952)	2.41 (.966)	2.29 (.968)	2.50 (.956)
	t		1.522			-3.355**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는다	M (SD)	3.26 (1.065)	3.34 (1.105)	3.18 (1.013)	3.04 (1.091)	3.09 (1.089)	3.00 (1.091)
	t		2.384*			1.304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매체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M (SD)	3.70 (.982)	3.61 (1.009)	3.81 (.941)	3.02 (1.036)	2.89 (1.083)	3.11 (.990)
	t		-3.269**			-3.243**	
우리사회에서는 창업을 권장한다	M (SD)	2.90 (1.024)	2.86 (1.078)	2.95 (.958)	2.64 (1.021)	2.52 (1.065)	2.72 (.980)
	t		-1.320			-2.954**	
창업은 실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M (SD)	2.21 (1.037)	2.32 (1.128)	2.09 (.912)	2.24 (1.089)	2.32 (1.170)	2.18 (1.022)
	t		3.618***			1.999*	

* p<.05 ** p<.01 *** p<.001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리길 바란다'는 응답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는데, 성별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여, 여자청소년(M=3.50)이 남자청소년(M=3.23)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는다'(M=3.36)는 항목은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남자평균값=3.34, 여자평균값=3.18). 그러나 그 다음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M=3.20)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이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들 항목들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들의 응답이 모두 유의미한 성별차이를 보였다.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다'(M=2.94)와 '창업은 실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M=2.21)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의 성별차이가 있었으며, 남자청소년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업을 괜찮은 직업선택이라고 생각한다'(M=2.90) 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자청소년의 응답이 더 높게 나와, 창업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인 응답이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핀란드청소년조사에서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나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M=3.43)는 내용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여, 한국청소년보다 더 높은 평균값(M=3.20)을 보였다. 또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실패의 두려움으로 창업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는다'(M=3.09)였는데,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매체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다'(M=2.89)라는 항목에서 여자청소년들이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우리사회에서는 창업을 권장한다'(M=2.64)에 대해 핀란드청소년에서만 성별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들의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M=2.48) 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들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남자청소년들의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업을 괜찮은 직업선택이라고 생각한다'(M=2.41)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들이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창업은 실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M=2.24)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남자청소년의 동의 수준이 여자청소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양국의 청소년 모두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청소년 보다 핀란드청소년들이 창업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 모두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는 창업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창업에 대한 인식은 〈표 Ⅲ-22〉와 같이 극히 일부항목에 한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Ⅲ-22 창업에 대한 생각(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	M (SD)	3.28 (.936)	2.93 (1.044)	2.86 (1.117)	2.61 (1.399)	2.56 (1.302)	2.37 (1.265)
	F(scheffe)	6.503**(상>중>하)			2.934(상>중>하)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나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	M (SD)	3.03 (1.157)	3.15 (1.173)	3.29 (1.188)	3.12 (1.192)	3.43 (1.250)	3.48 (1.212)
	F(scheffe)	2.632(하>중>상)			3.413*(하>중>상)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리길 바란다	M (SD)	2.83 (1.169)	3.30 (1.077)	3.55 (1.139)	2.81 (1.163)	2.81 (1.129)	2.87 (1.173)
	F(scheffe)	17.989***(하>중>상)			0.370(하>중>상)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업을 괜찮은 직업선택이라고 생각한다	M (SD)	2.86 (1.097)	2.93 (.988)	2.88 (1.039)	2.42 (1.004)	2.43 (.979)	2.40 (.946)
	F(scheffe)	0.327(중>하>상)			0.152(중>상>하)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는다	M (SD)	3.17 (1.099)	3.28 (1.062)	3.26 (1.061)	2.99 (1.162)	2.97 (1.074)	3.12 (1.089)
	F(scheffe)	0.422(중>하>상)			2.273(하>상>중)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매체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M (SD)	3.76 (.877)	3.71 (1.014)	3.68 (.969)	3.04 (1.077)	3.01 (1.012)	3.02 (1.055)
	F(scheffe)	0.278(상>중>하)			0.033(상>하>중)		
우리사회에서는 창업을 권장한다	M (SD)	2.88 (1.014)	2.94 (.997)	2.87 (1.057)	2.75 (1.069)	2.65 (.978)	2.60 (1.055)
	F(scheffe)	0.599(중>상>하)			0.917(상>중>하)		
창업은 실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M (SD)	2.33 (1.157)	2.18 (1.003)	2.21 (1.046)	2.19 (1.146)	2.24 (1.079)	2.25 (1.088)
	F(scheffe)	0.778(상>하>중)			0.108(중>하>상)		

* p<.05 ** p<.01 *** p<.001

먼저 한국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인 항목을 보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또한, 한국청소년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리길 바란다'는

항목에 대해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조사에서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나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에 대한 응답에서만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실패의 두려움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개인적 성향

개인적 성향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Leffel, 2008, 배종태, 2009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본 조사에서는 위험, 낯선 사람과의 대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 삶의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 지를 조사하였다. 먼저,'때때로 위험을 즐긴다' 항목에 대해 핀란드청소년(M=3.51)이 한국청소년(M=3.09) 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한국과 핀란드 모두 이에 대한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낯선 사람과 쉽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들의 동의 정도가 훨씬 높았다.

표 Ⅲ-23 개인의 성격과 창업(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전체값 및 성별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나는 때때로 위험을 즐긴다	M (SD)	3.09 (1.051)	3.15 (1.063)	3.04 (1.036)	3.51 (1.049)	3.55 (1.075)	3.48 (1.030)
	t		1.673			1.102	
나는 낯선 사람과 쉽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M (SD)	3.15 (1.089)	3.16 (1.081)	3.14 (1.098)	2.90 (1.190)	2.72 (1.200)	3.02 (1.169)
	t		0.209			-4.043***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쓴다	M (SD)	2.56 (1.139)	2.67 (1.172)	2.45 (1.091)	3.23 (1.138)	3.45 (1.125)	3.08 (1.125)
	t		3.056**			5.123***	
나는 모든 것이 평소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M (SD)	3.43 (.963)	3.39 (.974)	3.47 (.949)	3.36 (.960)	3.40 (.945)	3.33 (.971)
	t		-1.348			1.110	

* p<.05 ** p<.01 *** p<.001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쓴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핀란드청소년들의 동의 수준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 한국청소년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성향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양국청소년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성별차이를 보였는데, 한국과 핀란드의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보다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모든 것이 평소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항목은 새로운 시도나 도전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이 유사한 평균값을 나타냈고, 유의미한 성별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적 성향에 대한 경제수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청소년의 조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Ⅳ-24〉). 한국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낯선 사람과 쉽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타인에 대해 의식하는 정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것이 평소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표 Ⅲ-24 개인의 성격이 창업에 끼치는 영향(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나는 때때로 위험을 즐긴다	M (SD)	3.21 (1.034)	3.11 (1.029)	3.05 (1.080)	3.66 (1.177)	3.50 (1.013)	3.49 (1.055)
	F(scheffe)	0.987 (상>중>하)			1.205 (상>중>하)		
나는 낯선 사람과 쉽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M (SD)	3.50 (1.066)	3.14 (1.041)	3.07 (1.134)	2.85 (1.300)	2.88 (1.165)	2.94 (1.193)
	F(scheffe)	6.670** (상>중>하)			0.382 (하>중>상)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쓴다	M (SD)	2.94 (1.179)	2.52 (1.139)	2.52 (1.112)	3.16 (1.155)	3.19 (1.089)	3.29 (1.185)
	F(scheffe)	6.515** (상>중>하)			1.042 (하>중>상)		
나는 모든 것이 평소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M (SD)	3.34 (.920)	3.53 (.923)	3.34 (1.008)	3.18 (1.038)	3.38 (.920)	3.37 (.982)
	F(scheffe)	4.951** (중>상=하)			2.030 (중>하>상)		

* p<.05 ** p<.01 *** p<.001

(4) 창업 동기에 대한 인식

창업을 하게 하는 동기로서 〈표 Ⅲ-25〉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창업동기로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한국조사에서는 '창업을 하면 나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M=3.64)였고, 핀란드조사에서는 '내 사업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M=3.96)로 나타났다.

항목별 양국 청소년의 응답을 살펴보면, '창업을 하게 되면 잠재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와 '창업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핀란드청소년이 한국청소년보다 훨씬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반면에 '불안정한 소득과 자본손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할 만하다'거나 '가족이 창업을 하기 원한다'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들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표 Ⅲ-25 창업을 하게 하는 동기(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전체값 및 성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전체	성별		전체	성별	
			남	여		남	여
창업을 하면 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M (SD)	3.54 (.961)	3.55 (.997)	3.53 (.921)	3.84 (.872)	3.76 (.910)	3.91 (.840)
	t		0.291			−2.571*	
창업을 하면 나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M (SD)	3.64 (.964)	3.67 (.990)	3.60 (.935)	3.89 (.832)	3.78 (.869)	3.97 (.797)
	t		1.088			−3.390**	
내 사업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M (SD)	3.29 (1.083)	3.25 (1.131)	3.35 (1.027)	3.96 (.959)	3.89 (1.042)	4.01 (.889)
	t		−1.427			−1.945	
불안정한 소득과 자본 손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할만하다	M (SD)	2.85 (1.051)	2.98 (1.111)	2.70 (.961)	2.64 (.970)	2.75 (1.042)	2.55 (.901)
	t		4.218***			2.967**	
우리 가족은 내가 창업을 하기 원한다	M (SD)	2.19 (1.060)	2.31 (1.085)	2.05 (1.016)	1.66 (.962)	1.76 (.990)	1.59 (.938)
	t		3.878***			2.674**	

* p<.05 ** p<.01 *** p<.001

성별차이도 국가 및 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창업을 하면 잠재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핀란드청소년에게서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의 동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소득과 자본손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할 만하다거나 응답자의 가족이 창업을 하기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핀란드에서 모두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양국 모두 남자청소년의 긍정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의 창업시도가 여자청소년의 경우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로 보인다.

창업동기에 대해 경제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내가 창업을 하기 원한다'에 대해서 한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부록표-7〉).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가족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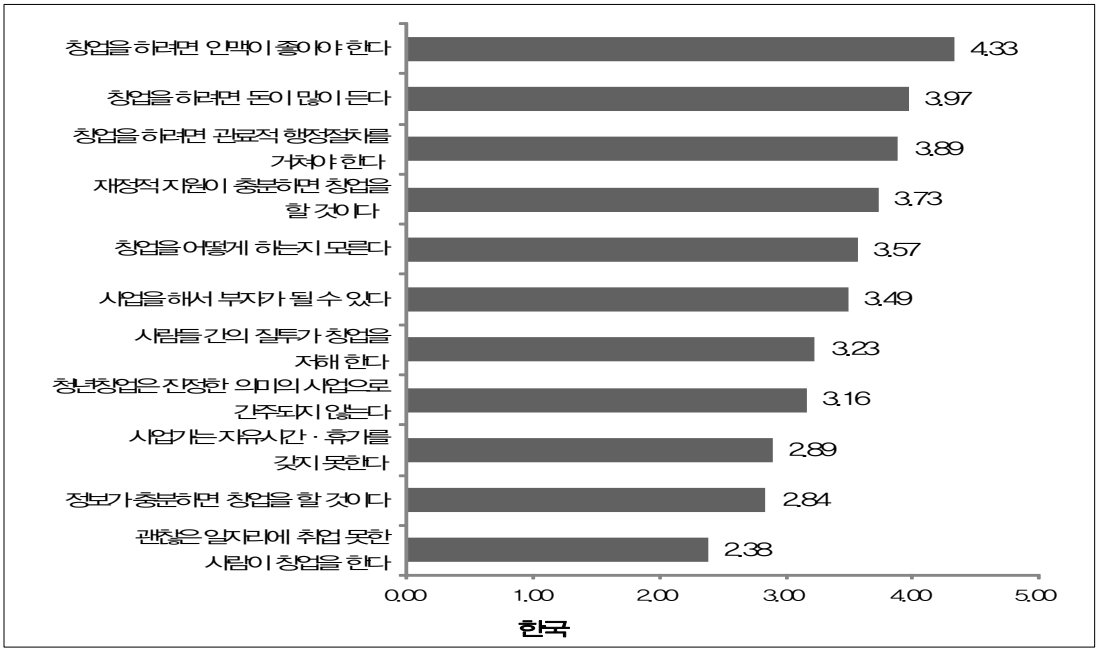
(5) 창업의 조건 및 창업에 예상되는 어려움

창업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건과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해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항목별로 양국청소년의 평균값에 차이를 보였다(〈표 Ⅲ-26〉참조).

표 Ⅲ-26 창업의 조건 및 창업에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동의 정도(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순위	M(SD)	순위	M(SD)
창업을 하려면 인맥이 좋아야 한다	1	4.33(.799)	2	3.86(.925)
창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2	3.97(.932)	4	3.47(1.107)
창업을 하려면 관료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3	3.89(.887)	3	3.48(.993)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4	3.73(1.146)	9	2.98(1.278)
나는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5	3.57(1.079)	10	2.64(1.237)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6	3.49(.955)	1	3.89(.913)
사람들 간의 시기나 질투가 창업을 저해 한다	7	3.23(1.007)	7	3.11(1.156)
청년들이 하는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때도 있다	8	3.16(1.049)	5	3.41(1.028)
사업가는 자유시간이나 휴가를 갖지 못한다	9	2.89(1.065)	6	3.38(1.118)
정보가 충분하다면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10	2.84(1.045)	8	3.01(1.259)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창업을 한다	11	2.38(1.063)	11	1.61(.822)

특히 [그림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의 조건이나 예상되는 어려움 중 한국의 청소년들은 '창업을 하려면 인맥이 좋아야 한다'(M=4.33)에 가장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창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M=3.97)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을 하려면 관료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M=3.89),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M=3.73), '나는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M=3.57)에 대해 핀란드 청소년보다 동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7】 한국청소년의 창업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

창업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Ⅲ-27〉와 같다. 먼저 한국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수준을 보인 '창업 시 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모두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핀란드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보다 '창업을 하려면 인맥이 좋아야 한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는 '창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항목들 외에는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성별차이를 보인 항목은 국가간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창업을 하려면 관료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는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항목에서,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사업가는 자유시간이나 휴가를 갖지 못한다'는 항목에서 여자청소년들의 동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핀란드조사에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동의 정도가 여자청소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27 창업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창업을 하려면 인맥이 좋아야 한다	M(SD)	4.23(.899)	4.43(.660)	3.74 (1.017)	3.94(.847)
	t	−3.929***		−3.348**	
창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M(SD)	3.82(1.011)	4.14(.805)	3.28(1.145)	3.60(1.061)
	t	−5.584***		−4.423***	
창업을 하려면 관료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M(SD)	3.76(.976)	4.03(.752)	3.44(1.067)	3.50(.931)
	t	−4.824***		−0.914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M(SD)	3.75(1.151)	3.70(1.142)	3.02(1.227)	2.95(1.313)
	t	0.685		0.808	
나는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M(SD)	3.45(1.138)	3.70(.994)	2.58(1.232)	2.69(1.239)
	t	−3.775***		−1.393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M(SD)	3.50(.975)	3.47(.933)	3.99(.948)	3.82(.882)
	t	0.459		3.046**	
사람들 간의 시기나 질투가 창업을 저해한다	M(SD)	3.27(1.014)	3.18(.997)	3.19(1.204)	3.04(1.114)
	t	1.429		1.917	
청년들이 하는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때도 있다	M(SD)	3.13(1.084)	3.18(1.009)	3.36(1.048)	3.44(1.014)
	t	−0.730		−1.196	
사업가는 자유시간이나 휴가를 갖지 못한다	M(SD)	2.87(1058)	2.92(1.073)	3.21(1.160)	3.50(1.073)
	t	−0.612		−4.055***	
정보가 충분하다면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M(SD)	3.87(1.034)	3.80(1.056)	3.05(1.232)	2.99(1.278)
	t	1.080		0.749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창업을 한다	M(SD)	2.44(1.128)	2.31(.983)	1.67(.870)	1.57(.785)
	t	1.930		1.793	

* p<.05 ** p<.01 *** p<.001

한국과 핀란드의 청소년들이 경제수준에 따라 창업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Ⅲ-28〉와 같다. '창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항목에 대해 양국 청소년 모두,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창업을 하려면 인맥이 좋아야 한다' 에 대해서도 한국청소년들은 경제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중간계층의 청소년들이 이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창업을 하려면 관료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에 대해 핀란드청소년은 경제수준별로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28 창업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창업을 하려면 인맥이 좋아야 한다	M (SD)	4.20 (.876)	4.39 (.720)	4.28 (.861)	3.76 (1.060)	3.83 (.933)	3.92 (.883)
	F(scheffe)	3.699*(중>하>상)			1.743(하>중>상)		
창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M (SD)	3.67 (.941)	3.98 (.909)	4.05 (.944)	3.16 (1.146)	3.42 (1.114)	3.58 (1.077)
	F(scheffe)	6.767**(하>중>상)			6.327**(하>중>상)		
창업을 하려면 관료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M (SD)	3.88 (.973)	3.90 (.843)	3.87 (.917)	3.24 (1.063)	3.45 (1.011)	3.55 (.949)
	F(scheffe)	0.091(중>상>하)			3.648*(하>중>상)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M (SD)	3.63 (1.121)	3.71 (1.121)	3.77 (1.183)	2.78 (1.365)	2.91 (1.226)	3.10 (1.305)
	F(scheffe)	0.614(하>중>상)			3.698*(하>중>상)		
나는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M (SD)	3.40 (1.166)	3.52 (1.039)	3.66 (1.096)	2.57 (1.303)	2.59 (1.233)	2.71 (1.226)
	F(scheffe)	3.322*(하>중>상)			1.348(하>중>상)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M (SD)	3.49 (.932)	3.51 (.920)	3.46 (1.003)	4.31 (.758)	3.88 (.926)	3.81 (.908)
	F(scheffe)	0.216(중>상>하)			12.741***(상>중>하)		
사람들 간의 시기나 질투가 창업을 저해한다	M (SD)	3.34 (1.062)	3.21 (.990)	3.23 (1.013)	2.81 (1.237)	3.09 (1.134)	3.19 (1.150)
	F(scheffe)	0.722(상>하>중)			4.080*(하>중>상)		
청년들이 하는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때도 있다	M (SD)	3.32 (1.086)	3.15 (1.035)	3.12 (1.055)	3.42 (1.126)	3.34 (1.029)	3.48 (1.003)
	F(scheffe)	1.466(상>중>하)			2.040(하>상>중)		
사업가는 자유시간이나 휴가를 갖지 못한다	M (SD)	2.99 (1.062)	2.92 (1.082)	2.83 (1.046)	3.18 (1.170)	3.36 (1.128)	3.44 (1.092)
	F(scheffe)	1.240(상>중>하)			2.343(하>중>상)		
정보가 충분하다면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M (SD)	3.79 (1.045)	3.84 (1.023)	3.86 (1.072)	2.86 (1.340)	2.92 (1.220)	3.15 (1.272)
	F(scheffe)	0.184(하>중>상)			4.516*(하>중>상)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창업을 한다	M (SD)	2.49 (1.110)	2.34 (1.030)	2.40 (1.090)	1.68 (.935)	1.56 (.782)	1.65 (.835)
	F(scheffe)	0.961(상>하>중)			1.625(상>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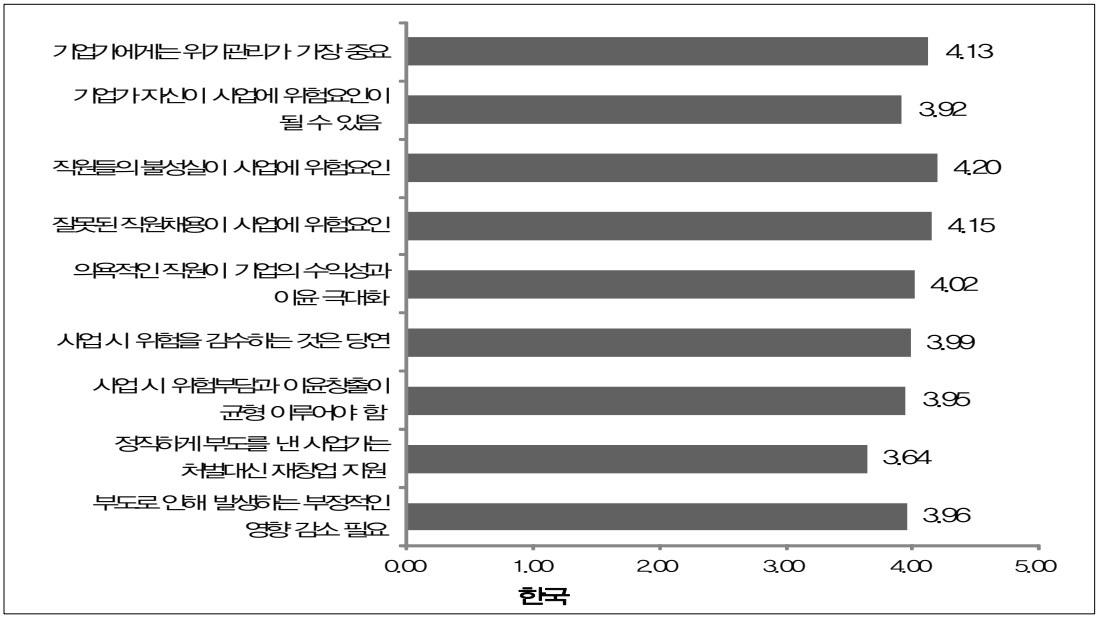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또한 핀란드청소년들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창업을 할 것이다'에 대해서 동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 간의 시기나 질투가 창업을 저해한다'와 '정보가 충분하다면 창업을 할 것이다'에 대해서도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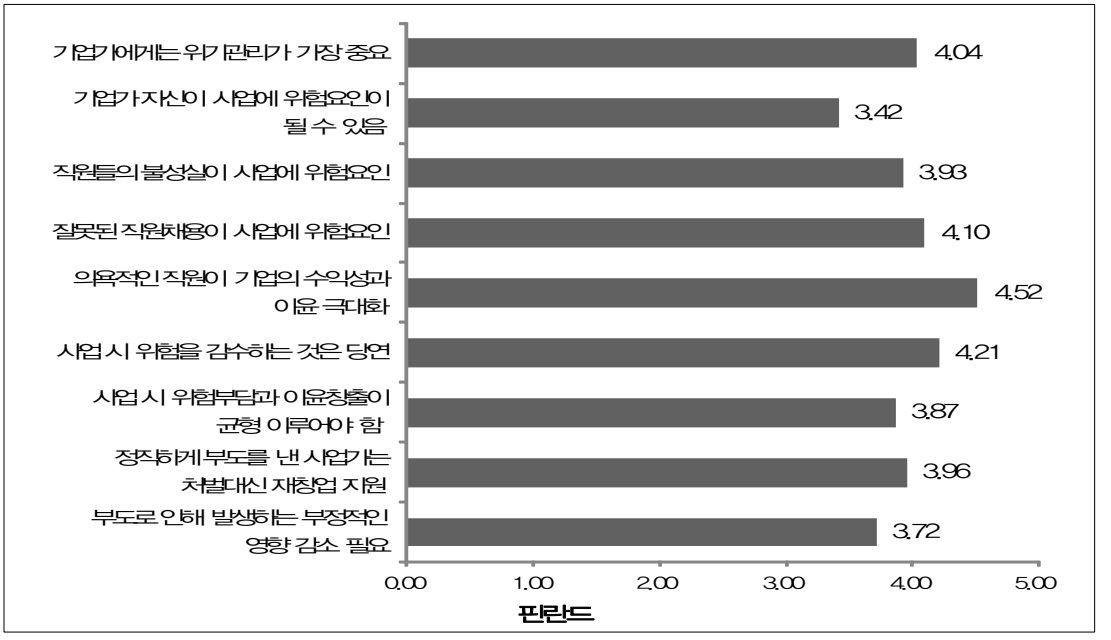
(6) 창업의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창업과 관련한 위험요소들에 대해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그림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의 경우, 직원들의 불성실, 잘못된 직원채용, 기업가의 위기관리 능력 등이 창업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Ⅲ-8】 한국청소년이 인식하는 창업의 위험요소

핀란드청소년들은 기업의 수익성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욕적인 직원을 사업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사업을 할 때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청소년 모두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핵심적이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9】 핀란드청소년이 인식하는 창업의 위험요소

한국의 경우, 창업의 위험요소와 관련된 설문항목 모두에 대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핀란드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여자청소년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창업의 위험요소에 대한 경제수준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 항목은 양국 모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부록표-8〉).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 유일한 항목은 '부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한다'로, 핀란드 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창업의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전체값 및 성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전체	성별		전체	성별	
			남	여		남	여
기업가에게는 위기관리가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이다	M (SD)	4.13 (.853)	4.08 (.943)	4.20 (.738)	4.04 (.694)	4.05 (.719)	4.04 (.676)
	t		−2.197*			0.137	
기업가 자신이 사업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M (SD)	3.92 (.802)	3.89 (.838)	3.95 (.762)	3.42 (.932)	3.49 (.931)	3.37 (.930)
	t		−1.190			1.817	
직원들의 불성실은 사업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M (SD)	4.20 (.785)	4.11 (.837)	4.29 (.714)	3.93 (.853)	3.84 (.916)	3.99 (.798)
	t		−3.595***			−2.762**	
직원을 잘못 채용하면 사업에 위험요인이 이 될 수 있다	M (SD)	4.15 (.794)	4.06 (.841)	4.26 (.726)	4.10 (.733)	4.09 (.758)	4.11 (.714)
	t		−4.060***			−0.544	
의욕적인 직원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한다	M (SD)	4.02 (.890)	3.96 (.925)	4.09 (.846)	4.52 (.644)	4.51 (.638)	4.52 (.649)
	t		−2.262*			−0.243	
사업을 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M (SD)	3.99 (.807)	3.96 (.868)	4.04 (.733)	4.21 (.698)	4.20 (.708)	4.21 (.691)
	t		−1.549			−0.335	
사업을 할 때 위험부담과 이윤창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M (SD)	3.95 (.843)	3.94 (.871)	3.97 (.812)	3.87 (.768)	3.81 (.782)	3.91 (.755)
	t		−0.560			−1.907	
정직하게 부도를 낸 사업가는 처벌하지 말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M (SD)	3.64 (.980)	3.60 (1.001)	3.69 (.955)	3.96 (.910)	3.96 (.961)	3.96 (.870)
	t		−1.455			−0.150	
부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한다	M (SD)	3.96 (.825)	3.93 (.897)	3.99 (.738)	3.72 (.971)	3.63 (1.051)	3.79 (.901)
	t		−1.284			−2.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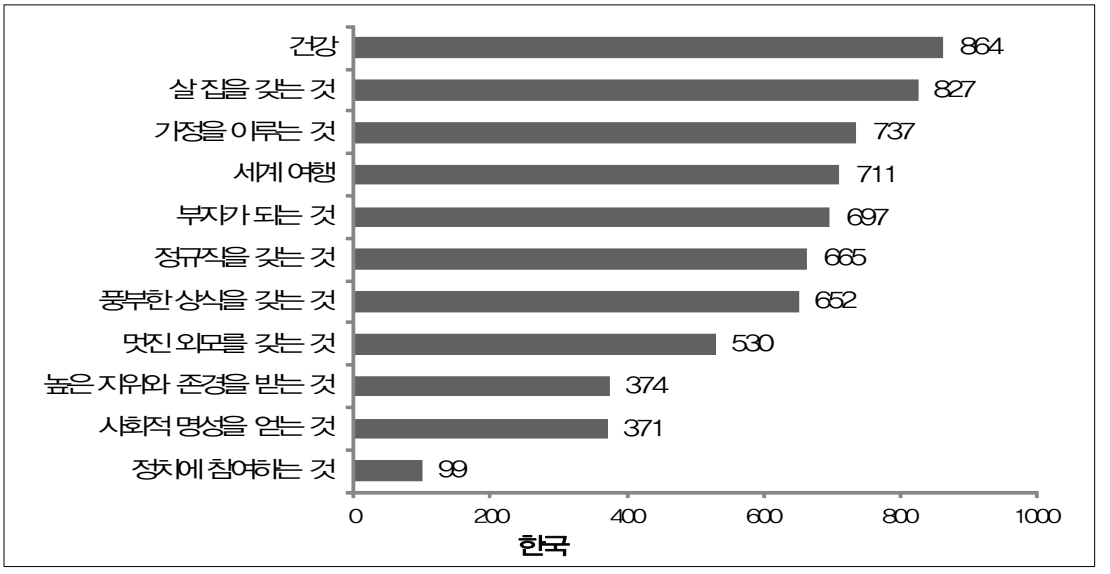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 성취하고 싶은 것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에게 〈표 Ⅲ-30〉와 같은 다양한 항목을 제시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가능[3]),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모두 '건강'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청소년들은 그 다음으로 살 집을 갖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세계여행, 부자가 되는 것, 정규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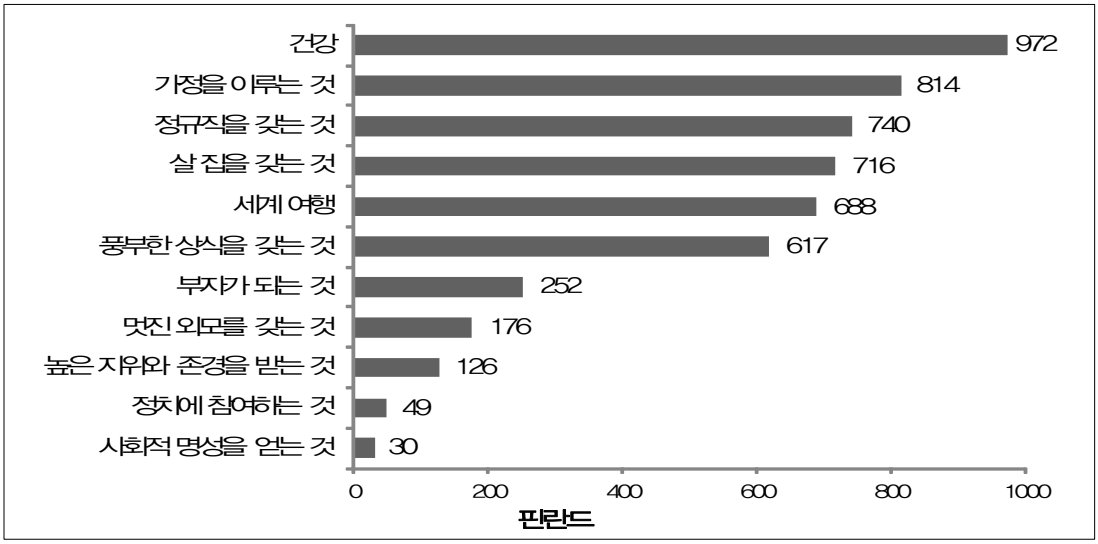
3) 한국조사에서의 본 항목에 대한 중복응답이 핀란드청소년보다 많았고 성별로도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순위를 통해 각 사회에서 성별과 연령별로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갖는 것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핀란드청소년들도 거의 유사한 응답을 하였다([그림 Ⅲ-10], [그림 Ⅲ-11]).



【그림 Ⅲ-10】 한국: 성취하고 싶은 것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청소년의 경우 '정규직을 갖는 것'이 6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데 비해, 핀란드청소년들은 이 항목에 대해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한국 청소년은 5번째로 높은 빈도(697)를 보였는데, 핀란드청소년의 경우 7번째로 나타나 격차를 보였다.



【그림 Ⅲ-11】 핀란드: 성취하고 싶은 것

표 Ⅲ-30 성취하고 싶은 것 (중복응답/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비교)

성취하고 싶은 것	한국		핀란드	
	순위	빈도	순위	빈도
건강	1	864	1	972
살 집을 갖는 것	2	827	4	716
가정을 이루는 것	3	737	2	814
세계 여행	4	711	5	688
부자가 되는 것	5	697	7	252
정규직을 갖는 것	6	665	3	740
풍부한 상식을 갖는 것	7	652	6	617
멋진 외모를 갖는 것	8	530	8	176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는 것	9	374	9	126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	10	371	11	30
정치에 참여하는 것	11	99	10	49
전체(N)	-	6,531	-	5,1778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표 Ⅲ-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간 현격한 격차를 보인 항목은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한국의 남자청소년은 이에 대해 3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한국의

여자청소년은 7번째로 나타났다.

표 Ⅲ-31 성취하고 싶은 것 (중복응답/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성별 비교)

성취하고 싶은 것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순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빈도
건강	1	425	1	440	1	387	1	585
살 집을 갖는 것	2	422	2	405	4	275	3	441
가정을 이루는 것	3	413	7	324	3	303	2	511
부자가 되는 것	4	350	4	347	6	133	8	119
정규직을 갖는 것	5	345	6	320	2	306	4	434
세계 여행	6	324	3	387	5	263	5	425
풍부한 상식을 갖는 것	7	320	5	332	5	263	6	354
멋진 외모를 갖는 것	8	246	8	285	8	56	7	120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는 것	9	207	10	168	7	64	9	62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	10	203	9	169	10	15	11	15
정치에 참여하는 것	11	71	11	28	9	26	10	23
전체(N)	–	3,326	–	3,205	–	2,091	–	3,087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 핀란드조사에서는 남자청소년은 3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여자청소년은 2번째(N=511)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성별간 인식 양상이 한국과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에서 공통적으로 4번째의 빈도(N=360)를 보인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핀란드의 남자청소년은 6번째(N=133), 여자청소년은 8번째(N=119)의 빈도를 보여 두 국가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핀란드청소년의 응답 빈도 순위가 한국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는데, 핀란드 남자청소년이 2번째(N=306), 여자청소년들은 4번째(N=434)의 빈도를 보인데 비해, 한국의 남자청소년은 5번째(N=345), 여자청소년들은 6번째(N=434)로 나타났다. 성취하고 싶은 일로서 '세계여행'은 한국의 남자청소년에서는 6번째(N=324)인데 비해, 여자청소년들은 3번째(N=387)로 높게 나타났으며, 핀란드청소년들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5번째(각각 N=263, N=425)로 나타났다. '멋진 외모를 갖는 것',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는 것',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국의 청소년 모두 낮은 빈도를 보였다.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표 Ⅲ-32〉와 같다.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은 모두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을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으로 응답했고, 한국의 전 연령대에서, 그리고 핀란드청소년의 10대 후반에서 '살 집을 갖는 것'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Ⅲ-32 성취하고 싶은 것 (중복응답/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연령별 비교)

성취하고 싶은 것	한국						핀란드					
	만15~19세		만20~24세		만25~29세		16~20세		21~25세		26~31세	
	순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빈도
건강	1	296	1	264	1	304	1	94	1	291	1	587
살 집을 갖는 것	2	294	2	261	2	272	2	81	4	221	4	414
가정을 이루는 것	3	269	3	232	5	236	2	81	2	246	2	487
정규직을 갖는 것	4	245	3	232	7	188	4	68	3	229	3	443
부자가 되는 것	5	244	5	214	4	240	6	31	7	86	7	135
세계 여행	6	243	4	215	3	253	3	76	5	205	5	407
풍부한 상식을 갖는 것	7	232	6	207	6	213	4	68	6	186	6	363
멋진 외모를 갖는 것	8	229	7	166	8	135	5	32	8	60	8	84
높은 지위, 존경 받는 것	9	161	8	117	10	96	7	21	9	44	9	61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	10	153	9	115	9	103	9	7	11	8	11	15
정치에 참여하는 것	11	41	10	33	11	25	8	10	10	12	10	27
전체(N)	-	2,175	-	2,056	-	2,065	-	569	-	1,588	-	3,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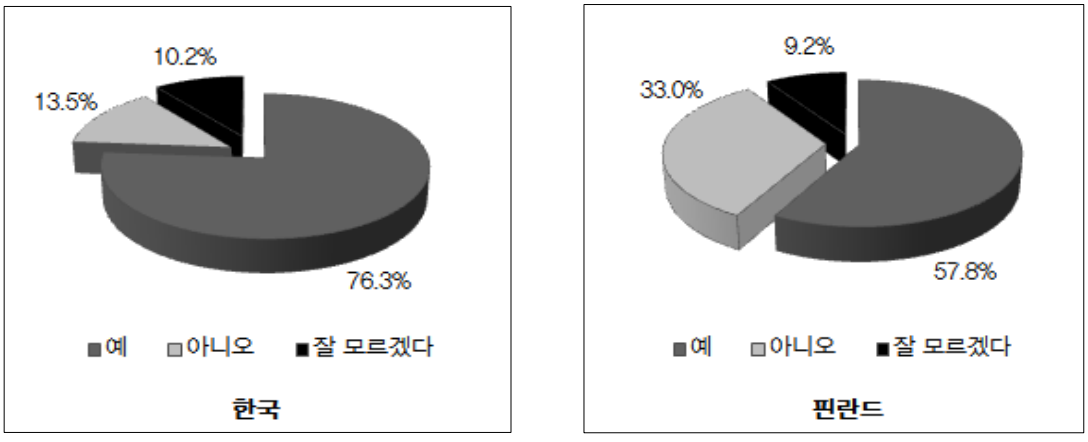
핀란드청소년들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전 연령대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으로서 2번째로 높은 응답빈도를 보였으나, 한국청소년들은 만15세~19세, 만20세~24세는 3번째인데 비해 만25세 이후의 청소년들의 경우는 5번째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희망 정도가 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규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만25세~29세 청년들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으나, 핀란드청소년의 경우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순위와 빈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한국과 차이를 나타냈다. '세계여행' 역시 한국청소년조사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데 비해, 핀란드조사에서는 연령대가 가장 낮은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4.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 조사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이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1) 기업의 사회적책임 인지 여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에게 질문한 결과, [그림 Ⅲ-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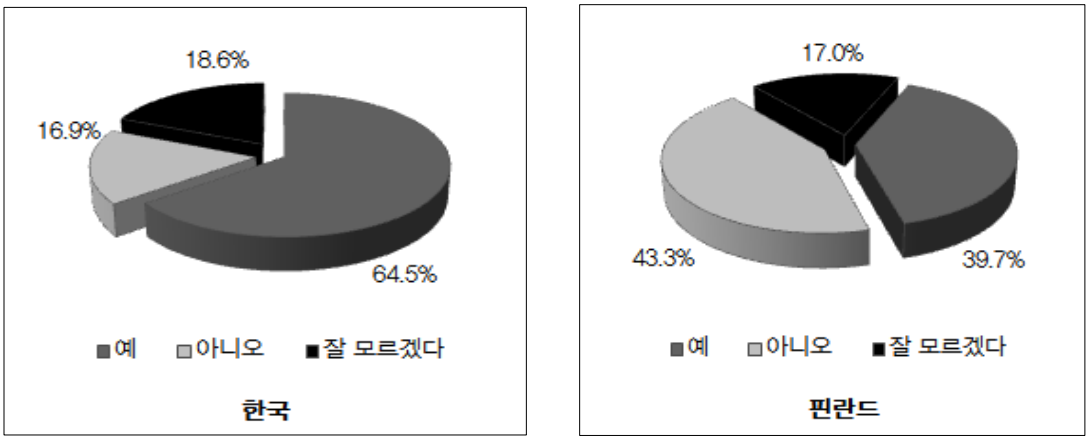
【그림 Ⅲ-12】 기업의 사회적책임 인지 여부

〈표 Ⅲ-33〉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들은 76.3%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핀란드청소년들은 그보다 낮은 57.8%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의 경우 남녀차이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해, 핀란드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70%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49% 정도만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기업의 사회적책임 인지 여부 단위: %(빈도)

구분	한국			핀란드		
	전체	성별		전체	성별	
		남	여		남	여
전체	100(1016)	100(531)	100(485)	100(1058)	100(432)	100(626)
예	76.3(775)	76.3(405)	76.5(371)	57.8(612)	70.1(303)	49.4(309)
아니오	13.5(137)	13.7(73)	13.0(63)	33.0(349)	23.1(100)	39.8(249)
잘 모르겠다	10.2(104)	10.0(53)	10.5(51)	9.2(97)	6.7(29)	10.9(68)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지를 질문한 결과, [그림 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의 64.5%가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핀란드청소년은 40% 정도만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13】 기업의 사회적책임 의미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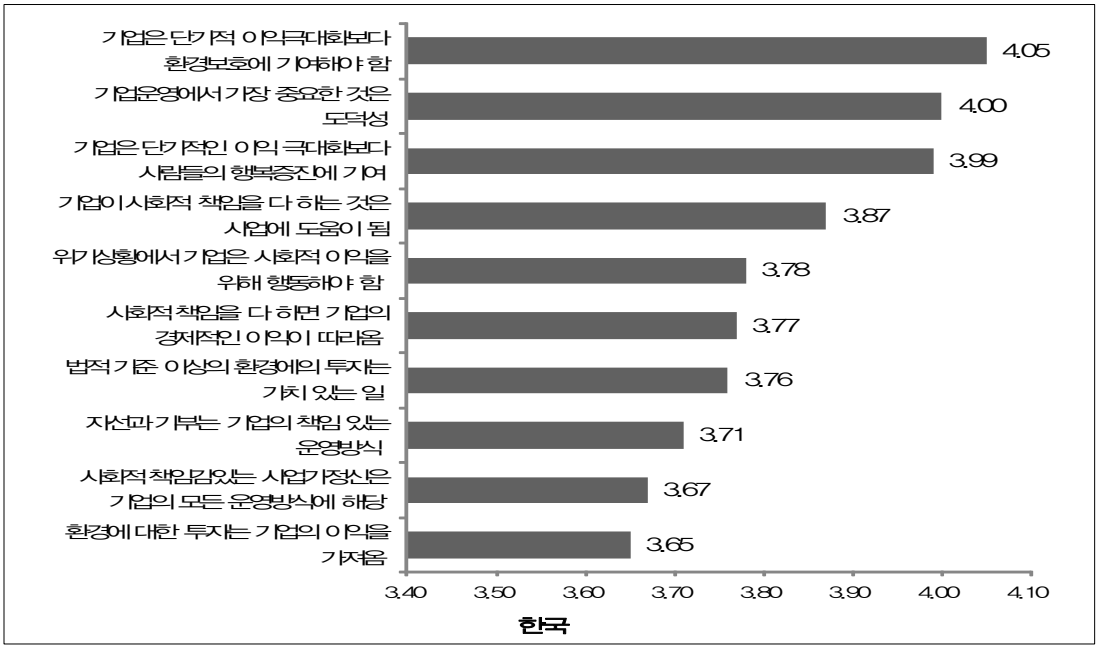
성별차이를 보면(〈표 Ⅲ-34〉), 한국의 남자청소년들은 67%, 여자청소년들은 61%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성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남자청소년의 51%, 여자청소년의 32%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자청소년들의 응답이 확연히 낮게 나타났다.

표 Ⅲ-34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의미 인지 여부 단위: %(빈도)

구분	한국			핀란드		
	전체	성별		전체	성별	
		남	여		남	여
전체	100(1016)	100(531)	100(485)	100(1058)	100(432)	100(626)
예	64.5(655)	67.6(359)	61.0(296)	39.7(420)	51.2(221)	31.8(199)
아니오	16.9(172)	16.8(89)	17.1(83)	43.3(458)	33.3(144)	50.2(314)
잘 모르겠다	18.6(189)	15.6(83)	21.9(106)	17.0(180)	15.5(67)	18.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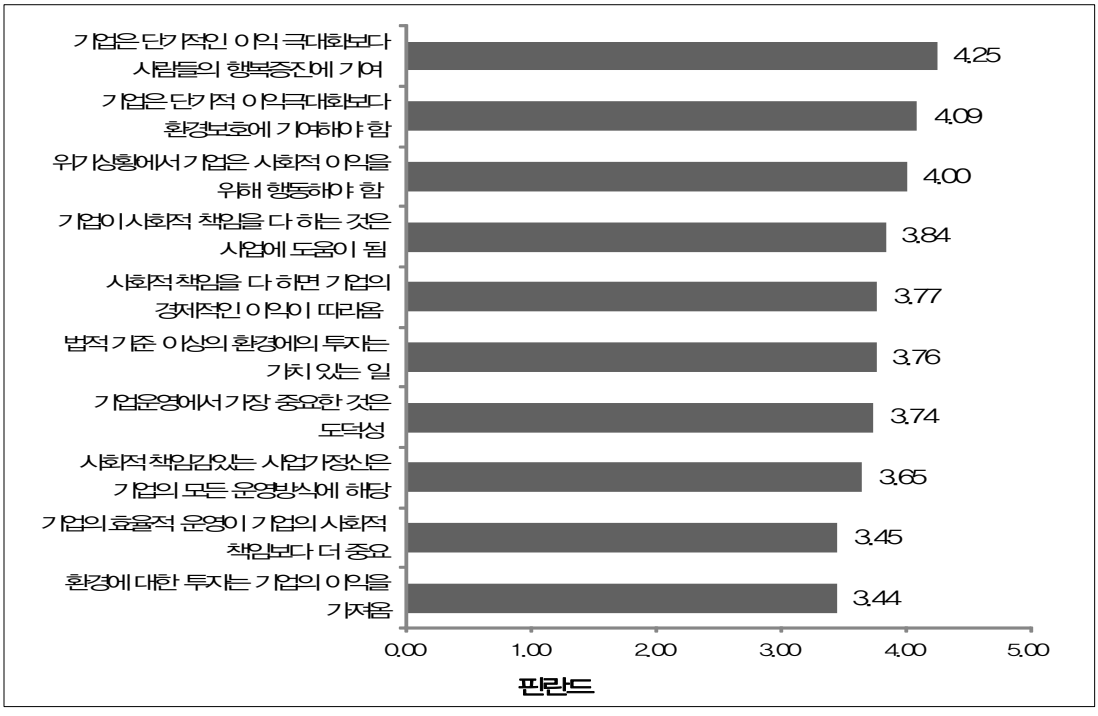
2)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의미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등 다양하다.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Ⅲ-35〉와 같다.



【그림 Ⅲ-14】 한국: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그림 Ⅲ-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의 응답을 먼저 살펴보면, '기업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환경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M=4.05) 유사한 내용으로 '기업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사람들의 행복증진에 기여해야 한다'에 대해서도 3번째로 높은 평균값(M=3.99)을 보였다. 이들 항목들에 대해 핀란드청소년들도 각각 2번째와 1번째의 높은 평균값을 보여(M=4.09, M=4.25), 양국청소년이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5] 참조).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에 대해 한국청소년들은 2번째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는데(M=4.00) 비해, 핀란드청소년들은 7번째로 높은 평균값을 보여(M=3.74)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Ⅲ-15】 핀란드 :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은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에게서 모두 4번째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각각 M=3.87, M=3.84). '위기상황에서 기업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항목과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이익을가져온다'에 대해서는 한국과 핀란드의 평균값이 유사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선과 기부는 기업의 책임있는 운영방식이다' 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들의 평균값(M=3.71)이 8번째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핀란드청소년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17번째(M=2.85)의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 외에도 국가간 차이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의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평균값(M=3.43)이 15번째로 나타난데 비해, 핀란드청소년의 응답에서는 25번째(M=1.82)를 차지해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35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전체 비교(평균값 기준)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사항들	한국		핀란드	
	순위	M(SD)	순위	M(SD)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환경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1	4.05(.866)	2	4.09(.926)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2	4.00(.930)	7	3.74(.950)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보다는 사람들의 행복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3	3.99(.841)	1	4.25(.839)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	4	3.87(.814)	4	3.84(.884)
위기상황에서(예, 자연재해 등), 기업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5	3.78(.971)	3	4.00(.868)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면 결국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6	3.77(.949)	5	3.77(.924)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7	3.76(.895)	6	3.76(.962)
자선과 기부는 기업의 책임있는 운영방식이다	8	3.71(.895)	17	2.85(1.072)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업가 정신은 기업의 모든 운영방식에 해당된다	9	3.67(.876)	8	3.65(.800)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이익을 가져온다	10	3.65(.897)	10	3.44(1.004)
공공기관보다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제공할 수 있다	11	3.58(.954)	11	3.34(.964)
도덕과 윤리는 기업의 성공과 사회의 발전을 보장한다	12	3.57(.960)	12	3.34(.982)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13	3.51(.995)	18	2.66(1.120)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돈이 중요하다	14	3.45(1.025)	16	2.91(1.155)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5	3.43(.935)	25	1.82(.971)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16	3.37(1.094)	15	2.94(1.127)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사항들	한국		핀란드	
	순위	M(SD)	순위	M(SD)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윤창출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17	3.29(.952)	20	2.41(1.037)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책임보다 더 중요하다	18	3.21(.957)	9	3.45(1.063)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19	3.13(1.164)	19	2.63(1.174)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허한 약속일뿐이다	20	3.07(1.080)	13	3.19(.994)
기업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다	21	2.93(1.042)	23	2.03(.987)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22	2.89(1.117)	21	2.21(1.158)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23	2.78(1.124)	14	3.11(1.058)
기업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다	24	2.70(1.086)	24	1.93(.937)
기업은 기업소유자의 이익만 달성하면 된다	25	2.26(1.107)	22	2.20(1.072)

한국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인 반면, 핀란드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타난 항목들도 있었다. 먼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사회적 책임보다 더 중요하다'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M=3.21, 18번째 순위)을 보였으나, 핀란드청소년들은 이보다 높은 평균값과 순위(M=3.45, 9번째 순위)를 보여, 핀란드청소년들은 기업의 사회적책임보다 효율적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허한 약속일뿐이다'에 대해 한국청소년들의 평균값(M=3.07, 20번째 순위)보다 핀란드청소년이 조금 더 높은 평균값과 순위(M=3.19, 13번째)를 보였다. 이와 유사한 항목인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항목 역시 핀란드청소년의 응답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성별간 차이를 보인 항목을 정리한 결과는 〈표 Ⅲ-36〉와 같다.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에게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성별차이를 보인 항목은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면 결국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자선과 기부는 기업의 책임 있는 운영방식이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이익을 가져 온다', '공공기관보다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제공할 수 있다'로서 한국과 핀란드 양국에서 모두 여자청소년의 평균값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조사에서는 여자청소년이, 핀란드조사에서는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서 경제적 책임을 중요시 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항목인 '기업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다'와 '기업은 기업소유자의 이익만 달성하면 된다'는 항목에서는 한국과 핀란드 모두 남자청소년의 응답이 여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36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성별 비교)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사항들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환경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M(SD)	3.89(.934)	4.22(.747)	4.03(.962)	4.12(.898)
	t	−6.307***		−1.499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M(SD)	3.89(1.006)	4.11(.826)	3.60(1.044)	3.84(.864)
	t	−3.671***		−3.746***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	M(SD)	3.82(.850)	3.93(.769)	3.65(.962)	3.98(.791)
	t	−1.983*		−5.381***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면 결국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M(SD)	3.71(.993)	3.84(.894)	3.64(1.006)	3.88(.837)
	t	−2.191*		−3.728***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M(SD)	3.72(.952)	3.81(.827)	3.65(1.026)	3.84(.905)
	t	−1.654		−2.967**	
자선과 기부는 기업의 책임 있는 운영방식이다	M(SD)	3.65(.950)	3.77(.796)	2.67(1.081)	2.98(1.047)
	t	−2.259*		−4.443***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업가 정신은 기업의 모든 운영방식에 해당 된다	M(SD)	3.65(.908)	3.69(.840)	3.51(.861)	3.77(.728)
	t	−0.636		−4.672***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이익을 가져온다	M(SD)	3.59(.935)	3.73(.849)	3.26(1.084)	3.58(.912)
	t	−2.356*		−4.590***	
공공기관보다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제공할 수 있다	M(SD)	3.52(.994)	3.65(.905)	3.26(1.073)	3.40(.861)
	t	−2.149*		−2.060*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M(SD)	3.37(.967)	3.49(.896)	1.90(1.054)	1.76(.900)
	t	−2.038*		2.284*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사항들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M(SD)	3.40(1.133)	3.33(1.049)	3.12(1.181)	2.81(1.069)
	t	0.994		4.293***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책임보다 더 중요하다	M(SD)	3.27(1.006)	3.14(.896)	3.47(1.125)	3.44(1.014)
	t	2.158*		0.438	
기업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다	M(SD)	3.05(1.071)	2.80(.993)	2.13(1.093)	1.96(.896)
	t	3.816***		2.567*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M(SD)	3.02(1.124)	2.75(1.094)	2.39(1.249)	2.08(1.070)
	t	3.748***		3.991***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M(SD)	2.86(1.153)	2.70(1.085)	3.20(1.122)	3.04(.995)
	t	2.292*		2.205*	
기업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다	M(SD)	2.83(1.133)	2.56(1.014)	1.98(1.040)	1.90(.854)
	t	3.991***		1.292	
기업은 기업소유자의 이익만 달성하면 된다	M(SD)	2.46(1.171)	2.04(.989)	2.35(1.188)	2.10(.966)
	t	6.144***		3.495**	

* p<.05 ** p<.01 *** p<.001

전반적으로 양국 모두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와 도덕성, 사회적 기여, 자선과 기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의 동의 정도가 더 높았고,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 윤리적 책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에 대한 불신은 남자청소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에 있어 경제수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Ⅲ-37〉과 같다.

표 Ⅲ-37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경제수준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M (SD)	3.83 (.944)	3.94 (.945)	4.10 (.898)	3.59 (1.087)	3.76 (.866)	3.75 (1.001)
	F(scheffe)	5.150**(하>중>상)			1.360(중>하>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	M (SD)	3.71 (.938)	3.86 (.818)	3.93 (.768)	3.74 (.983)	3.82 (.836)	3.87 (.910)
	F(scheffe)	3.214*(하>중>상)			0.946(하>중>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결국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M (SD)	3.57 (1.085)	3.76 (.928)	3.83 (.930)	3.74 (.904)	3.79 (.850)	3.76 (1.002)
	F(scheffe)	3.164*(하>중>상)			0.107(중>하>상)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M (SD)	3.61 (.932)	3.72 (.889)	3.86 (.887)	3.68 (1.060)	3.72 (.938)	3.82 (.966)
	F(scheffe)	4.227*(하>중>상)			1.340(하>중>상)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이익을 가져온다	M (SD)	3.43 (1.006)	3.65 (.883)	3.72 (.876)	3.36 (.972)	3.43 (.966)	3.48 (1.049)
	F(scheffe)	4.171*(하>중>상)			0.524(하>중>상)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M (SD)	3.21 (1.019)	3.40 (.923)	3.51 (.919)	1.86 (1.064)	1.86 (.964)	1.76 (.955)
	F(scheffe)	4.581*(하>중>상)			1.212(중>상>하)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윤창출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M (SD)	3.19 (.970)	3.25 (.962)	3.36 (.931)	2.23 (1.007)	2.34 (1.013)	2.53 (1.059)
	F(scheffe)	2.264(하>중>상)			5.098**(하>중>상)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허한 약속일뿐이다	M (SD)	3.35 (1.042)	3.02 (1.050)	3.06 (1.116)	3.00 (1.052)	3.11 (.961)	3.30 (1.003)
	F(scheffe)	3.675*(상>하>중)			5.155**(하>중>상)		

* p<.05 ** p<.01 *** p<.001

한국청소년들이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관련한 7개 항목에 대해서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인데 비해, 핀란드청소년은 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였다. 한국청소년들은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결국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이익을 가져 온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허한 약속일뿐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 월등히 높은 평균값을 보여 경제수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해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핀란드청소년조사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윤창출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허한 약속일뿐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만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허한 약속일뿐이다'에 대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 한국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더 높았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창업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가치관, 위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1) 가치관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은 가치는 '행복', '가족의 안전', '건강', '자유', '인생을 즐기는 것', '사랑'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청소년들이 핀란드청소년보다 '즐거움'이나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정의'와 '정직'은 핀란드청소년들이 한국청소년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청소년 모두 '행복', '가족의 안전', '건강', '즐거움', '인생을 즐기는 것', '자기존중', '사람간의 평등', '환경보호'등에 대해 성별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이러한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중요도를 보인 가치관 항목은 한국청소년의 경우는 '사회적 명성'과 '높은 사회적 지위'였고, 핀란드조사에서는 '행복', '효율성', '성공', '높은 사회적 지위', '야망', '권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불확실성 · 불안전성을 느끼는 정도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 한국청소년의 응답수준이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 항목은 '취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외모 중시 풍조',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인구의 노령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핀란드청소년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 '마약 밀매', '취업', '개인소득'의 순으로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성별차이를 보인 항목은, '외모 중시 풍조',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인구의 노령화', '자연재해', '생활방식에 따른 질병의 증가' 등으로, 모든 항목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모두 '취업', '개인소득', '나의 인생' 등에 대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 불안정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위험에 대한 인식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모두 '마약하기'의 위험도 수준을 가장 높게 보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의 경우 그 다음으로 '도박', '대출', '무분별한 성관계', '주식투자', '주택담보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의 순으로 위험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핀란드청소년은 '마약하기'의 뒤를 이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대출', '주식투자' 순으로 위험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취미나 지식을 사용하여 창업하는 것'에 대해 한국청소년보다 핀란드청소년이 위험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에 대한 태도가 핀란드청소년에게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성별차이를 보인 항목은 '마약하기', '무분별한 성관계', '주식투자', '주택담보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 등으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이에 대해 위험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인식

(1) 창업 경험

창업을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체의 본인 설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은 79.2%인 15명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를 본인이 설립하였고, 핀란드청소년은 82%가 본인이 설립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종업원 수는 1~5명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사업성과에 대해 한국청소년들의 5%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사업성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던데 비해, 핀란드청소년들은 10배 이상(58%)의 응답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과에 미친 영향으로서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모두 '나 자신'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항목은 한국청소년의 경우 '주변 환경', 핀란드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었다. 향후 5년 내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국 청소년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청소년의 과반수 정도가 향후 5년 내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비해, 핀란드청소년들은 68%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2) 창업에 대한 인식

전반적으로 양국의 청소년 모두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청소년 보다 핀란드청소년들이 창업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 모두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는 창업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실패의 두려움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응답에서 핀란드 청소년의 동의 수준이 한국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실패의 두려움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더 강한 것은 양국에 공통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양국의 청소년 모두 대체로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국 모두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는 창업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청소년들이 창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인적 성향

창업시도와 관련성이 있는 개인적 성향을 살펴본 결과, 핀란드청소년이 위험을 더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는 한국청소년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나는 모든 것이 평소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과 핀란드청소년이 유사한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개인적 성향에 대한 경제수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청소년의 조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낯선 사람과 쉽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타인에 대해 의식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것이 평소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4) 창업 동기에 대한 인식

창업을 하게 되면 잠재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핀란드청소년이 한국청소년보다 훨씬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반면에 불안정한 소득과 자본손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할 만하다거나, 응답자의 가족이 본인에게 창업을 하기를 원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한국조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가족의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창업의 조건 및 창업에 예상되는 어려움

한국청소년들은 창업을 하는데 인맥이 중요하며, 창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창업방법을 잘 모른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한국청소년에서 현격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창업을 한다는 생각도 한국청소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는 양국 모두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인맥과 돈을 창업을 하는데 더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 청소년의 응답 모두에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창업을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창업의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창업과 관련한 위험요소들에 대해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한국청소년의 경우, 직원들의 불성실, 잘못된 직원채용, 기업가의 위기관리 능력 등이 창업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핀란드청소년들은 기업의 수익성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욕적인 직원을 사업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사업을 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청소년 모두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핵심적이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성취하고 싶은 것

자신의 인생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에 질문한 결과 한국과 핀란드청소년 모두 건강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살 집을 갖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세계여행, 부자가 되는 것, 정규직을 갖는 것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핀란드청소년들이 한국청소년보다 더 높은 희망 순위를 보였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들이 더 높은 순위와 빈도를 보여주었다. 성별차이를 보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남자청소년이나 핀란드청소년보다 한국의 여자청소년들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희망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CSR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들의 64.5%가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핀란드청소년들은 40% 정도만이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한국청소년들의 이해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관련한 항목들에 대해 한국과 핀란드청소년들은 기업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환경보호와 사람들의 행복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고, 한국청소년들은 핀란드청소년들에 비해 기업운영에서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사회에 도움이 되며, 위기상황에서 기업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양국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선과 기부는 기업의 책임 있는 운영방식이라는 항목과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청소년들이 핀란드청소년보다 훨씬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사회적 책임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속임수라는 항목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청소년보다 핀란드청소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차이를 보면, 기업운영에서의 도덕성의 중요성, 기업의 사회적책임, 자선과 기부의 중요성, 환경투자에 대한 기업의 이익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 핀란드 모두 여자청소년들이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추구를 더 중시하는 태도와 관련된 항목, 즉'기업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다'와'기업은 기업소유자의 이익만 달성하면 된다'는 항목에서는 양국 모두 남자청소년의 응답이 여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조사에서의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기업운영에서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 환경에 대한 투자, 사회적 이익고려 등의 항목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제언

1) 창업 여건의 개선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창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관심 제고나 창업관련 지식이나 기술 습득으로는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창업에 우호적인 사회적 여건을 구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한국과 핀란드 모두 창업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매우 낮았고, 한국은 핀란드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과 사업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먼저, 창업을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 자신'이라는 응답에서 한국이 핀란드보다 다소 낮은 동의 정도를 보인데 비해 자신 외적인 요인인 '경제적 상황', '우연적 요소',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의 동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사업의 성과를 자신이 아닌 외적인 요인에 귀인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사업의 성과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이 갖는 불안정성 때문에 창업을 꺼리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들이 창업에 대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핀란드청소년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창업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창업의 비율이 더 낮았다. 창업을 한 경우에 자신의 사업 성과를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보는 인식이 한국청소년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청소년들이 핀란드청소년들에 비해 창업을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한국청소년은 핀란드청소년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창업을 했을 때 경험하는 어려움이 더 큰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여 실패할 경우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전들이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여건이 만족되지 않은 사회에서 창업을 새로운 도전으로 가치있게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기 어렵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공간, 창업아이템 개발활동비,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개인의 자체적인 자금이 부족하면 창업이 어렵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2) 1인창조기업의 내실있는 육성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창업을 한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국청소년의 동의하는 정도가 핀란드청소년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한국청소년에게서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창업은 양질의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진로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의 창업지원정책은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창업이 취업의 차선책이라는 가정에 부분적으로나마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창업을 청년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있다. 그러나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회형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1인창조기업의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창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1인 창조기업도 이러한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2009년에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 1인 창조기업 수와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11년 2월 9일자).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1인 창조기업의 원래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장가능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를 엄선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초기 인큐베이팅을 함으로써 1인창조기업 육성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의 질이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생계형 창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1인창조기업 육성정책이 생계형 창업을 양산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인창조기업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창업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경환(2009)에 따르면 1인창조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금조달로 나타났다. 엄선된 1인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1인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신뢰평가와 보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창조기업은 판로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육성정책은 1인창조기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에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관리와 보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인창조기업이 작은 규모나 이전 실적의 부족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전망있는 1인창조기업의 상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완화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문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김경환, 2009).

표 Ⅳ-1 1인 창조기업의 어려움

순위	1인 창조기업의 어려움	점수
1	자금조달	210
2	판로	87
3	사무공간 확보	81
4	마케팅 능력	62
5	사업아이템 선정	47
6	인력	43
7	창업을 위한 사전조사 및 준비	36
8	창업 교육	27
9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	25
	경영능력	25

출처: 김경환(2009)

3)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CSR에 대한 한국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은 핀란드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기업, 특히 대기업을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경영과 재벌들의 대를 이은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불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홍용희, 2010).

기업이 소비자들의 불신을 받을 경우 이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김성진과 김종근(2010)은 기업의 사회적책임 중 법적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가 다른 영역의 평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보이며, 특히 앞의 두 영역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전해질 경우 파급효과가 커져 기업의 이미지를 더 크게 훼손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방식이 사회로부터의 압력이나 기업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할 경우 이는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에게도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수정과 윤정구(2011)에 따르면 종업원이 기업의 CSR 활동을 외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동으로 귀인할 경우, 이는 CSR 활동에 대한 종업원의 냉소주의를 통하여 조직시민행동을 감소시키고 반생산적 과업활동은 증가시킨다. 반대로 내재적 정당성에 귀인할 경우 이들의 조직시민행동은 증가하나 조직 내 반생산적 과업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종업원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 오히려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업 경영이 이윤추구에만 가치를 둘 경우 기업의 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업을 운영하는 관리자들과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CSR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볼 때, CSR에 대한 이해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업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견제와 독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매체를 통해 CSR의 의미를 알리고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CSR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시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김경환(2009). 1인창조기업의 성장 방안.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2009년 추계 학술발표 논문집, pp. 3-191.

김성진 · 김종근(2010).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마케팅저널, 제11권 제4호, pp.49-67.

김학수 · 임규진(2010). 지역별 기업가정신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pp.470-486.

박동 · 김안국 · 황규희 · 이종선 · 이봉주(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철 · 강유리(2010). 한국, 중국, 몽골,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에 관한 비교연구.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32 No.2*, pp.228-246.

반성식 · 김상표 · 송경모 · 조동환 · 박종해 · 차민석(2010).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2009 한국보고서. 서울:중소기업청.

반성석 · 조동환 · 김상표 · 박종해(2009). 국내 창업여건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자료집.

배종태(2009).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 육성방안. 2009년 경영관련통합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자료집.

백우진(2010). 기업가정신 왜 문제인가.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28권 단일호, pp.168-174.

송영수(2010).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정신. 서울: 자유기업원.

신민식 · 김수은 · 김병수(2011). 기업의 사회적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금융공학연구, 제10권 제1호, pp.99-125.

이상민 · 최인철(2002).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이수정 · 윤정구(2011).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의 야누스 효과. 경영학 연구, 제40권 제4호, pp.919-954.

창업진흥원((2009). 청소년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서울:창업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핀란드청소년지표 200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헤럴드경제 2011. 2. 9일자 기사: 정부, 앱 창작터 확대 등 1인 창조기업 지원 본격화.
홍용희(2010).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한국의 기업윤리. 윤리연구, 제79호, pp.21-52.

부 록

1. 청년 설문지
2. 부록표

부 록

1. 청년 설문지

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

ID: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로 귀하의 인식을 파악하여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평소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인 자료 분석용으로만 활용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충실히 응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 2.

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기관 :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연락처 : 02-3488-2759 장호원 대리

다음은 응답자 선정을 위한 기본 문항입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SQ2. 귀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SQ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가치관, 위험, 불확실성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Q1.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은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치 않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1) 사람간의 평등	①	②	③	④	⑤	⑨
2) 마음의 평정	①	②	③	④	⑤	⑨
3) 즐거움	①	②	③	④	⑤	⑨
4) 자유	①	②	③	④	⑤	⑨
5) 행복	①	②	③	④	⑤	⑨
6) 흥미진진한 생활	①	②	③	④	⑤	⑨
7) 인생의 의미	①	②	③	④	⑤	⑨
8) 자기존중	①	②	③	④	⑤	⑨
9) 창의성	①	②	③	④	⑤	⑨
10) 성공	①	②	③	④	⑤	⑨
11) 가족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⑨
12) 사회적 명성	①	②	③	④	⑤	⑨
13) 지혜	①	②	③	④	⑤	⑨
14) 높은 사회적 지위	①	②	③	④	⑤	⑨
15) 책임감	①	②	③	④	⑤	⑨
16) 정의	①	②	③	④	⑤	⑨
17) 돈	①	②	③	④	⑤	⑨
18) 신의	①	②	③	④	⑤	⑨
19) 야망	①	②	③	④	⑤	⑨
20) 관용	①	②	③	④	⑤	⑨
21) 용기	①	②	③	④	⑤	⑨
22) 환경보호	①	②	③	④	⑤	⑨
23) 권위	①	②	③	④	⑤	⑨
24)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⑨
25) 효율성	①	②	③	④	⑤	⑨

26) 정직	①	②	③	④	⑤	⑨
27) 의무감	①	②	③	④	⑤	⑨
28) 인생을 즐기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⑨
29) 사랑	①	②	③	④	⑤	⑨
30) 독립심	①	②	③	④	⑤	⑨
31) 부자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⑨
32) 물질적 풍요	①	②	③	④	⑤	⑨
33) 일	①	②	③	④	⑤	⑨
34) 자유시간	①	②	③	④	⑤	⑨

Q2.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불확실성이나 불안전성**을 얼마나 느낍니까?.

문항	전혀 느끼지 않는다	약간 느낀다	그저 그렇다	많이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낀다	잘 모르겠다
1) 나의 인생	①	②	③	④	⑤	⑨
2)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	①	②	③	④	⑤	⑨
3) 인간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⑨
4) 개인 소득	①	②	③	④	⑤	⑨
5) 주거환경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⑨
6) 내가 사는 지역	①	②	③	④	⑤	⑨
7) 우리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⑨
8) 국제화	①	②	③	④	⑤	⑨
9) 국제 정치 상황	①	②	③	④	⑤	⑨
10) 원자력발전소 건설	①	②	③	④	⑤	⑨
11) 마약 밀매	①	②	③	④	⑤	⑨
l2) 우리나라에 이민을 온 사람의 수	①	②	③	④	⑤	⑨
13) 취업	①	②	③	④	⑤	⑨
14) TV 와 폭력물	①	②	③	④	⑤	⑨
15) 포르노물	①	②	③	④	⑤	⑨
16) 유행하는 질병	①	②	③	④	⑤	⑨
17) 생활방식에 따른 질병의 증가 (예: 당뇨병, 비만 등)	①	②	③	④	⑤	⑨
18)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①	②	③	④	⑤	⑨
19) 유전공학 기술	①	②	③	④	⑤	⑨
20)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⑨
21) 외모 중시 풍조	①	②	③	④	⑤	⑨

22) 인구의 노령화	①	②	③	④	⑤	⑨
23) 국제 테러	①	②	③	④	⑤	⑨
24) 세계 인구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⑨
25) 일상생활의 상업화	①	②	③	④	⑤	⑨
26) 자연재해	①	②	③	④	⑤	⑨

Q3. 귀하는 다음의 사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위험하지 않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1)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⑨
2) 자신의 생활방식과 창업의 조화	①	②	③	④	⑤	⑨
3) 자신의 취미/전문지식과 창업의 조화	①	②	③	④	⑤	⑨
4) 주식투자	①	②	③	④	⑤	⑨
5)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⑨
6) 혁신적인 사업 구상	①	②	③	④	⑤	⑨
7) 도박	①	②	③	④	⑤	⑨
8) 대출	①	②	③	④	⑤	⑨
9) 비행기 타기	①	②	③	④	⑤	⑨
10) 학자금 대출	①	②	③	④	⑤	⑨
11) 주택담보 대출	①	②	③	④	⑤	⑨
12) 신용카드 사용	①	②	③	④	⑤	⑨
13) 은행 저축	①	②	③	④	⑤	⑨
14) 자동차 운전	①	②	③	④	⑤	⑨
15) 의약품 복용	①	②	③	④	⑤	⑨
16) 음주	①	②	③	④	⑤	⑨
17) 마약하기	①	②	③	④	⑤	⑨
18) 야간 외출	①	②	③	④	⑤	⑨
19) 낯선 사람과 이야기 하기	①	②	③	④	⑤	⑨
20) 무분별한 성관계	①	②	③	④	⑤	⑨

기업과 정신과 책임감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Q4. 귀하는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 *Q5로 가시오*
② 아니오 ⇒ *Q13으로 가시오*

Q5.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인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긍정적인 편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⑨ 잘 모르겠다.

Q6. 지난 5년 동안을 돌아보았을 때 **귀하의 사업성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⑨ 잘 모르겠다.

Q7. 향후 5년 간에 **귀하의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인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긍정적인 편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⑨ 잘 모르겠다.

Q8. 귀하의 **지난 5년간 사업성과**에 다음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나 자신	①	②	③	④	⑤	⑨
2) 경제적 상황(경기)	①	②	③	④	⑤	⑨
3) 우연적 요소	①	②	③	④	⑤	⑨
4) 주변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⑨

Q9. 귀하는 현재 몇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본인제외)**

① 0명 ② 1~5명 ③ 6~9명
④ 10~19명 ⑤ 20~49명 ⑥ 50~250명
⑦ 251명 이상

Q10. **귀하의 사업체**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농업, 어업, 임엄
② 광업, 채석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증기
⑤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⑳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㉑ 국제 기구 및 외국기관

Q11. 현재 귀하의 사업체는 **귀하가 설립**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12. 귀하의 사업체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_____원)

Q13. 향후 5년 내에 귀하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① 전혀 가능성이 없다
② 거의 가능성이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가능성이 있다
⑤ 매우 가능성이 높다
⑨ 잘 모르겠다.

Q14. 다음은 **창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잘 모르겠다
1)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나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리길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업을 괜찮은 직업선택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5)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⑨
6)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매체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7) 우리사회에서는 창업을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8) 창업은 실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Q15. **개인의 성격은 창업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음의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잘 모르겠다
1) 나는 때때로 위험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나는 낯선 사람과 쉽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쓴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나는 모든 것이 평소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⑨

Q16. 다음은 **창업을 하게 하는 동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사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잘 모르겠다
1) 창업을 하면 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창의력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내 사업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불안정한 소득과 자본 손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할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5) 우리 가족은 내가 창업을 하기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Q17. 다음은 **창업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잘 모르겠다
1) 나는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창업을 하려면 인맥이 좋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창업을 하려면 관료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창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⑨
5)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6) 정보가 충분하다면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7) 사업가는 자유시간이나 휴가를 갖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8)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9) 청년들이 하는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10) 사람들 간의 시기 나 질투가 창업을 저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11)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창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Q18. 다음은 **창업의 위험요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잘 모르겠다
1) 기업가에게는 위기관리가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기업가 자신이 사업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직원들의 불성실은 사업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직원을 잘못 채용하면 사업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5) 의욕적인 직원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6) 사업을 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7) 사업을 할 때 위험부담과 이윤창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8) 정직하게 부도를 낸 사업가는 처벌하지 말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9) 부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Q19. 다음에서 귀하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정규직을 갖는 것 ② 살 집을 갖는 것 ③ 가정을 이루는 것
④ 세계 여행 ⑤ 정치에 참여하는 것 ⑥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
⑦ 풍부한 상식을 갖는 것 ⑧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는 것 ⑨ 멋진 외모를 갖는 것
⑩ 부자가 되는 것 ⑪ 건강

다음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Q20.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중요해졌다는 말을 많이 하는대요, 다음의 사항에 응답해 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1) 귀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⑨
2) 귀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①	②	⑨

Q21. 다음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잘 모르겠다
1)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환경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사람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5)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결국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6)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7)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8)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윤창출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9)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돈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10)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책임보다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11)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사업을 잘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12)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13)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14) 기업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15) 기업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16) 위기상황에서(예, 자연재해 등), 기업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17) 기업은 기업소유자의 이익만 달성하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⑨
18)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19) 도덕과 윤리는 기업의 성공과 사회의 발전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20)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허한 약속일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21)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업가 정신은 기업의 모든 운영방식에 해당된다	①	②	③	④	⑤	⑨
22) 자선과 기부는 기업의 책임있는 운영방식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23)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24)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이익을 가져온다	①	②	③	④	⑤	⑨
25) 공공기관보다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제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DQ1. 귀하의 정확한 주소지를 아래에 써 주십시오.

[ ] 시/도 [ ] 시/군/구 [ ] 읍/면/동

DQ2.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산어촌(읍면지역)? ④ 기타(_____)

DQ3.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나는 나의 보호자(예: 부모, 부 또는 모, 혹은 기타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다. ⇒ ***DQ.4로***

② 나는 가족과 함께 살지 있지 않다. ⇒ ***DQ.4로***

③ 나는 결혼(동거 포함)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는 없다 ⇒ ***DQ.4로***

④ 나는 결혼(동거 포함)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가 있다 ⇒ ***DQ.3-1로***

⑤ 나는 배우자 없이(한 부모 가정) 나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 ***DQ.3-1로***

⑥ 기타 (_____)

⑨ 잘 모르겠다 ⇒ ***DQ.4로***

DQ3-1. **(DQ3의 ④,⑤ 응답자)** 귀하의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DQ4. 귀하의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만약 은퇴하셨다면 은퇴 시 상태를 응답하시면 됩니다)**

① 임금근로자 ② 사업주(농업, 자영업 포함)
③ 일을 하고 있지 않음 ④ 기타 (_____)
⑨ 잘 모르겠다

DQ5. 귀하의 아버지의 취업상태는? **(만약 은퇴하셨다면 은퇴 시 상태를 응답하시면 됩니다)**

① 임금근로자 ② 사업주(농업, 자영업 포함)
③ 일을 하고 있지 않음 ④ 기타 (_____)
⑨ 잘 모르겠다

DQ6. 귀하는 가구를 포함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유하다 ② 소득이 높은 편이다
③ 소득이 평균 정도이다 ④ 소득이 낮은 편이다
⑤ 가난하다

DQ7. 귀하의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중퇴 또는 퇴학은 모두 졸업으로 답해주십시오)**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재학중
③ 2년제 대학(전문대) 졸업/재학중 ④ 4년제 대학 졸업/재학중
⑤ 대학원 졸업/재학중 ⑨ 잘 모르겠다.

DQ8.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사업주(자영업 포함) ② 관리직
③ 전문직 ④ 사무직
⑤ 단순노무 종사자 ⑥ 농부
⑦ 학생 ⑧ 가사
⑨ 현재 직업이 없으나 일을 구하고 있다. ⑩ 현재 직업이 없으나 일을 구하고 있지 않다.
⑪ 기타 (_____) ⑨⑨ 모름/무응답

DQ9. 귀하의 취업 형태는?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DQ.10으로*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DQ.9-1로*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DQ.10으로*
④ 사업주(자영업 포함) ⇒ *DQ.10으로*
⑤ 기타 (_____)
⑥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DQ.12로*

DQ9-1. **(DQ9의 ②응답자)** 귀하의 임시직 계약 기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0~6개월
② 7~12개월
③ 13~18개월
④ 19~24개월
⑤ 24개월 이상

DQ10.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전일제(주당 30시간 이상)
② 시간제(주당 30시간 미만)

DQ11. 귀하가 관리해야 하는 부하직원이 있습니까?

① 있다 ⇒ *DQ.11-1로*
② 없다

DQ11-1. **(DQ11의 ①응답자)** 귀하가 관리해야 하는 부하직원은 몇 명입니까?

① 1~4명
② 5~9명
③ 10~14명
④ 15명 이상

DQ12. 귀하는 지난 5년간 실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실업을 한 적이 없다 ⇒ *DQ.13으로*
② 실업을 한 적이 있다 ⇒ *DQ.12-1로*

DQ12-1. **(DQ12의 ①응답자)** 지난 5년간 귀하가 실업 상태였던 기간을 모두 합하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0-6개월　② 7-12개월
③ 13-24개월　④ 24개월 이상

DQ13. 귀하의 종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이슬람교　⑤ 기타 (_____)　⑥ 종교가 없음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부록표

부록표-1 가치관의 중요도 비교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행복	M(SD)	4.67(.632)	4.82(.402)	4.61(.620)	4.77(.464)
	t	−4.375***		−4.518***	
가족의 안전	M(SD)	4.64(.657)	4.77(.455)	4.48(.766)	4.70(.599)
	t	−3.603***		−4.963***	
건강	M(SD)	4.63(.687)	4.74(.483)	4.53(.672)	4.69(.527)
	t	−3.005**		−4.151***	
즐거움	M(SD)	4.61(.644)	4.69(.491)	4.10(.681)	4.23(.596)
	t	−2.255*		−3.318**	
자유	M(SD)	4.52(.650)	4.59(.536)	4.56(.587)	4.48(.605)
	t	−1.855		1.957	
인생을 즐기는 것	M(SD)	4.49(.724)	4.61(.574)	4.36(.715)	4.54(.585)
	t	−2.858**		−4.241***	
책임감	M(SD)	4.50(.674)	4.54(.563)	3.89(.834)	4.16(.719)
	t	−1.111		−5.534***	
사랑	M(SD)	4.51(.730)	4.47(.673)	4.35(.826)	4.71(.596)
	t	0.823		−7.756***	
자기존중	M(SD)	4.37(.760)	4.62(.561)	4.25(.740)	4.45(.619)
	t	−5.886***		−4.714***	
신의	M(SD)	4.42(.721)	4.49(.621)	4.34(.903)	4.52(.840)
	t	−1.677		−3.305**	
사람간의 평등	M(SD)	4.38(.796)	4.48(.592)	4.17(.897)	4.66(.576)
	t	−2.261*		−9.902***	
자유시간	M(SD)	4.39(.688)	4.41(.554)	4.47(.654)	4.55(.570)
	t	−0.467		−2.039*	
인생의 의미	M(SD)	4.34(.809)	4.38(.691)	3.44(1.086)	3.71(.905)
	t	−0.718		−4.219***	
마음의 평정	M(SD)	4.34(.675)	4.38(.624)	4.30(.762)	4.59(.551)
	t	−1.139		−6.642***	
지혜	M(SD)	4.33(.700)	4.35(.584)	4.03(.763)	3.87(.723)
	t	−0.585		3.482**	
정직	M(SD)	4.28(.789)	4.30(.659)	4.44(.648)	4.62(.577)
	t	−0.420		−4.561***	
용기	M(SD)	4.30(.700)	4.24(.657)	3.69(.757)	3.81(.662)
	t	1.332		−2.556*	
돈	M(SD)	4.18(.814)	4.29(.683)	3.43(.951)	3.50(.796)
	t	−2.211*		−1.287	

구분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흥미진진한 생활	M(SD)	4.26(.770)	4.21(.720)	3.28(.889)	3.22(.838)
	t	1.123		1.229	
효율성	M(SD)	4.25(.712)	4.21(.586)	3.43(.880)	3.35(.800)
	t	0.849		1.414	
정의	M(SD)	4.22(.767)	4.22(.660)	4.49(.693)	4.66(.557)
	t	0.149		−4.330***	
환경보호	M(SD)	4.11(.813)	4.28(.689)	3.69(1.006)	3.98(.850)
	t	−3.458**		−4.881***	
창의성	M(SD)	4.27(.772)	4.04(.738)	3.69(.953)	3.65(.900)
	t	4.906***		0.669	
성공	M(SD)	4.18(.899)	4.12(.769)	3.45(.984)	3.40(.848)
	t	1.053		0.867	
독립심	M(SD)	4.08(.773)	4.15(.647)	3.79(.895)	3.78(.810)
	t	−1.523		0.221	
의무감	M(SD)	4.13(.790)	4.08(.728)	3.87(.843)	3.82(.815)
	t	1.035		0.992	
일	M(SD)	4.04(.760)	4.12(.608)	3.70(.904)	3.83(.768)
	t	−1.943		−2.404*	
관용	M(SD)	4.07(.741)	4.08(.658)	3.90(.938)	4.35(.696)
	t	−0.154		−8.574***	
물질적 풍요	M(SD)	3.96(.878)	4.06(.705)	3.33(.925)	3.27(.823)
	t	−2.040*		1.050	
부자가 되는 것	M(SD)	3.86(.938)	3.89(.874)	3.05(1.018)	2.99(.896)
	t	−0.596		1.057	
사회적 명성	M(SD)	3.74(.878)	3.72(.768)	2.78(.998)	2.72(.896)
	t	0.267		1.082	
야망	M(SD)	3.74(.899)	3.64(.808)	3.21(1.010)	3.27(.923)
	t	2.006*		−0.876	
높은 사회적 지위	M(SD)	3.56(.981)	3.51(.876)	2.86(.988)	2.75(.852)
	t	0.955		1.827	
권위	M(SD)	3.42(.976)	3.36(.862)	2.93(.950)	2.94(.801)
	t	0.991		−0.198	

* p<.05 ** p<.01 *** p<.001

부록표-2 가치관의 중요도 비교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행복	M(SD)	4.65 (.662)	4.74 (.519)	4.77 (.527)	4.75 (.458)	4.73 (.478)	4.65 (.608)
	F(scheffe)	2.265(하>중>상)			3.124*(상>중>하)		
가족의 안전	M(SD)	4.72 (.574)	4.72 (.556)	4.68 (.590)	4.66 (.699)	4.69 (.555)	4.51 (.777)
	F(scheffe)	0.519(중>상>하)			8.361***(중>상>하)		
건강	M(SD)	4.60 (.700)	4.71 (.578)	4.67 (.600)	4.70 (.577)	4.73 (.512)	4.51 (.657)
	F(scheffe)	1.594(중>하>상)			16.470***(중>상>하)		
즐거움	M(SD)	4.54 (.612)	4.69 (.537)	4.61 (.608)	4.23 (.702)	4.19 (.607)	4.16 (.649)
	F(scheffe)	4.035*(중>하>상)			0.662(상>중>하)		
자유	M(SD)	4.52 (.644)	4.55 (.578)	4.56 (.612)	4.54 (.670)	4.52 (.591)	4.51 (.592)
	F(scheffe)	0.167(하>중>상)			0.151(상>중>하)		
인생을 즐기는 것	M(SD)	4.59 (.602)	4.56 (.648)	4.51 (.685)	4.52 (.592)	4.49 (.621)	4.43 (.683)
	F(scheffe)	0.831(상>중>하)			1.301(상>중>하)		
책임감	M(SD)	4.51 (.608)	4.52 (.612)	4.52 (.643)	3.99 (.854)	4.12 (.734)	3.99 (.803)
	F(scheffe)	0.008(하>중>상)			3.655*(중>상>하)		
사랑	M(SD)	4.56 (.669)	4.46 (.662)	4.51 (.757)	4.60 (.618)	4.61 (.666)	4.50 (.791)
	F(scheffe)	1.146(상>하>중)			3.370*(중>상>하)		
자기존중	M(SD)	4.47 (.682)	4.48 (.649)	4.51 (.722)	4.32 (.660)	4.41 (.618)	4.34 (.737)
	F(scheffe)	0.217(하>중>상)			1.677(중>하>상)		
신의	M(SD)	4.35 (.642)	4.47 (.667)	4.46 (.693)	4.49 (.853)	4.51 (.780)	4.37 (.956)
	F(scheffe)	1.274(중>하>상)			3.026*(중>상>하)		
사람간의 평등	M(SD)	4.36 (.761)	4.41 (.734)	4.46 (.662)	4.36 (.803)	4.48 (.736)	4.45 (.779)
	F(scheffe)	1.110(하>중>상)			1.122(중>하>상)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자유시간	M(SD)	4.44 (.594)	4.39 (.606)	4.40 (.660)	4.55 (.591)	4.56 (.563)	4.45 (.649)
	F(scheffe)	0.269(상>하>중)			4.366*(중>상>하)		
인생의 의미	M(SD)	4.16 (.863)	4.39 (.702)	4.38 (.779)	3.59 (1.018)	3.62 (.950)	3.58 (1.029)
	F(scheffe)	4.245*(중>하>상)			0.247(중>상>하)		
마음의 평정	M(SD)	4.23 (.666)	4.33 (.641)	4.42 (.653)	4.54 (.653)	4.46 (.644)	4.47 (.679)
	F(scheffe)	4.898**(하>중>상)			0.718(상>하>중)		
지혜	M(SD)	4.41 (.603)	4.36 (.625)	4.30 (.681)	4.04 (.770)	3.90 (.721)	3.95 (.760)
	F(scheffe)	1.526(상>중>하)			1.724(상>하>중)		
정직	M(SD)	4.22 (.706)	4.29 (.722)	4.32 (.744)	4.50 (.684)	4.58 (.552)	4.52 (.654)
	F(scheffe)	0.794(하>중>상)			1.857(중>하>상)		
용기	M(SD)	4.28 (.665)	4.25 (.669)	4.29 (.697)	3.82 (.751)	3.78 (.674)	3.73 (.724)
	F(scheffe)	0.535(하>상>중)			0.788(상>중>하)		
돈	M(SD)	4.26 (.772)	4.24 (.697)	4.22 (.818)	3.47 (.955)	3.58 (.763)	3.36 (.926)
	F(scheffe)	0.214(상>중>하)			7.676***(중>상>하)		
흥미진진한 생활	M(SD)	4.26 (.744)	4.19 (.730)	4.27 (.765)	3.34 (1.010)	3.25 (.822)	3.21 (.861)
	F(scheffe)	1.445(하>상>중)			0.974(상>중>하)		
효율성	M(SD)	4.30 (.622)	4.24 (.630)	4.21 (.690)	3.58 (.835)	3.44 (.809)	3.27 (.846)
	F(scheffe)	0.837(상>중>하)			8.160***(상>중>하)		
정의	M(SD)	4.12 (.693)	4.21 (.696)	4.26 (.747)	4.50 (.743)	4.63 (.577)	4.57 (.636)
	F(scheffe)	1.515(하>중>상)			2.397(중>하>상)		
환경보호	M(SD)	4.00 (.828)	4.24 (.703)	4.18 (.800)	3.88 (.953)	3.84 (.895)	3.88 (.956)
	F(scheffe)	4.172*(중>하>상)			0.209(상>하>중)		
창의성	M(SD)	4.15 (.829)	4.16 (.731)	4.16 (.788)	3.69 (.929)	3.63 (.916)	3.70 (.926)
	F(scheffe)	0.024(중>하>상)			0.715(하>상>중)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성공	M(SD)	4.23 (.806)	4.18 (.781)	4.11 (.909)	3.74 (.911)	3.49 (.867)	3.28 (.918)
	F(scheffe)	1.203(상>중>하)			13.948***(상>중>하)		
독립심	M(SD)	4.16 (.715)	4.15 (.691)	4.05 (.742)	3.82 (.947)	3.78 (.828)	3.77 (.843)
	F(scheffe)	2.444(상>중>하)			0.118(상>중>하)		
의무감	M(SD)	4.04 (.805)	4.11 (.720)	4.11 (.797)	3.76 (.967)	3.92 (.760)	3.77 (.852)
	F(scheffe)	0.408(중>하>상)			4.637*(중>하>상)		
일	M(SD)	4.04 (.835)	4.10 (.634)	4.06 (.721)	3.85 (.853)	3.90 (.726)	3.63 (.899)
	F(scheffe)	0.557(중>하>상)			13.040***(중>상>하)		
관용	M(SD)	4.11 (.769)	4.07 (.685)	4.06 (.706)	4.19 (.768)	4.12 (.830)	4.21 (.851)
	F(scheffe)	0.185(상>중>하)			1.358(하>상>중)		
물질적 풍요	M(SD)	4.09 (.739)	4.00 (.793)	4.00 (.826)	3.36 (1.044)	3.32 (.795)	3.24 (.895)
	F(scheffe)	0.560(상>하>중)			1.440(상>중>하)		
부자가 되는 것	M(SD)	4.04 (.910)	3.89 (.848)	3.82 (.970)	3.07 (1.074)	3.10 (.870)	2.91 (.988)
	F(scheffe)	2.557(상>중>하)			5.081**(중>상>하)		
사회적 명성	M(SD)	3.97 (.808)	3.77 (.770)	3.62 (.879)	2.93 (1.080)	2.76 (.879)	2.69 (.966)
	F(scheffe)	8.860***(상>중>하)			2.604(상>중>하)		
야망	M(SD)	3.82 (.886)	3.67 (.818)	3.69 (.896)	3.44 (1.086)	3.32 (.897)	3.13 (.981)
	F(scheffe)	1.261(상>하>중)			6.994**(상>중>하)		
높은 사회적 지위	M(SD)	3.84 (.983)	3.54 (.874)	3.46 (.972)	2.91 (1.085)	2.84 (.884)	2.71 (.896)
	F(scheffe)	6.882**(상>중>하)			3.216*(상>중>하)		
권위	M(SD)	3.55 (.954)	3.37 (.891)	3.37 (.951)	3.12 (1.046)	2.97 (.840)	2.86 (.839)
	F(scheffe)	1.721(상>하>중)			4.411*(상>중>하)		

* p<.05 ** p<.01 *** p<.001

부록표-3 불확실성 ·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취업	M(SD)	3.92(1.154)	4.04(1.076)	2.74(1.121)	2.99(1.172)
	t	−1.655		−3.440**	
외모 중시 풍조	M(SD)	3.79(1.065)	4.10(.953)	2.40(1.126)	3.00(1.071)
	t	−4.878***		−8.590***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	M(SD)	3.72(1.109)	3.98(.989)	2.53(1.122)	3.19(1.055)
	t	−3.881***		−9.603***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M(SD)	3.71(1.010)	3.85(0.924)	2.86(1.082)	3.17(1.002)
	t	−2.385*		−4.623***	
인구의 노령화	M(SD)	3.63(1.012)	3.80(1.002)	2.42(1.019)	2.56(.945)
	t	−2.609**		−2.278*	
자연재해	M(SD)	3.50(1.121)	3.80(1.058)	2.10(.953)	2.71(.979)
	t	−4.363***		−10.015***	
생활방식에 따른 질병의 증가	M(SD)	3.51(1.084)	3.79(1.038)	2.27(1.000)	2.54(.920)
	t	−4.058***		−4.584***	
우리 사회	M(SD)	3.53(1.066)	3.70(1.087)	2.48(1.017)	2.38(.882)
	t	−2.594*		1.598	
유행하는 질병	M(SD)	3.47(1.099)	3.76(1.015)	1.89(.781)	2.30(.866)
	t	−4.389***		−8.153***	
개인소득	M(SD)	3.53(1.082)	3.49(1.061)	2.71(1.075)	2.92(1.052)
	t	0.622		−3.172**	
포르노물	M(SD)	3.33(1.179)	3.70(1.090)	1.45(.734)	2.07(1.041)
	t	−5.109***		−11.204***	
나의 인생	M(SD)	3.47(1.084)	3.47(1.087)	2.56(1.017)	2.67(.920)
	t	0.033		−1.739	
국제 정치 상황	M(SD)	3.37(1.097)	3.48(1.120)	2.69(1.012)	2.84(.945)
	t	−1.534		−2.334*	
TV와 폭력물	M(SD)	3.17(1.139)	3.57(1.040)	1.61(.854)	2.22(1.022)
	t	−5.742***		−10.408***	
일상생활의 상업화	M(SD)	3.30(1.092)	3.32(.981)	2.55(1.172)	2.68(1.046)
	t	−0.340		−1.770	
국제화	M(SD)	3.27(1.069)	3.31(1.045)	2.32(1.150)	2.17(.954)
	t	−0.624		2.177*	

구분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국제 테러	M(SD)	3.14(1.152)	3.33(1.055)	2.11(.980)	2.73(1.027)
	t	−2.632**		−9.966***	
인간관계	M(SD)	3.17(1.133)	3.23(1.103)	2.50(1.119)	2.52(1.035)
	t	−0.819		−0.255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	M(SD)	3.15(1.119)	3.11(1.092)	2.32(.874)	2.60(.907)
	t	0.494		−4.925***	
유전공학 기술	M(SD)	2.97(1.098)	3.10(1.003)	1.89(1.027)	2.27(.995)
	t	−1.905		−5.891***	
주거환경의 안전	M(SD)	2.99(1.184)	3.03(1.158)	1.79(.832)	1.98(.798)
	t	−0.465		−3.595***	
마약 밀매	M(SD)	2.89(1.357)	3.11(1.331)	2.60(1.120)	3.10(1.150)
	t	−2.580*		−6.963***	
원자력발전소 건설	M(SD)	2.88(1.173)	3.04(1.095)	1.96(1.174)	2.88(1.234)
	t	−2.171*		−11.927***	
세계 인구 증가	M(SD)	2.95(1.153)	2.91(1.040)	2.83(1.177)	2.78(1.091)
	t	0.555		0.728	
내가 사는 지역	M(SD)	2.84(1.144)	2.86(1.102)	1.96(.867)	2.03(.844)
	t	−0.373		−1.346	
우리나라에 이민 온 사람의 수	M(SD)	2.67(1.172)	2.79(1.129)	2.75(1.341)	2.54(1.210)
	t	−1.680		2.585*	

* p<.05 ** p<.01 *** p<.001

부록표-4 불확실성 ·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취업	M(SD)	3.77 (1.180)	3.88 (1.163)	4.14 (1.027)	2.89 (1.157)	2.19 (1.051)	2.60 (1.042)
	F(scheffe)	8.363***(하>중>상)			81.002***(하>중>상)		
외모 중시 풍조	M(SD)	3.93 (1.129)	3.83 (1.032)	4.07 (.973)	2.75 (1.133)	2.33 (1.106)	2.66 (1.087)
	F(scheffe)	6.262**(하>상>중)			15.074***(하>중>상)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	M(SD)	3.80 (1.081)	3.78 (1.070)	3.94 (1.041)	2.92 (1.131)	2.72 (1.047)	2.85 (1.074)
	F(scheffe)	2.464(하>상>중)			5.309**(하>중>상)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과 태도	M(SD)	3.72 (1.034)	3.68 (.972)	3.92 (.942)	3.04 (1.046)	2.78 (1.065)	2.89 (.998)
	F(scheffe)	7.089**(하>상>중)			19.065***(하>중>상)		
인구의 노령화	M(SD)	3.65 (1.133)	3.65 (1.009)	3.80 (.973)	2.50 (.978)	2.37 (1.069)	2.50 (.981)
	F(scheffe)	2.763(하>상>중)			1.201(하>중>상)		
자연재해	M(SD)	3.68 (1.078)	3.55 (1.128)	3.75 (1.066)	2.46 (1.013)	2.47 (.986)	2.43 (.983)
	F(scheffe)	3.891*(하>상>중)			0.225(하>상>중)		
생활방식에 따른 질병의 증가	M(SD)	3.51 (1.210)	3.58 (1.075)	3.75 (1.019)	2.43 (.962)	2.30 (1.015)	2.40 (.935)
	F(scheffe)	3.817*(하>중>상)			2.118(하>중>상)		
우리 사회	M(SD)	3.51 (1.137)	3.52 (1.074)	3.74 (1.060)	2.42 (.941)	2.30 (.920)	2.37 (.887)
	F(scheffe)	5.257**(하>중>상)			3.502*(하>중>상)		
유행하는 질병	M(SD)	3.45 (1.145)	3.60 (1.036)	3.66 (1.086)	2.13 (.857)	1.97 (.861)	2.14 (.831)
	F(scheffe)	1.529(하>중>상)			2.048(하>중>상)		
개인소득	M(SD)	3.25 (1.094)	3.37 (1.047)	3.74 (1.054)	2.84 (1.066)	1.90 (.862)	2.58 (.905)
	F(scheffe)	16.884***(하>중>상)			123.199***(하>중>상)		
포르노물	M(SD)	3.54 (1.236)	3.44 (1.121)	3.56 (1.166)	1.81 (.974)	1.76 (1.051)	1.80 (.923)
	F(scheffe)	1.263(하>상>중)			0.234(하>중>상)		
나의 인생	M(SD)	3.09 (1.150)	3.43 (1.077)	3.61 (1.054)	2.63 (.962)	2.39 (1.036)	2.45 (.851)
	F(scheffe)	10.100***(하>중>상)			27.751***(하>중>상)		
국제 정치 상황	M(SD)	3.31 (1.141)	3.38 (1.090)	3.51 (1.119)	2.78 (.976)	2.69 (1.022)	2.75 (.924)
	F(scheffe)	2.146(하>중>상)			1.033(하>중>상)		
TV와 폭력물	M(SD)	3.32 (1.194)	3.37 (1.073)	3.37 (1.133)	1.97 (1.002)	1.91 (1.078)	2.01 (.989)
	F(scheffe)	0.076(하=중>상)			0.584(중>하>상)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일상생활의 상업화	M(SD)	3.19 (1.107)	3.24 (1.064)	3.41 (.987)	2.62 (1.102)	2.41 (1.116)	2.56 (1.072)
	F(scheffe)	3.635*(하>중>상)			4.683**(하>중>상)		
국제화	M(SD)	3.11 (1.160)	3.24 (1.055)	3.39 (1.026)	2.23 (1.043)	2.11 (1.050)	2.22 (1.043)
	F(scheffe)	3.630*(하>중>상)			1.055(하>중>상)		
국제 테러	M(SD)	3.02 (1.168)	3.23 (1.085)	3.28 (1.122)	2.47 (1.054)	2.37 (1.084)	2.50 (1.036)
	F(scheffe)	2.171(하>중>상)			0.703(중>하>상)		
인간관계	M(SD)	2.90 (1.160)	3.17 (1.096)	3.30 (1.122)	2.51 (1.070)	2.21 (1.018)	2.39 (1.005)
	F(scheffe)	5.687**(하>중>상)			15.420***(하>중>상)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	M(SD)	2.78 (1.158)	3.08 (1.108)	3.29 (1.064)	2.48 (.903)	2.39 (.959)	2.45 (.869)
	F(scheffe)	10.175***(하>중>상)			1.734(하>중>상)		
유전공학 기술	M(SD)	3.04 (1.143)	2.99 (1.019)	3.08 (1.077)	2.11 (1.026)	1.98 (1.027)	2.10 (1.004)
	F(scheffe)	0.831(하>상>중)			1.137(하>중>상)		
주거환경의 안전	M(SD)	2.64 (1.205)	2.92 (1.188)	3.21 (1.106)	1.90 (.817)	1.60 (.735)	1.90 (.804)
	F(scheffe)	13.350***(하>중>상)			8.992***(하>중>상)		
마약 밀매	M(SD)	3.01 (1.372)	2.99 (1.323)	3.00 (1.376)	2.90 (1.163)	2.76 (1.159)	2.94 (1.100)
	F(scheffe)	0.014(상>하>중)			1.144(중>하>상)		
원자력발전소 건설	M(SD)	2.87 (1.214)	2.93 (1.101)	3.00 (1.165)	2.49 (1.290)	2.13 (1.204)	2.37 (1.208)
	F(scheffe)	0.621(하>중>상)			10.782***(하>중>상)		
세계 인구 증가	M(SD)	2.91 (1.249)	2.90 (1.086)	2.98 (1.078)	2.80 (1.128)	2.73 (1.171)	2.77 (1.111)
	F(scheffe)	0.504(하>상>중)			0.817(하>중>상)		
내가 사는 지역	M(SD)	2.67 (1.154)	2.75 (1.143)	3.02 (1.074)	2.00 (.854)	1.82 (.849)	2.01 (.843)
	F(scheffe)	7.998***(하>중>상)			2.543(하>중>상)		
우리나라에 이민 온 사람의 수	M(SD)	2.72 (1.199)	2.72 (1.135)	2.74 (1.165)	2.62 (1.269)	2.43 (1.153)	2.68 (1.210)
	F(scheffe)	0.047(하>중>상)			1.667(중>하>상)		

* p<.05 ** p<.01 *** p<.001

부록표-5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위험도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마약하기	M(SD)	4.51(.890)	4.77(.533)	4.05(1.113)	4.43(.877)
	t	−5.579***		−5.924***	
도박	M(SD)	4.46(.933)	4.77(.551)	3.39(1.223)	3.36(1.134)
	t	−6.353***		0.371	
대출	M(SD)	4.20(.925)	4.49(.740)	3.68(1.043)	3.78(.958)
	t	−5.568***		−1.600	
무분별한 성관계	M(SD)	3.70(1.036)	4.46(.674)	2.72(1.034)	3.40(1.036)
	t	−13.870***		−10.405***	
주식투자	M(SD)	3.77(.996)	3.97(.858)	3.30(.874)	3.46(.853)
	t	−3.411**		−2.957**	
주택담보 대출	M(SD)	3.65(1.032)	3.78(.931)	2.85(.915)	2.97(.867)
	t	−2.106*		−2.041*	
신용카드 사용	M(SD)	3.38(1.048)	3.51(.952)	3.57(1.041)	3.78(.967)
	t	−2.028*		−3.134**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M(SD)	3.39(.947)	3.45(.812)	3.74(.844)	3.86(.828)
	t	−1.168		−2.186*	
학자금 대출	M(SD)	3.22(1.040)	3.25(1.005)	2.29(1.053)	2.38(.938)
	t	−0.514		−1.442	
음주	M(SD)	3.17(.974)	3.19(.887)	2.67(1.057)	2.91(1.026)
	t	−0.363		−3.597***	
현재 나의 생활방식과 창업의 조화	M(SD)	3.09(.949)	3.19(.847)	3.15(.937)	3.24(.893)
	t	−1.728		−1.464	
야간 외출	M(SD)	2.66(1.030)	3.48(.909)	1.76(.744)	2.16(.799)
	t	−13.420***		−8.107***	
의약품 복용	M(SD)	3.04(.935)	3.04(.827)	2.23(.850)	2.40(.842)
	t	0.017		−3.194**	
자동차 운전	M(SD)	2.88(.988)	3.11(.927)	2.11(.770)	2.37(.718)
	t	−3.795***		−5.625***	
내가 갖고 있는 취미나 지식을 사용하여 창업 하는 것	M(SD)	2.88(1.036)	2.95(.969)	2.88(.946)	3.09(.932)
	t	−1.136		−3.371**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	M(SD)	2.64(.931)	3.23(.890)	1.66(.693)	2.00(.732)
	t	−10.248***		−7.766***	
혁신적인 사업 구상	M(SD)	2.81(1.035)	2.86(.934)	2.71(.910)	3.09(.921)
	t	−0.695		−5.905***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는 것	M(SD)	2.45(1.041)	2.26(.916)	2.43(.892)	2.45(.896)
	t	3.143**		−0.355	
비행기 타기	M(SD)	2.18(1.079)	2.12(.959)	1.78(.756)	2.14(.769)
	t	−0.943		−7.344***	
은행 저축	M(SD)	2.02(1.015)	1.94(.843)	1.68(.691)	1.72(.707)
	t	1.335		−0.944	

* p<.05 ** p<.01 *** p<.001

부록표-6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위험도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마약하기	M (SD)	4.42 (.957)	4.67 (.718)	4.65 (.725)	4.15 (1.033)	4.37 (.925)	4.20 (1.054)
	F(scheffe)	4.839** (중>하>상)			4.344*(중>하>상)		
도박	M (SD)	4.54 (.875)	4.62 (.757)	4.61 (.802)	3.51 (1.163)	3.37 (1.166)	3.35 (1.178)
	F(scheffe)	0.474(중>하>상)			0.872(상>중>하)		
대출	M (SD)	4.34 (.854)	4.31 (.854)	4.38 (.854)	3.76 (.976)	3.71 (1.011)	3.76 (.983)
	F(scheffe)	0.731(하>상>중)			0.264(상>하>중)		
무분별한 성관계	M (SD)	3.92 (1.149)	4.09 (.911)	4.07 (.962)	3.08 (1.192)	3.14 (1.050)	3.12 (1.105)
	F(scheffe)	1.346(중>하>상)			0.106(중>하>상)		
주식투자	M (SD)	3.83 (1.042)	3.82 (.907)	3.93 (.945)	3.24 (.905)	3.39 (.855)	3.44 (.865)
	F(scheffe)	1.675(하>상>중)			2.020(하>중>상)		
주택담보 대출	M (SD)	3.66 (1.016)	3.65 (.967)	3.79 (.998)	2.56 (.888)	2.82 (.849)	3.11 (.888)
	F(scheffe)	2.522(하>상>중)			22.968***(하>중>상)		
신용카드 사용	M (SD)	3.47 (.919)	3.34 (1.014)	3.56 (1.003)	3.47 (1.028)	3.61 (.982)	3.82 (1.005)
	F(scheffe)	5.505**(하>상>중)			7.561**(하>중>상)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M (SD)	3.37 (1.009)	3.39 (.822)	3.46 (.926)	3.61 (.815)	3.82 (.807)	3.85 (.865)
	F(scheffe)	0.752(하>중>상)			3.382*(하>중>상)		
학자금 대출	M (SD)	3.30 (1.101)	3.12 (.958)	3.35 (1.064)	2.16 (.929)	2.24 (.957)	2.48 (1.013)
	F(scheffe)	5.897**(하>상>중)			8.526***(하>중>상)		
음주	M (SD)	2.97 (.888)	3.18 (.912)	3.23 (.963)	2.79 (1.089)	2.77 (1.017)	2.86 (1.064)
	F(scheffe)	3.130*(하>중>상)			0.872(하>상>중)		
현재 나의 생활방식과 창업의 조화	M (SD)	3.12 (.977)	3.10 (.864)	3.18 (.928)	3.09 (.990)	3.17 (.883)	3.27 (.923)
	F(scheffe)	0.876(하>상>중)			2.158(하>중>상)		
야간 외출	M (SD)	2.97 (1.106)	3.04 (1.036)	3.10 (1.067)	1.92 (.792)	1.99 (.765)	2.02 (.838)
	F(scheffe)	0.698(하>중>상)			0.620(하>중>상)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의약품 복용	M (SD)	2.97 (.895)	3.06 (.881)	3.03 (.886)	2.25 (.817)	2.30 (.834)	2.38 (.870)
	F(scheffe)	0.482(중>하>상)			1.428(하>중>상)		
자동차 운전	M (SD)	2.99 (.898)	2.96 (.959)	3.02 (.989)	2.26 (.843)	2.22 (.725)	2.30 (.755)
	F(scheffe)	0.518(하>상>중)			1.413(하>상>중)		
내가 갖고 있는 취미나 지식을 사용하여 창업 하는 것	M (SD)	2.91 (1.004)	2.87 (1.000)	2.98 (1.010)	2.78 (.920)	3.02 (.925)	3.03 (.963)
	F(scheffe)	1.229(하>상>중)			2.866(하>중>상)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	M (SD)	2.82 (1.057)	2.92 (.948)	2.94 (.944)	1.69 (.718)	1.86 (.685)	1.90 (.786)
	F(scheffe)	0.644(하>중>상)			3.345*(하>중>상)		
혁신적인 사업 구상	M (SD)	2.79 (1.162)	2.37 (.960)	2.36 (1.005)	2.90 (1.014)	2.95 (.869)	2.88 (.980)
	F(scheffe)	0.177(하>중>상)			0.446(중>상>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는 것	M (SD)	2.30 (1.052)	2.37 (.960)	2.36 (1.005)	2.33 (.956)	2.48 (.893)	2.42 (.881)
	F(scheffe)	0.186(중>하>상)			1.261(중>하>상)		
비행기 타기	M (SD)	2.11 (1.135)	2.09 (.965)	2.23 (1.057)	1.93 (.787)	1.93 (.714)	2.07 (.845)
	F(scheffe)	2.338(하>상>중)			3.792*(하>상=중)		
은행 저축	M (SD)	2.18 (1.084)	1.92 (.899)	2.00 (.936)	1.52 (.647)	1.63 (.665)	1.82 (.731)
	F(scheffe)	3.481*(상>하>중)			12.191***(하>중>상)		

* p<.05 ** p<.01 *** p<.001

부록표-7 창업을 하게 하는 동기(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경제수준			경제수준		
		상	중	하	상	중	하
창업을 하면 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M (SD)	3.63 (.981)	3.52 (.914)	3.55 (1.010)	3.83 (.980)	3.87 (.838)	3.82 (.884)
	t/F (scheffe)	0.591 (상>하>중)			0.448 (중>상>하)		
창업을 하면 나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M (SD)	3.74 (.906)	3.65 (.924)	3.60 (1.024)	3.84 (.756)	3.90 (.816)	3.89 (.866)
	t/F (scheffe)	0.879 (상>중>하)			0.231 (중>하>상)		
내 사업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M (SD)	3.32 (1.113)	3.31 (1.067)	3.27 (1.097)	3.95 (.988)	3.95 (.973)	3.97 (.934)
	t/F (scheffe)	0.158 (상>중>하)			0.059 (하>중>상)		
불안정한 소득과 자본 손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할만하다	M (SD)	3.01 (1.102)	2.86 (1.040)	2.79 (1.049)	2.75 (1.118)	2.66 (.948)	2.60 (.958)
	t/F (scheffe)	1.743 (상>중>하)			0.966 (상>중>하)		
우리 가족은 내가 창업을 하기 원한다	M (SD)	2.54 (1.221)	2.17 (1.041)	2.12 (1.022)	1.68 (1.039)	1.72 (.999)	1.60 (.903)
	t/F (scheffe)	6.701** (상>중>하)			1.783 (중>상>하)		

* p<.05 ** p<.01 *** p<.001

부록표-8 창업의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경제수준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기업가에게는 위기관리가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이다	M (SD)	4.07 (.791)	4.15 (.889)	4.13 (.827)	3.98 (.652)	4.07 (.703)	4.03 (.694)
	F(scheffe)	0.424(중>하>상)			0.726(중>하>상)		
기업가 자신이 사업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M (SD)	3.92 (.804)	3.93 (.818)	3.91 (.785)	3.39 (1.103)	3.46 (.891)	3.39 (.934)
	F(scheffe)	0.081(중>상>하)			0.764(중>상>하)		
직원들의 불성실은 사업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M (SD)	4.18 (.735)	4.23 (.775)	4.16 (.808)	3.88 (.886)	3.98 (.824)	3.89 (.874)
	F(scheffe)	0.784(중>상>하)			1.453(중>하>상)		
직원을 잘못 채용하면 사업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M (SD)	4.04 (.847)	4.19 (.759)	4.14 (.819)	4.15 (.649)	4.15 (.720)	4.04 (.760)
	F(scheffe)	1.715(중>하>상)			2.483(상=중>하)		
의욕적인 직원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한다	M (SD)	3.98 (.922)	4.00 (.895)	4.06 (.875)	4.54 (.577)	4.53 (.627)	4.50 (.676)
	F(scheffe)	0.582(하>중>상)			0.190(상>중>하)		
사업을 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M (SD)	3.86 (.861)	4.01 (.772)	4.01 (.831)	4.35 (.654)	4.20 (.692)	4.18 (.711)
	F(scheffe)	1.679(중>하>상)			2.425(상>중>하)		
사업을 할 때 위험부담과 이윤창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M (SD)	3.85 (.781)	3.94 (.863)	3.99 (.834)	3.75 (.778)	3.85 (.744)	3.92 (.789)
	F(scheffe)	1.247(하>중>상)			2.040(하>중>상)		
정직하게 부도를 낸 사업가는 처벌하지 말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M (SD)	3.59 (1.003)	3.61 (.972)	3.69 (.984)	3.85 (1.084)	3.95 (.884)	3.99 (.897)
	F(scheffe)	0.922(하>중>상)			0.876(하>중>상)		
부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한다	M (SD)	3.82 (.906)	3.96 (.802)	3.99 (.830)	3.58 (1.072)	3.66 (.954)	3.82 (.959)
	F(scheffe)	1.816(하>중>상)			3.608*(하>중>상)		

* p<.05 ** p<.01 *** p<.001

부록표-9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의 성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환경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M (SD)	3.89 (.934)	4.22 (.747)	4.03 (.962)	4.12 (.898)
	t	−6.307***		−1.499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M (SD)	3.89 (1.006)	4.11 (.826)	3.60 (1.044)	3.84 (.864)
	t	−3.671***		−3.746***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사람들의 행복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M (SD)	3.94 (.905)	4.04 (.762)	4.20 (.926)	4.28 (.770)
	t	−1.932		−1.418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	M (SD)	3.82 (.850)	3.93 (.769)	3.65 (.962)	3.98 (.791)
	t	−1.983*		−5.381***	
위기상황에서(예, 자연재해 등), 기업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M (SD)	3.78 (.959)	3.78 (.985)	3.94 (.965)	4.04 (.787)
	t	0.050		−1.651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면 결국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M (SD)	3.71 (.993)	3.84 (.894)	3.64 (1.006)	3.88 (.837)
	t	−2.191*		−3.728***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M (SD)	3.72 (.952)	3.81 (.827)	3.65 (1.026)	3.84 (.905)
	t	−1.654		−2.967**	
자선과 기부는 기업의 책임있는 운영방식이다	M (SD)	3.65 (.950)	3.77 (.796)	2.67 (1.081)	2.98 (1.047)
	t	−2.259*		−4.443***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업가 정신은 기업의 모든 운영방식에 해당된다	M (SD)	3.65 (.908)	3.69 (.840)	3.51 (.861)	3.77 (.728)
	t	−0.636		−4.672***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이익을 가져온다	M (SD)	3.59 (.935)	3.73 (.849)	3.26 (1.084)	3.58 (.912)
	t	−2.356*		−4.590***	
공공기관보다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제공할 수 있다	M (SD)	3.52 (.994)	3.65 (.905)	3.26 (1.073)	3.40 (.861)
	t	−2.149*		−2.060*	
도덕과 윤리는 기업의 성공과 사회의 발전을 보장한다	M (SD)	3.54 (1.007)	3.60 (.905)	3.28 (1.068)	3.39 (.910)
	t	−0.866		−1.613	

구분		한국		핀란드	
		남	여	남	여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M (SD)	3.51 (1.028)	3.52 (.958)	2.67 (1.166)	2.65 (1.083)
	t	−0.100		0.373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돈이 중요하다	M (SD)	3.48 (1.029)	3.41 (1.020)	2.89 (1.155)	2.93 (1.156)
	t	1.088		−0.533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M (SD)	3.37 (.967)	3.49 (.896)	1.90 (1.054)	1.76 (.900)
	t	−2.038*		2.284*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M (SD)	3.40 (1.133)	3.33 (1.049)	3.12 (1.181)	2.81 (1.069)
	t	0.994		4.293***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윤창출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M (SD)	3.26 (.982)	3.32 (.917)	2.40 (1.090)	2.42 (.997)
	t	−1.021		−0.228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책임보다 더 중요하다	M (SD)	3.27 (1.006)	3.14 (.896)	3.47 (1.125)	3.44 (1.014)
	t	2.158*		0.438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M (SD)	3.10 (1.158)	3.16 (1.170)	2.65 (1.230)	2.60 (1.130)
	t	−0.836		0.576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허한 약속일뿐이다	M (SD)	3.07 (1.108)	3.08 (1.048)	3.20 (1.050)	3.17 (.946)
	t	−0.263		0.391	
기업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다	M (SD)	3.05 (1.071)	2.80 (.993)	2.13 (1.093)	1.96 (.896)
	t	3.816***		2.567*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M (SD)	3.02 (1.124)	2.75 (1.094)	2.39 (1.249)	2.08 (1.070)
	t	3.748***		3.991***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M (SD)	2.86 (1.153)	2.70 (1.085)	3.20 (1.122)	3.04 (.995)
	t	2.292*		2.205*	
기업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다	M (SD)	2.83 (1.133)	2.56 (1.014)	1.98 (1.040)	1.90 (.854)
	t	3.991***		1.292	
기업은 기업소유자의 이익만 달성하면 된다	M (SD)	2.46 (1.171)	2.04 (.989)	2.35 (1.188)	2.10 (.966)
	t	6.144***		3.495**	

* p<.05 ** p<.01 *** p<.001

부록표-10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한국과 핀란드청소년 경제수준별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환경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M (SD)	3.96 (.902)	4.05 (.846)	4.07 (.881)	3.98 (1.021)	4.05 (.912)	4.15 (.918)
	F(scheffe)	0.588(하>중>상)			1.787(하>중>상)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M (SD)	3.83 (.944)	3.94 (.945)	4.10 (.898)	3.59 (1.087)	3.76 (.866)	3.75 (1.001)
	F(scheffe)	5.150**(하>중>상)			1.360(중>하>상)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사람들의 행복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M (SD)	3.99 (.844)	3.95 (.822)	4.03 (.861)	4.06 (.937)	4.25 (.769)	4.28 (.884)
	F(scheffe)	0.887(하>상>중)			2.615(하>중>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	M (SD)	3.71 (.938)	3.86 (.818)	3.93 (.768)	3.74 (.983)	3.82 (.836)	3.87 (.910)
	F(scheffe)	3.214*(하>중>상)			0.946(하>중>상)		
위기상황에서(예, 자연재해 등), 기업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M (SD)	3.73 (.978)	3.79 (.962)	3.78 (.982)	3.88 (1.004)	4.03 (.791)	3.99 (.913)
	F(scheffe)	0.189(중>하>상)			1.137(중>하>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결국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M (SD)	3.57 (1.085)	3.76 (.928)	3.83 (.930)	3.74 (.904)	3.79 (.850)	3.76 (1.002)
	F(scheffe)	3.164*(하>중>상)			0.107(중>하>상)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M (SD)	3.61 (.932)	3.72 (.889)	3.86 (.887)	3.68 (1.060)	3.72 (.938)	3.82 (.966)
	F(scheffe)	4.227*(하>중>상)			1.340(하>중>상)		
자선과 기부는 기업의 책임있는 운영방식이다	M (SD)	3.66 (.945)	3.70 (.864)	3.73 (.887)	2.74 (1.157)	2.87 (1.052)	2.86 (1.075)
	F(scheffe)	0.352(하>중>상)			0.570(중>하>상)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업가 정신은 기업의 모든 운영방식에 해당된다	M (SD)	3.66 (1.003)	3.65 (.820)	3.70 (.908)	3.61 (.755)	3.67 (.743)	3.65 (.864)
	F(scheffe)	0.464(하>상>중)			0.175(중>하>상)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이익을 가져온다	M (SD)	3.43 (1.006)	3.65 (.883)	3.72 (.876)	3.36 (.972)	3.43 (.966)	3.48 (1.049)
	F(scheffe)	4.171*(하>중>상)			0.524(하>중>상)		
공공기관보다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제공할 수 있다	M (SD)	3.43 (.994)	3.58 (.943)	3.61 (.958)	3.34 (1.190)	3.37 (.857)	3.30 (1.012)
	F(scheffe)	1.401(하>중>상)			0.490(중>상>하)		
도덕과 윤리는 기업의 성공과 사회의 발전을 보장한다	M (SD)	3.48 (1.036)	3.54 (.962)	3.62 (.937)	3.31 (1.046)	3.30 (.924)	3.40 (1.028)
	F(scheffe)	1.278(하>중>상)			1.052(하>상>중)		

구분		한국			핀란드		
		상	중	하	상	중	하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M (SD)	3.48 (.935)	3.49 (.970)	3.55 (1.037)	2.67 (1.196)	2.72 (1.102)	2.59 (1.119)
	F(scheffe)	0.418(하>중>상)			1.341(중>상>하)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돈이 중요하다	M (SD)	3.58 (.905)	3.46 (1.003)	3.39 (1.077)	2.78 (1.248)	2.93 (1.105)	2.92 (1.186)
	F(scheffe)	1.544(상>중>하)			0.614(중>하>상)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M (SD)	3.21 (1.019)	3.40 (.923)	3.51 (.919)	1.86 (1.064)	1.86 (.964)	1.76 (.955)
	F(scheffe)	4.581*(하>중>상)			1.212(중>상>하)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M (SD)	3.34 (1.082)	3.35 (1.100)	3.40 (1.091)	2.88 (1.138)	2.98 (1.105)	2.90 (1.149)
	F(scheffe)	0.235(하>중>상)			0.715(중>하>상)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윤창출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M (SD)	3.19 (.970)	3.25 (.962)	3.36 (.931)	2.23 (1.007)	2.34 (1.013)	2.53 (1.059)
	F(scheffe)	2.264(하>중>상)			5.098**(하>중>상)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책임보다 더 중요하다	M (SD)	3.22 (.959)	3.22 (.960)	3.20 (.956)	3.54 (1.030)	3.46 (1.017)	3.43 (1.120)
	F(scheffe)	0.038(중>상>하)			0.371(상>중>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M (SD)	3.25 (1.097)	3.13 (1.160)	3.10 (1.186)	2.55 (1.262)	2.55 (1.116)	2.72 (1.209)
	F(scheffe)	0.665(상>중>하)			2.395(하>중>상)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허한 약속일뿐이다	M (SD)	3.35 (1.042)	3.02 (1.050)	3.06 (1.116)	3.00 (1.052)	3.11 (.961)	3.30 (1.003)
	F(scheffe)	3.675*(상>하>중)			5.155**(하>중>상)		
기업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다	M (SD)	2.99 (1.027)	2.92 (1.023)	2.92 (1.070)	2.11 (1.067)	2.09 (.981)	1.94 (.971)
	F(scheffe)	0.222(상>중=하)			2.791(상>중>하)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M (SD)	2.98 (1.117)	2.88 (1.151)	2.88 (1.078)	2.25 (1.080)	2.23 (1.141)	2.19 (1.195)
	F(scheffe)	0.347(상>하>중)			0.188(상>중>하)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M (SD)	2.90 (1.104)	2.76 (1.096)	2.79 (1.164)	2.98 (1.097)	3.11 (1.006)	3.14 (1.099)
	F(scheffe)	0.663(상>하>중)			0.862(하>중>상)		
기업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다	M (SD)	2.88 (1.117)	2.71 (1.081)	2.65 (1.082)	1.96 (1.083)	1.97 (.901)	1.88 (.939)
	F(scheffe)	1.954(상>중>하)			1.157(중>상>하)		
기업은 기업소유자의 이익만 달성하면 된다	M (SD)	2.40 (1.199)	2.27 (1.103)	2.20 (1.087)	2.07 (1.127)	2.27 (1.084)	2.16 (1.044)
	F(scheffe)	1.521(상>중>하)			2.142(중>하>상)		

* p<.05 ** p<.01 *** p<.001

Abstract

Youth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comparison of Korean and Finnish you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compare Korean and Finnish youth's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Korea and Finland are both among the 20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countries represented as innovation-driven. It is well-known that entrepreneurship is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Entrepreneurs contribute economic growth through job creation and technical innov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help youth consider becoming an entrepreneur as a viable career option and learn how to pursue it successfully when they want to. To come up with strategies to promote entrepreneurship of youth, we need to examine their attitudes toward it. In addition, we investigate and compare Korean and Finnish youth's percep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 structured questionnaire on entrepreneurship and CSR was developed by Finnish Youth Research Network. Researchers a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ranslated its English version into Korean and sought professional advice for checking the compatibility between Finnish and Korean versions of the survey questions in order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translation. A web-based survey was developed and administered to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s of 1,058 Finnish youth and 1,016 Korean youth aged 15-29. Policy recommendations to promote youth's entrepreneurship and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CSR are articulated.

Key words: entrepreneurship,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Korean youth, Finnish Youth,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 · 임지연 · 한도희 · 김영애 · 김혁진 · 김인규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 · 임지연 · 한도희 · 김영애 · 김혁진 · 김인규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 · 김현철 · 윤혜순 · 송민경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 · 조혜영 · 김민 · 김영호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 · 김영지 · 김진호 · 이용교 · 조아미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 · 김영지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 · 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 · 김영한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 · 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 · 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영한

11-R06 한국 아동 · 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헌 · 김창환

11-R07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 · 김승경 · 박주희

11-R08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 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 · 이혜연 · 유성렬 · 박은미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 · 오해섭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 · 오해섭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 · 오해섭 · 정익중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 · 오해섭

11-R10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 · 백혜정 · 이종원 · 김지영

11-R10-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 · 백혜정 · 이종원 · 김지영 · 서우석

11-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 · 김현신

11-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 · 이민희 · 박선영 · 박숙경 · 신인순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 · 김소희 · 오세정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 · 임영식 · 이인재 · 박균열 · 박병기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 · 홍성훈 · 서규선 · 한혜민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 · 김남준 · 김항인 · 류숙희 · 윤영돈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 · 변순용 · 김국현 · 손경원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 · 김남준 · 김항인 · 류숙희 · 윤영돈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김희진 · 박현준 (자체번호 11-R2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 · 정해숙 · 마경희 · 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 · 박건 · 권영인 · 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강지현 (자체번호 11-R2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 모상현 · 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김지은 · 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 ·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 · 김영문 · 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박수억 (자체번호 11-R2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 · 박수억 (자체번호 11-R23-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 · 김희진

11-R15 한 · 중 · 일 · 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 · 임희진 · 김진숙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 · 최창욱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헌 · 맹영임

수 탁 과 제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헌 · 최창욱 · 김형주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억 · 손의숙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헌 · 모상현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헌 · 모상현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헌 · 김가람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11-R40 '공정사회 실현' 고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헌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억 · 장근영 · 김형주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혜연 · 황옥경 · 이용교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11-R46 성인 · 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11-S11 아동 · 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11-S12 아동 · 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11-S13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11-S28 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11-S31 아동 · 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 · 중 국제 세미나(9/22)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11-S39 제1회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11-S40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11-S41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11-S43 2011 한 · 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형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Ⅰ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Ⅱ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Ⅲ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Ⅳ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Ⅴ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Ⅵ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Ⅰ: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헌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Ⅶ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Ⅱ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헌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Ⅷ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Ⅰ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헌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Ⅸ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Ⅱ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헌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Ⅹ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Ⅲ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헌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 · 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NYPI YOUTH REPORT 17호 : 초 · 중 · 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 · 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보고 11-R14

창업, 기업가정신,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인 쇄 2011년 12월 29일
발 행 2011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리 드 릭 전화 02)2269-191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992-9(93330)